I·SEOUL·U
너와 나의 서울

2017 정책연구-23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 이승미(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실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이해응(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실 연구위원)
위촉연구원 : 이화용(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실 연구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발 간 사

이주배경 청소년 중 주로 외국에서 성장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어려움은 마땅한 대책 없이 수년 전부터 부각되어 왔습니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부모 중 일방이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을 한 경우나 한국으로 일을 하러 간 경우가 대부분으로, 먼 나라에 떨어져있던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입국한 이후의 미래에 대하여는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곧 한국어라는 거대한 언어 장벽에 부딪히고, 한 학기의 수업을 마칠 수 없는 정도의 체류불안정에 시달리며, 학업과 취업 사이에서 느끼는 진로 고민, 경제적인 사정까지 한국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을 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관련 지원 정책은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에게 집중되어 있고, 중도입국 청소년은 그 대상에서 비껴나 있습니다. 만일 중도입국 청소년에게도 적절한 지원이 주어진다면, 각자가 품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그러한 의미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을 연구한 결과입니다. 정책 제안의 주된 내용은 지역 내 중도입국 청소년 인구에 비례한 거점의 마련, 공식적인 정보 제공 경로의 조성과 이동식 상담버스를 활용한 상시 접근 체계의 마련,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의 허브 역할 강화, 이중언어가 가능한 상담원의 양성, 중도입국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방지 교육 등이며, 전국적 규모에서의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통계의 마련과 체류허가기간 유예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중앙정부에 대하여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책적 개선안을 낼 수 있도록 이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과 연구진께 감사드립니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각자의 재능과 포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서울시로의 한 걸음에 이 연구가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2017년 11월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강 경희

Contents

Ⅰ 서 론 _ 0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 6
   1) 중도입국 청소년의 범위 ····· 6
   2) 연구 내용 ····· 10
   3) 연구 방법 ····· 14
3. 연구 추진 체계 ····· 22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_ 23

1. 선행연구 검토 ····· 25
2. 시사점 ····· 36

Ⅲ 관계 법령과 관련 정책 검토 및 시사점 _ 39

1. 관계 법령 검토 ····· 41
2. 관련 정책 검토 ····· 42
   1) 중앙정부의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 42
   2) 서울시의 ≪2017년도 서울시 다문화가족 지원 시행계획≫ ····· 45
3. 시사점 ····· 49

1)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 중심의 정책에 대한 비판 ····· 49
2) 이중 언어 상담사 부재 ····· 52
3) “또래친구만들기” 사업의 개선점 파악 필요 ····· 53
4) 소결 ····· 54

Ⅳ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의 현황 검토 _ 55

1. 9~24세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추정 인구 ····· 57
2. 외국인주민 밀집지역 내 중국국적 중도입국 청소년 추정 인구 61
3.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통계 마련의 시급성 ····· 64

Ⅴ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체계상의 개선점 _ 67

1.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 충분도 ····· 69
2. 동기 부여의 부족 ····· 72
   1) 후기 중도입국 청소년의 동기 부여 부족 ····· 72
   2) “또래친구만들기” 사업의 개선점 ····· 75
3. 정보 제공 경로 미비 ····· 79
   1) 가족과 지인으로부터의 정보 제공 ····· 79
   2) 다국어 및 쉬운 한국어 안내 미비 ····· 83
4.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정 ····· 86
   1) 사전 준비 없는 입국 ····· 86
   2) 체류자격의 불안정 ····· 89
   3) 학교밖 중도입국 청소년의 일과 관리 어려움 ····· 92
   4) 가족해체경험과 지지기반의 부실 ····· 93
   5) 경제적 어려움 ····· 101

5. 진로설계의 어려움 ····· 103
1) 교육전문가 부재 ····· 103
2) 한국어 심화 학습 부재 ····· 107
3)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의 어려움 ····· 111
6. 소결 ····· 113

Ⅵ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개선 방안 _ 115

1. 서울시에 대한 정책 제안 ····· 117
1) 서울시 지역적 특성 반영 ····· 117
2) 동기부여 프로그램의 개발과 핵심역량 강화 ····· 122
3) 정보 제공 경로 확보 및 상시 접근 체계 마련 ····· 125
4) 상담 및 부모교육 ····· 130
5) 교육전문가 파견과 한국어 심화과정 마련 ····· 133
6)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 137
2.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 제안 ····· 139
1)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통계 마련 ····· 139
2) 체류허가기간의 유예 ····· 140
3. 소결 ····· 142

표 목차

▌표 Ⅰ-1▐ 연구 내용 및 세부 내용 ····· 12
▌표 Ⅰ-2▐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 심층면접조사 대상별 특성 ····· 18
▌표 Ⅰ-3▐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심층면접조사 주요내용 ····· 20
▌표 Ⅰ-4▐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학부모 심층면접조사 주요내용 ····· 20
▌표 Ⅰ-5▐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현장전문가 및 교사 심층면접조사 주요내용 21
▌표 Ⅰ-6▐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공무원 심층면접조사 주요내용 ····· 21
▌표 Ⅰ-7▐ 주요 추진체계 ····· 22
▌표 Ⅱ-1▐ 선행연구 검토 정리 ····· 34
▌표 Ⅲ-1▐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중 다문화가족 자녀 관련 과제 ····· 42
▌표 Ⅲ-2▐ 2017년 레인보우스쿨 운영기관 현황 ····· 43
▌표 Ⅲ-3▐ 여성가족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 44
▌표 Ⅲ-4▐ 2017년도 서울시 다문화가족 자녀 관련 과제 ····· 45
▌표 Ⅲ-5▐ 2017년도 서울시 다문화가족 지원 시행계획 중 ‘중도입국 청소년 종합지원’의 내용 ····· 46
▌표 Ⅳ-1▐ 2016년 지역별 10세~24세 등록외국인 현황 ····· 59
▌표 Ⅳ-2▐ 2012년~2016년 서울시 10세~24세 등록 외국인 현황 ····· 59
▌표 Ⅳ-3▐ 2016년 서울시 자치구별 국적별 등록외국인 현황 ····· 62
▌표 Ⅳ-4▐ 2016년 서울시 자치구별 중국국적 외국인주민 인구 및 비율 ····· 63
▌표 Ⅳ-5▐ 2016년 서울시 자치구별 10~24세 등록외국인 인구 ····· 63
▌표 Ⅴ-1▐ 2017년 “또래친구만들기” 사업의 주요 활동과 인원변동 및 이탈 원인 76
▌표 Ⅴ-2▐ 심층면접조사 대상 지원기관 정보습득 경로 ····· 80
▌표 Ⅴ-3▐ 심층면접조사 대상 가족해체 경험 및 기간 ····· 93
▌표 Ⅵ-1▐ 캐나다 SettlementAtWork Wiki의 내용 중 청소년의 요구사항 ····· 127

그림 목차

▌그림 Ⅰ-1▐ 관련 법령 해석에 의한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의 범위 ····· 8
▌그림 Ⅰ-2▐ 연구 중점 대상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의 특징 ····· 9
▌그림 Ⅰ-3▐ 사전 전문가회의 및 착수전문가회의에서 도출된 주요 원인 ····· 10
▌그림 Ⅲ-1▐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법령 및 정책 ····· 50
▌그림 Ⅲ-2▐ 개선사항 분류 예시 ····· 54
▌그림 Ⅳ-1▐ 2012년~2016년 서울시 10세~24세 등록 외국인 현황 ····· 60
▌그림 Ⅳ-2▐ 2016년 9~24세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인구 추정 ····· 61
▌그림 Ⅴ-1▐ 서울온드림교육센터 및 서울시 소재 레인보우스쿨 지리적 환경 ····· 70
▌그림 Ⅴ-2▐ 서울시 또래친구만들기 사업 모형 예시 ····· 75
▌그림 Ⅵ-1▐ 독일 JMD 사례 ····· 119
▌그림 Ⅵ-2▐ 허브로서의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 ····· 121
▌그림 Ⅵ-3▐ 관련 정책의 서울시 지역적 특성 반영 부족에 대한 개선방안 ····· 121
▌그림 Ⅵ-4▐ 서울시 “또래친구만들기” 대상 청소년 예시 ····· 122
▌그림 Ⅵ-5▐ 후기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동기부여 프로그램 개선방안 ····· 125
▌그림 Ⅵ-6▐ 캐나다 온타리오 지역의 이주민 분야에 관한 SettlementAtWork Wiki 126
▌그림 Ⅵ-7▐ 캐나다 온타리오 지역의 이주민 분야에 관한 SettlementAtWork Wiki 중 청소년에 관한 내용 ····· 127
▌그림 Ⅵ-8▐ (사)들꽃청소년세상의 움직이는 청소년센터(EXIT) ····· 129
▌그림 Ⅵ-9▐ 정보 제공 경로 미비에 대한 개선방안 ····· 130
▌그림 Ⅵ-10▐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정 개선방안 ····· 133
▌그림 Ⅵ-11▐ 한국어 교육과정(KSL) 고등학교 수학 과목 영역별 핵심 주제 예시 · 135
▌그림 Ⅵ-12▐ 한국어 교육과정(KSL) 고등학교 수학 과목 영역별 핵심 어휘 예시 · 135
▌그림 Ⅵ-13▐ 캐나다의 ELT 과정 ····· 136
▌그림 Ⅵ-14▐ 캐나다의 OSLT 과정 ····· 137
▌그림 Ⅵ-15▐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설계의 어려움 개선방안 ····· 139
▌그림 Ⅵ-16▐ 서울시민카드 하나로 안드로이드용 앱 ····· 140
▌그림 Ⅵ-17▐ 중도입국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 및 주요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 ····· 141

연구요약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중도입국 청소년”의 개념 및 특징

○ “중도입국 청소년”은 이주배경 청소년 중 주로 외국에서 성장한 청소년을 의미함. 이들은 주로 친부모와 함께 살 목적으로 입국하였으나, 한국 사회에서의 생활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준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언어장벽이나 체류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게 됨.

○ 정책적 지원이 없는 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들도 이와 같은 어려움에서 예외일 수 없음. 이미 법적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이 되었거나 앞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에 대하여 서울시는 현재 그들이 처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관련하여 기존 서울시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자 함. 또한,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당사자, 학부모, 현장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함으로써 정책적 수요를 수렴하고, 방향성과 세부내용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1-2. 연구 내용 및 방법

□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의 범위

○ 법령 해석에 의하면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은 “서울시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자녀 또는 인지,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의 자녀로서 외국에서 성장하는 중에 국내로 입국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될 수 있음.

○ 조사과정 중 “중도입국 청소년” 범위 확장 필요성 발견

- 연구의 중점 대상은 ‘주로 외국에서 성장하다가 언어발달의 시기를 지나 적어도 13~15세 이후의 비교적 늦은 나이에 한국에 입국’ 하였으며, ‘장기간 또는 영속적인 거주의사’를 가지고 국내로 이주하였고,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임. 여기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자녀나 외국국적동포의 자녀 등이 포함됨.
- 실제 관련 지원기관 이용자인 청소년 중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자녀와 외국국적동포 등이 다수 있었음. 이들은 진학하거나 취업하여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살기를 원하였음. 또한 부모의 체류자격에 의하여 장기체류자격 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도 많음. 따라서 동일한 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체류자격에 의해 지원대상인지 아닌지, 부모와 본인의 체류자격 변화에 따라 동일한 청소년에 대하여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적절치 않음.

□ 연구 내용

○ 이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뉨.

- 첫째, 선행연구 및 관련법령과 정책을 검토하여 최근까지의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현황과 정책적 문제점을 갈무리하고, 관계법령과 정책을 검토하여 현행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체계의 한계점을 분석하고자 함.
- 둘째,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과 그 주요 원인 분석임. 이 연구의 사전 전문가회의 및 착수자문회의를 통해 도출된 주요 원인은 (ⅰ) 관련 정책의 서울시 지역적 특성 반영 부족, (ⅱ) 후기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동기 부여 부족, (ⅲ) 정보 제공 경로 미비, (ⅳ)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정, (ⅴ) 진로설계의 어려움임.
- 셋째로, 앞서 분석한 내용을 기초로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구분	연구 내용	세부 내용
정책 진단을 위한 문헌연구	선행연구 검토	•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현황 및 정책적 체계 문제점 파악
	관련 정책 검토	• 중앙정부 및 서울시 관계법령 및 관련정책 검토 • 국외 법령 및 정책 비교 분석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의 주요 원인 분석	관련 정책의 서울시 지역적 특성 반영 부족	•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인구 규모 추정 • 외국인 밀집지역 내/외 중도입국 청소년 및 중국 국적 중도입국 청소년 분포 파악 •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기관 배치지역 및 지원내용 검토
	동기 부여의 필요성	• 후기 중도입국 청소년과 정책적 사각지대 현황 • “또래친구만들기” 사업 결과 분석 및 개선 방향 제시
	정보 제공 경로 미비	• 중도입국 청소년 및 학부모의 정보 제공 경로 파악 • 공식적 정보 제공 경로 마련 및 외국어 서비스 필요성 검토
	심리적 불안정	• 사전 준비 없는 입국, 체류기간의 불안정, 고민을 털어놓을 지지기반의 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에 의한 심리적 불안정 경험 • 각각의 원인에 대한 직접적 지원 및 심리 상담 등의 지원 필요
	진로 설계의 어려움	• 교육전문가 부재 • 한국어 심화 학습 필요성 검토 •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의 어려움
정책 방안 제시	지역 내 중도입국 청소년 인구 비례 거점 마련	• 10~24세 중도입국 청소년 밀집지역 내 소규모 거점 마련 • 독일 JMD 사례 참조
	정보 제공 경로 확보 및 상시 접근 체계 마련	• 공식적 정보 제공 경로 조성 • 이동식 상담버스의 활용과 교육전문가 양성
	허브로서의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 역할 강화	• 지원기관의 연계 기능 강화 • 동기부여 프로그램의 개발과 핵심역량 강화
	상담 및 부모교육	• 이중언어 가능 상담원 양성 •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의 부모 대상 아동학대 방지 교육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통계 마련	• 국가차원에서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통계 마련 • 서울시민카드 앱 이용 관리방안
	체류허가기간의 유예	• 서울시 및 출입국관리소의 D-4-3 비자와 유사한 체류허가기간 유예의 협의

□ 연구 방법으로 크게 문헌연구, 통계분석, 심층면접조사를 이용함.

○ 문헌연구로서 최근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연구와 관련 법령,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관련 정책을 검토함.

○ 현재 전국 및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현황을 조사·분석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음.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인구 규모 추정을 위하여 통계청의 2016년 '지역 및 연령별 등록외국인 현황' 중 10~24세 인구 현황, 같은 통계의 자치구별 국적별 등록외국인 현황 등을 참고로 함.

○ 심층면접조사로서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17명, 특히 이 중 10명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하고, 학부모 2명, 현장전문가 및 교사 9명, 공무원 1명 등 총 29명을 대상으로 기존 지원체계 및 내용에서 개선해야할 점과 정책 수요를 파악함.

조사 대상	세부 내용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 입국 전 상황(입국시기, 체류자격, 가족해체경험, 자의에 의한 입국 여부 등) • 입국 후 변화(재정적 상황, 성격적 변화,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 등) • 진로(한국어 수준, 검정고시 및 향후계획) • 정보전달 경로 • 지원기관 또는 학교에 대한 만족도 및 이유 • 친구관계 • 정책수요
학부모	• 이주배경, 자녀의 학업상황 및 정보 접촉 경로 등 • 본인 및 자녀 네트워크 • 자녀의 진로에 관한 고민 • 자녀가 현재 지원받고 있는 현황 • 정책수요
현장전문가 및 교사	• 현재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업무 • 학교밖 청소년의 비재학 원인 • 청소년의 공교육 편입 희망도 및 불희망 원인 • 특성화 프로그램, 상담 등 심리프로그램 진행 여부 • 재정지원 주체, 서울시의 재정적/재정 외적 지원 여부
관련 공무원	• 현재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업무 • 학교밖 청소년 및 중도인국 청소년인 학교밖 청소년의 차이점, 지원정책 수립 시 중점 고려 사항 • 대안학교 등 학교밖 교육 정보의 전달 체계 및 정책 수요 수렴 경로 •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증 발급 가능 여부

2.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2-1. 선행연구 검토

○ 배상률(2016)의 연구는 문헌연구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한 결혼이민자의 자녀로 모국에 살다 한국에 들어와 거주하는 청소년’에 대한 양적 조사(설문조사), 질적 조사(SNS토론단 운영, 심층면접조사) 등을 수행하였음.

- 중도입국 청소년은 재학생과 학교밖 청소년의 비율이 각각 70%, 30%였음. 한국어 실력 부족은 공교육 진입기간을 장기화하며, 학교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주된 이유로 나타남. 거주기간이 길수록 진로정체감이 점점 낮아지며, 화목한 가정은 이들에게 행복한 삶의 핵심 요건이었음.
- 이들은 최근 진로문제에 대해 가장 고민을 하였는데, 현장전문가들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별도의 통합지원센터 신설이나 허브가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음.
- 이 연구에서는 저연령층에게는 공교육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중심적 지원, 고연령층에는 진로탐색, 직업기술교육, 취업처 알선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함.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지원 영역은 상호 연관성을 갖고 영향을 미치며, 중도입국 청소년은 단일 성격의 집합체가 아니므로, 연령, 성별, 문화적 배경과 진로 및 진학 등과 관련된 의지 및 역량을 고려해 맞춤식 지원이 필요함.
- 이에 따라 교육 바우처 제도, 학교 대상 인센티브 지급, 중도입국 청소년 특별전형 신설, 교원양성 과정 연수 프로그램, 교육 시설 확충과 교재 및 커리큘럼 개선, 모국어로 번역된 학교운영 및 교육제도 매뉴얼 보급, 한국어 집중 교육을 먼저 진행하는 1+3 제도의 운영 등을 제안함.

○ 정해숙 외(2016)의 연구는「다문화가족지원법」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15년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결과 분석임.

- 서울과 경기지역에 전체 다문화가구의 절반 정도가 거주하고 있으며, 평균 자녀의 수는 1.02명임. 결혼이민자·귀화자 수는 304,516명으로 2012년에 비

해 약 8%가 증가함. 국적으로는 중국(한국계) 비율이 소폭 감소하고, 베트남 출신 비율이 증가함.

- 만 9~24세 청소년 자녀는 82,486명으로 추정되며, 2012년에 비해 24% 증가함. 이 중 60.8%는 국내에서만 성장했고, 23.7%는 외국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고, 15.5%는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자녀임.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자녀의 경우 약 70%가 18세 이상이며, 절반 이하만이 재학 중임. 국적은 한국계 중국이 절반 이상임. 중도입국 자녀의 15.5%는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으며, 비재학 자녀는 주로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가장 많이 하고, 니트족도 상당 비율을 차지함(13.2%). 학교를 그만 둔 이유는 '학교생활 및 문화가 달라서', '학교공부가 어려워서'인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급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자녀일수록 학교공부에 대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이규용 외(2014)의 연구 및 서덕희 외(2015)의 연구, 장명선 외(2011)의 연구를 참고하였음.

2-2. 시사점

○ 내용적으로 선행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이 처한 척박한 환경에 관한 상황설명과 공교육 진입, 생활 한국어 이상의 한국어 교육, 직업교육·직업체험·진로상담과 같이 취업에 관련된 지원의 현실화, 불안한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심리상담 등을 강조함.

○ 한국어 교육은 한국 사회 적응의 핵심역량으로서 중요하며, 이때 직업과 관련된 전문 한국어와 한국어 발음의 교정이 필요함.

○ 직업교육과 직업체험은 바로 취업과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음. 안산의 경우 지자체 중심으로 이주민 관리 차원에서 사례관리 중심의 다층적 협의회가 구축된 시스템에 근거하여 총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취업하고자 하는 중도입국 청소년과 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을 매칭시키는 등의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임.

○ 진로상담과 심리상담의 필요성은 꾸준히 주장됨. 진로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올바른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진로상담사가 필요하지만,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에서도 담당 선생님에게 묻는 수준으로, 인력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심리상담의 경우 이중언어가 가능한 상담원의 양성이 필요함.

○ 서울시 10~24세 인구의 국적이 중국국적인 경우가 압도적인 것을 감안하여 주요 외국어 서비스 제공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상술한 내용을 토대로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정책으로 개선해야할 점을 가늠해보고자 함.

3. 관계 법령과 관련 정책의 검토 및 시사점

3-1. 관계 법령과 관련 정책 검토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청소년기본법」 제3조 등 검토

○ 여성가족부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서울시 ≪2017년도 서울시 다문화가족 지원 시행계획≫ 검토

3-2. 시사점

○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 중심의 정책에 대한 비판

-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지원정책은 사실상 중앙정부 초기 적응 프로그램인 'Rainbow School'의 운영과 서울시의 '서울온드림교육센터'의 운영에 불과함.
- 중도입국 청소년 내에서의 이질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음. 17~18세 이전의 저연령 중도입국 청소

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한국어 교육이 종료되면 학력인증이 가능한 공교육 기관으로 연계한 후 학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고, 17~18세 이후의 후기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해서는 니트 상황을 벗어나게 하기 위한 동기부여 프로그램, 취업을 위한 교육과 취업알선처 연계 등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을 것임.

○ ‘다문화자녀·중도입국자녀 심리정서 지원’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

- 이중언어가 가능한 상담가의 부재. 보호자가 동행하여 중도입국 청소년과 상담가의 말을 통역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거나 영어를 사용함. 이중언어가 가능한 상담가의 양성이 시급함.

○ “또래친구만들기” 사업의 개선점 파악 필요

- 2017년 서울시 신규 사업임. 공모를 통해 3개 자치구에서 시행하였으며, 중도입국 청소년과 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인 청소년을 1:1로 매칭하여 영상만들기, 난타, 합창 등 활동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에 노력하였음.
- 사업 종료 후 이 모임과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과제로 남음. 특히 모집의 어려움도 해결이 필요함.

4.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의 현황 검토

4-1. 9~24세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추정 인구

□ 2016년 통계청 ‘지역 및 연령별 등록외국인 현황’

○ 10~24세 등록외국인 인구가 45,840명으로 전국 시·도 중 서울시에 가장 많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 정해숙 외(2015)의 연구에서 만 9~24세 다문화가족자녀가 전국 82,476명으로 추정된다고 하였고, 다문화가구의 21.6%가 서울에 위치하며, 평균 가구원수가 3.16명으로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다고 하였음. 이에 따르면, 서울시 다문화가구에 속한 자녀의 수는 82,476명의 21.6%인 17,815명으로 도출되는데,

그 중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비율이 15.5%라고 하였으므로, 2,761명가량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도입국 청소년 중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9~24세 다문화가정 자녀라고 볼 수 있음. 여기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자녀와 외국국적동포의 자녀가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2,761명을 '9~24세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의 최소한으로 가정하기로 함.

4-2. 외국인주민 밀집지역 내 중국국적 중도입국 청소년 추정 인구

□ 외국인 밀집지역의 형성과 중국국적 외국인주민

○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에 외국인 밀집지역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 중 중국국적 외국인주민 인구가 압도적임.

- 3개 자치구 중국국적자의 수는 82,415명이고, 3개 전체 등록외국인의 97.5%를 차지함. 2016년 3개 자치구의 10~24세 등록외국인 인구는 3,084명이므로, 단순 산술하여 이 수의 97.5%인 3,007명의 중국국적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이 중 중도입국 청소년의 비율은 관련 통계의 미비로 알 수 없음.
- 자치구별·국적별 등록외국인 수가 많다고 하여, 그 지역에 중도입국 청소년 비율이 높다고 추정할 수 없음. 중도입국 청소년은 다양한 체류신분으로 인해 정확한 인구파악이 어려움. 다수의 중도입국 청소년이 부모와 함께 살기 위해 국내에 입국했으므로, 등록외국인이 많은 지역에 그 자녀도 높은 비율로 분포되어 있으리라 추정할 수 있음. 따라서 서울시 전체 해당 등록외국인 인구의 58.2%를 상회하는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에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정책을 우선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4-3.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통계 마련의 시급성

□ 정책 수립에 선행하여야 할 관련 통계의 마련

○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통계가 없어 인구 규모조차 구하기 어려움.

통계 마련은 정책 구상 단계에 선행되어야 하므로, 사안이 시급함.

○ 중도입국 청소년의 체류자격이 매우 다양하여 이를 구하기 어렵다면, 두 가지 차선책이 가능함.

- 첫째, 서울온드림교육센터, 레인보우스쿨, 서울시교육청, 이주다문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소속 중도입국 청소년 인구를 조사하여 그 합산을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의 최소한 인구로 설정하는 방안, 둘째, 외국인등록을 마친 청소년에게 서울시 차원에서 외국인청소년증을 발급하고 관리하는 방안임. 두 번째 방안의 경우 "모바일 서울시민카드 앱"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5.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체계상의 개선점

5-1.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 충분도

□ 10~24세 등록외국인 인구와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의 지리적 환경

○ 등록외국인 인구는 영등포구 > 구로구 > 금천구 순이나, 10~24세 등록외국인 인구는 동대문구, 성북구, 서대문구에 상대적으로 많음. 학교밖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서울시 중앙에 집중적으로 위치한 지원기관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 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 10~24세 등록외국인 인구는 서울시 전체 10~24세 등록외국인 인구의 약 6.7%이므로, 9~24세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의 최소한이 2,761명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해당 지역구 내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중도입국 청소년 중 학교밖 청소년의 최소한은 185명으로 볼 수 있음. 서울온드림교육센터의 2016년 교육실적이 127명이므로, 다른 자치구의 학교밖 중도입국 청소년은 일부에 대한 지원만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름.

○ 다른 자치구, 특히 서울온드림교육센터나 레인보우스쿨과 거리가 먼 강동지역 등에 거점 형식의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5-2. 동기 부여의 부족

□ 후기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동기 부여 부족

○ 현재 시행 중인 중앙정부 및 서울시 정책은 레인보우스쿨 및 서울온드림교육센터의 운영을 제외하고, 주로 초등학교까지의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함. 후기 중도입국 청소년은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후기 중도입국 청소년은 접근성이 매우 낮고, 진학이나 취업을 하지 않고, 부모가 주는 용돈으로 생활하며, 그들만의 집단을 형성하여 일정한 생활영역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드물다고 알려져 있음.

○ 가장 문제가 되는 사례는 입국 초기에 정확한 정보 없이 한국에 체류하기 시작하여 시간이 도과하면서 점차 자존감을 잃고 학업이나 취업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임.

□ “또래친구만들기” 사업의 개선점

○ 서울시가 서남권 거주 한국인 중고생 및 학교밖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 위주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3개 자치구를 선정하여 “또래친구만들기” 사업을 시행함.

○ 주요활동으로는 합창, 멘토링, 캠프, 난타, 목공, 미디어 제작 등이며, 참여자의 이탈원인은 한국 재학생의 경우 학교 또는 학원 일정 조정의 어려움,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비자문제로 인한 모국방문, 아르바이트 등이었음.

○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중도입국 청소년과 관련한 여러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공통적이었음. 다만 콘텐츠에 관하여서는 팀 대항이 가능한 스포츠, 댄스 동아리 등 발산할 수 있는 내용, 기술교육원과 대학 내 캠프 등을 통한 진로 탐색 내용, 근거리 여행과 회화·사진 등을 통함 심리치료 내용 등의 개발이 필요함.

5-3. 정보 제공 경로 미비

□ 가족과 지인으로부터의 정보 제공

○ 중도입국 청소년의 주된 정보 제공 경로가 부모 또는 친척, 지인임. 입국 전 사전 준비과정을 거칠 수 있는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 다국어 및 쉬운 한국어 안내 미비

- 중도입국 청소년 본인에 못지않게 그 부모의 한국어 수준도 높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학제 안내 등 기본적인 내용은 영어, 중국어 등 주요 외국어와 사진 및 그림을 다수 이용한 쉬운 한국어로 제작할 필요가 있음.
- 가정폭력, 학대, 가출 등으로 인해 도움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주요 외국어 또는 쉬운 한국어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화번호 등의 정보 제공이 가능해야 할 것임.

5-4.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정

□ 사전 준비 없는 입국

○ 사전 준비 없는 입국으로 내성적인 성격으로 변하는 등 변화가 있음.

○ 공교육 진학을 위한 서류 미비로 학교에 갈 수 없음.

□ 체류자격의 불안정

○ 단기종합비자(C-3)의 경우 체류허가기간은 90일에 불과함. 체류허가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검정고시 등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됨.

○ 학교에 다니는 학생인 경우 체류기간이 도과하더라도 그 학습과정이 끝나기 전까지 기간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있음에도 바로 작동하지 않음.

□ 학교밖 중도입국 청소년의 일과 관리 어려움

□ 가족해체경험과 지지기반의 부실

○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대부분 입국 전 부모가 한국에 와 일을 하는 동안 조부모 또는 친척집에서 살다가 입국하였음. 오랜 기간 동안 부모-자녀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한국에서도 맞벌이로 바쁜 부모에게서 방치되는 경우가 있음.

○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중요한 일을 고민하고 결정할 때 가족이나 또래친구로부터 지지받지 못함.

□ 경제적 어려움

○ 심층면접조사 대상의 경우 따로 용돈을 받지 않거나 교육비 부담으로 일찌감치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음.

5-5. 진로설계의 어려움

□ 교육전문가 부재

○ 특성화고/다솜학교 또는 서울관광고/외국어 고등학교 등 진학 관련 필수적 정보에 대한 요청이 큼.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학문제를 잘 알고 있는 교육전문가 양성이 필요함.

□ 한국어 심화 학습 부재

○ 생활용어 수준을 넘어 학습용 또는 취업용으로 심화된 한국어 수업이 필요한 실정임. 심화학습에서도 반드시 대입을 위한 어휘를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교과과정에 필요한 기초적인 어휘를 가르치는데 목표를 둠. 공교육에 진입하거나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증 받고자 하는 경우,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되도록 한국어 심화학습을 통해 어휘를 풍부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발음 교정 또한 중요함. 학교 안에서의 사회통합에 큰 역할을 차지할 수 있음.

□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의 어려움

○ 직업교육과 취업연계의 측면에서 기존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들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는 않음. 일부 바리스타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직업교육의 내용이 한정적이고, 노동시장에서 포화상태인 직업으로 분류됨.

○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취업연계에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함. 노동부를 통해 정식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와 취업연계에서의 형평이 문제된다는 것이 한 예임. 그러나 주로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한국에 입국해 성장한 중도입국 청소년과 일자리를 찾아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임.

○ 실용적이고, 당사자인 청소년의 욕구가 반영된 직업교육, 특히 이중언어 등 중도입국 청소년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직업교육이 필요함.

6.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개선 방안

6-1. 서울시에 대한 정책 제안

□ 서울시 지역적 특성 반영

○ 지역 내 중도입국 청소년 인구 비례 거점 마련

① 10~24세 중도입국 청소년 밀집지역 내 소규모 거점 마련

- 지리적 거리가 멀어 특정 자치구에 몰려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까지 오지 못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해 거점이 필요함.
- 거점은 지역 내 중도입국 청소년 인구에 비례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선행하여 중도입국 청소년 인구의 파악이 필요함. 현재로선 중도입국 청소년 인구의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등록외국인 체류 현황 및 9~24세 체류자격별 외국인 현황에 의한 통계적 추정과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 프로그램 참여자 규모를 통한 경험적 추정에 기대어 설치하여야 할 것임.

- 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를 제외하고 자치구별 외국인주민 인구, 특히 중국 국적 외국인주민이 밀집한 관악구/동작구와 10~24세 등록외국인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동대문구/성북구/서대문구를 각각 하나의 구역으로 보아 공부방 등의 형태로 거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② 독일 JMD(Jugendmigrationsdiesnte in Deutschland)의 사례 참조

- JMD는 독일 내 450개 이상 기관의 연합이며, 12~27세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관련 프로그램의 제공, 전문적 상담을 통한 학습, 직업, 사회적 통합을 지원함.
- 베를린 지역에만도 16개소의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이는 단일한 기관의 사무소가 아니라 기독교공동체(Evangelische Trägergruppe), 자유공동체(Freie Trägergruppe), 가톨릭공동체(Katholische Trägergruppe), 노동자복지협회(Arbeiterwholfahrt) 소속 사무소의 연합임.

○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의 허브 역할 강화

- 지원기관의 연계 기능 강화 필요. 서울온드림교육센터와 같은 기존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에 담당자를 지정하여 교육청, 학교, 청소년수련관 등 복지시설, 상담시설 등과의 연계 체계를 구성하고, 정기적 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됨.

□ 동기부여 프로그램의 개발과 핵심역량 강화

○ “또래친구만들기” 사업의 개선방안

- 2017년 최초 시행된 서울시 “또래친구만들기” 개선점을 파악함.
- 첫째, 체험학습 등의 제도를 이용하여 한국인 재학생 청소년과 학교밖 중도입국 청소년의 만남 시간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질적 특성을 지닌 다양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임.
- 둘째, 시행처에 따라 발산, 진로 탐색, 심리치료 등 중점을 둔 부분에 따라 다채로운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을 것임.
- 셋째, 만남 횟수는 “또래친구만들기” 사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한

이 필요함. 2017년 운영하였던 바와 같이 최소 2주 1번 정도의 만남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그보다 만남의 횟수가 적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캠프와 같이 장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홍보 방식으로는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 편의점, PC 방 등에 팜플렛 배부, 부착, 중도입국 청소년이 전년도 제작하였던 미디어제작물의 지역방송 송출 등 서울시 차원의 홍보 필요.

○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동일 국적 멘토링 마련. 현재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는 멘토와의 만남 시행. 한국어가 미숙하거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느끼는 저연령 중도입국 청소년 대상 심리상태 개선 방안의 하나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대학생-중도입국 청소년 멘토링 마련. 일부 이미 이용되고 있음. 대학 내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추진가능할 것임. 진로상담, 정서적 지지 효과, 공교육 진입 유도, 한국 사회 및 문화체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정보 제공 경로 확보 및 상시 접근 체계 마련

○ 공식적 정보 제공 경로 조성

-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물리적 장소에서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정보를 항시 제공할 수 있도록 경로를 확보하고, 다국어 및 쉬운 한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정보접근성 확보 방안의 검토 필요성이 있음.
- 해외사례 중 캐나다의 SettlementAtWork Wiki 홈페이지(wiki.settlmentatwork.org)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이 홈페이지는 이주민청의 온타리오 의회(OCAI; the Ontario Council of Agencies Serving Immigrants)의 프로젝트로 마련됨.

○ 다국어 및 쉬운 한국어 정보 제공

- 중도입국 청소년이 장기간 또는 영속적 거주의사를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려는 경우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진학에 필요한 서류 등의 사항을 최소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몽골어의 주요 외국어 및 쉬운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할 것임. 또한 책자로도 편집되어 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외국인에 대하여도 제공되어야 할 것임.

○ 학부모 대상 한국 학제 설명회 및 자녀 진로 상담

- 예를 들어, 연 1회 정도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부모 대상 자녀의 진로와 관련한 상담, 진학 관련 준비, 진로계획 수입 지원.

○ 이동식 상담버스의 활용과 교육전문가 양성

- 중도입국 청소년이 자주 모이는 곳에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 등의 사례와 같이 이동식 상담버스를 설치하고, 정보지 배포, 아웃리치를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 상담 및 부모교육

○ 이중언어 가능 상담원 양성 및 활용

- 중도입국 청소년의 상담치료를 위해 이중언어가 가능한 상담가의 양성 및 파견이 필요함. 다만, 이 경우 가족복지·교육심리·상담심리 등을 전공하여 청소년지도사 또는 전문상담교사가 되는 과정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어 개인이 감당하기 부담스러움.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재원 투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2016년 서울시 '외국인주민 안정적 정착 및 자립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중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의 협력으로 사이버대·방통대 재학 학생 중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던 건을 상기해볼 수 있음.

○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의 부모 대상 아동학대 방지 교육

-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 종사자들에게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어 학대가해자인 부모로부터 아동을 분리시키지 못함.
- 서울온드림교육센터와 같은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을 이용해 부모 대상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하는 방안을 제안함. 특히 재혼가정의 경우 혼인 과정에서 필요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그러한 방법 외에도 정례적 행사로 서울온드림교육센터가 허브로서 장소를 제공하고, 건물이 위치한 서남권 주변에 널리 홍보하여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시행하는 방안

이 가능할 것임. 그 외 주요 외국어로 번역된 학대 예방 관련 안내서 배부를 통해 일상적인 경각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중도입국 청소년 심리상담 시 통역서비스의 제공

- 이중언어가 가능한 심리상담사를 양성하여 현실에서 투입되기 전 과도기적 조치로서 통역서비스 제공. 원칙적으로 본래 이루어지고 있어야 할 사항임. 사실상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 부모 등이 통역의 역할을 위해 심리상담에 참여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부득이 통역서비스 제공자 제한을 완화하여 심리상담사 과정을 밟고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 출신 학생 또는 유학생,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 종사자로 할 필요성이 제기됨.

□ 교육전문가 파견과 한국어 심화과정 마련

○ 교육전문가 파견

- 통상적인 입시제도뿐 아니라 다솜고등학교, 서울국제고등학교 등 이주다문화 특성이 강한 학교, 서울산업정보학교·종로산업정보학교·한양정보학교 등 자격증 취득에 유리한 학교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진로상담 및 진로계획 훈련을 거친 사람으로서 교사 및 진로진학상담교사 출신의 경력단절여성,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 등의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교육전문가 양성 사업은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하여 서울온드림교육센터가 세운 계획 하에 진행하되, 인원은 서울시 산하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의 수에 비례하여 양성되어야 할 것임.

○ 한국어 심화과정 마련

- 학교를 파한 뒤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또는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에서 오후 도는 야간에 가능한 한국어 심화학습 제공 필요. 학습과정의 예로 한국어 교과과정(KSL)을 들 수 있음.
- 취업에 특화된 한국어 심화학습에 관하여는 캐나다 온타리오 지역의 ELT, OSLT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지역교육전문가를 통한 어휘교재 개발 작업도 필요함.

□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일부 강좌의 모집자격 개방

- 현재 응시자격은 ‘만 15세 이상인 자로 서울특별시 주민등록된 자,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된 자(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배우자가 내국인인 자 및 그 자녀)’로 하고 있음. 따라서 중도입국 청소년 중 영주권 또는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일부만이 응시자격에 해당함.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취업연계도 외국인 밀집지역이 형성된 안산의 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를 관찰하고, 서울시의 실정에 맞게 수정 제안이 필요함.

6-2.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 제안

□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통계 마련

○ 현재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통계가 전무함. 서울시 차원의 통계 마련도 중요하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발견하고, 그에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통계 마련의 필요성이 큼.

- 중도입국 청소년의 체류자격이 매우 다양하고, 부모의 체류자격에 동반하여 쉽게 바뀌는 성질로 인해 중도입국 청소년 인구를 직접적으로 조사할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서울시민카드앱 또는 서울시 차원에서 외국인청소년증 발급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체류허가기간의 유예

- 의무교육 과정에서 학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D-4-3 비자를 적극 활용하여 강제퇴거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후기 중도입국 청소년은 공교육 진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18세 이상이면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연령이나, 실제로는 고등학교에 늦게 입학하여 재학 중인 경우가 있음. 이 경우도 D-4-3에 준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임.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함.
- 서울시 공인 등의 절차를 거쳐 서울온드림교육센터 또는 레인보우스쿨 등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명백한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하여 학기가 진행하는 동안 체류허가기간의 유예를 추진해볼 수 있을 것임.

I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연구 추진 체계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중도입국 청소년” 은 이주배경 청소년 중 주로 외국에서 성장한 청소년을 의미한다.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은 수년 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이들은 주로 친부모와 함께 살 목적으로 입국하였으나, 한국 사회에서의 생활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준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언어장벽이나 체류불안정,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서덕희 외, 2015).[1] 공교육에 진입하는 비율도 매우 낮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재학률은 43.4%로 국내에서 성장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재학률 91.3%와 비교하여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정해숙 외, 2016).[2] 공교육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학령기에 학업중단을 경험하고 은둔형 외톨이로 전락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자신의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게 된다(배상률, 2016). 주로 한국에서 성장한 15~24세 다문화가족 자녀 중 남성 34.0%, 여성 8.5%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데 반해, 같은 연령대이면서 학교에 다니지 않고 취업상태에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 중 남성 41.6%, 여성 23.6%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한다는 보고는 시사하

1) 해당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은 무지개청소년센터의 위탁을 받아 레인보우스쿨 및 ‘무지개Job아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190명)과 서울다솜학교 재학생(81명)으로, 총 271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그 중 불성실응답 69부를 제외하고 202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에 입국한 후 가장 힘들어한 점을 분석한 결과, 언어(한국어) 문제(27.2%), 경제적 어려움(11.9%), 체류자격 문제(10.4%) 등이 1순위로 지목되었고, 이어서 2순위와 3순위는 언어(한국어) 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 체류자격, 일자리 구하기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는 바가 크다(이규용 외, 2014).[3] 나아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4] 특히 15~17세 중도입국 청소년의 17.3%, 18세 이상 중도입국 청소년의 35.4%가 주로 하는 활동에 대해 '하는 일 없음'으로 응답하여 18세 이상인 후기 중도입국 청소년의 니트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5]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심층분석 리포트』(김경혜 외, 2016)에 의하면, 서울시 15~29세 청년 니트족 내에서도 양극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가정경제가 양호

(단위 : 명, %)

한국 입국 후 가장 힘든 사항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경제적 어려움	24	11.9	8	4.0	12	5.9
건강	13	6.4	6	3.0	2	1.0
부모님과의 관계 악화	16	7.9	8	4.0	6	3.0
이성과의 교제	8	4.0	5	2.5	7	3.5
일자리 구하기	12	5.9	20	9.9	19	9.4
외국인에 대한 차별	6	3.0	14	6.9	6	3.0
체류자격 문제	21	10.4	22	1.9	13	6.4
미래에 대한 불안	11	5.4	24	11.9	26	12.9
우울, 불안, 좌절 등 정서적 문제	6	3.0	15	7.4	11	5.4
친구가 없어서 외로움	8	4.0	13	6.4	13	6.4
언어(한국어) 문제	55	27.2	31	15.3	34	16.8
기타	4	2.0	1	0.5	3	1.5
무응답	18	8.9	35	17.3	50	24.8
합계	202	100.0	202	100.0	202	100.0

※ 출처 : 서덕희 외,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직업군 개발 및 취업지원 방안 연구』, 2015, 47면 <표 20> 한국 입국 후 가장 힘든 사항 참조

2) 이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인 가족에서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동거 자녀 6,097명이며, 모든 문항에 대해 응답자 가중치(82,476명)를 적용하였다.

(단위 : %)

성장배경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재학 여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음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음	합계
국내에서만 성장	91.3	8.7	100.0
외국 거주 경험	94.2	5.8	100.0
외국에서 주로 성장	43.4	56.6	100.0

※ 출처 : 정해숙 외,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2016. 1. 420면 <표 Ⅴ-24> 다문화가족 자녀가 현재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여부 참조

3) 2009년과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이규용 외의 연구에 의하면, 15세~24세 취업 및 비재학 상태인 다문화 자녀 중 주로 한국에서 성장한 집단과 주로 외국에서 성장한 자녀의 종사 직업 분류 비율은 다음의 표와 같이 도출된다.

하고 학력이 높은 집단은 열악한 직종에 취업하기보다 학업이나 취업준비를 통해 더 나은 일거리를 찾는 사례가 많은 반면, 저소득·저학력 청년 니트족은 열악한 고

(단위 : %)

15~24세 취업(비재학) 다문화 청소년의 종사 직업	한국성장 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문직	13.1	13.0	1.6	5.0
사무직	4.3	37.2	4.4	17.6
서비스직	6.7	13.4	11.9	3.7
판매직	7.9	22.6	3.1	26.7
농어업 숙련	3.2	-	0.6	0.0
기능원	4.7	3.3	9.1	0.0
장치, 기계조작, 조립	26.1	2.0	27.8	23.8
단순노무직	34.0	8.5	41.6	23.6
전체	100.0	100.0	100.0	100.0
N(명)	1,036	1,169	2,075	2,287

※ 출처 : 이규용 외,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 정책과제』, 2014, 238면, <표 6-9> 15~24세 취업(비재학) 중인 다문화 청소년의 종사 직업

4) 15~24세 다문화 청소년 NEET 정도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15~24세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한국에서 성장한 청소년의 11.2%만이 NEET 상태인 반면, 중도입국 청소년은 37.7%가 니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명, %)

구분	한국성장 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
NEET	11.2	37.7
취업만 한 경우	11.5	30.6
재학만 한 경우	67.6	25.6
재학·취업 동시	9.6	6.0
전체	100.0	100.0
wt N	19,125	14,248
unwt N	1,062	488

※ 출처 : 이규용 외,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 정책과제』, 2014, 236면, <표 6-17> 15~24세 다문화 청소년의 NEET 정도

5)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15세 이상 외국에서 성장한 자녀가 주로 하는 활동별 현황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단위 : 명, %)

연령	학생	일(취업자)	직업훈련	하는 일 없음	전체
만 15~17세	74.4	4.7	3.6	17.3	100(1,994)
만 18세 이상	24.7	34.8	5.0	35.4	100(12,253)
계	31.7	30.6	4.8	32.9	100(14,247)

※ 출처 : 배상률, 『증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2016, 23면, <표 Ⅱ-4> 15세 이상 외국 성장 자녀가 주로 하는 활동별 현황, 김이선 외(2015)의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표 재구성』

용조건에도 불구하고 임시·일용직으로 일하는 비율이 높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저소득·저학력 환경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아 학업이나 취업을 준비하기보다 열악한 조건의 임시직·일용직에 의지해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

정책적 지원이 없는 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들도 이와 같은 어려움에서 예외일 수 없다. 서울시가 이미 법적으로 그 지역사회 구성원이 되었거나 앞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들에 대하여 현재 그들이 처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여기서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관련하여 기존 서울시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자 한다. 또한,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당사자와 현장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의 심층면접을 실시함으로써 정책적 개선을 위한 수요를 수렴하고, 방향성과 세부내용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중도입국 청소년의 범위

(1) 법령 해석에 의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범위

중도입국 청소년의 범위에 관하여는 종래에 다양한 견해가 존재해왔다. 구체적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범위를 좁게 보는 견해는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한 결혼이민자의 자녀로 본국에 살다 한국에 들어와 거주하는 청소년,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입국한 청소년 등이 해당된다고 보았다(양계민·조혜영, 2011). 이에 대하여 외국인 부모를 따라 입국한 청소년, 근로 및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무연고 청소년,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중국인 등) 사이의 자녀로 제3국에서 출생한 청소년을 포함하여 중도입국 청소년의 개념을 넓게 보는 시각이 있다(무지개청소년센터, 2011). 이처럼 중도입국 청소년의 개념을 상이하게 보는 원인은 법령에 언급되거나 학술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개별 연구의 목적과 사용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령에 언급된 관련 개념은 기존 정책과 차후 개선책의 마련에 참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더라도 우리 법령의 해석에 의할 때 그 범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청소년복지지원법」[6] 제18조[7]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지원의 대상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다.

또,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8] 제3조는 "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외국인주민"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이고, "다문화가족"이란 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그리고 귀화자와 그 자녀이다(동법 제2조). 동법은 지원범위에 대해서도 외국인 자녀의 보육·교육사업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 교육 등 언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동조 제7조). 이러한 규정을 고려하여 중도입국 청소년의 범위를 정하면, "서울시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자녀 또는 인지,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로서 외국에서 성장하는 중에 국내로 입국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는 당초 이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자 하였던 중도입국 청소년의 범위와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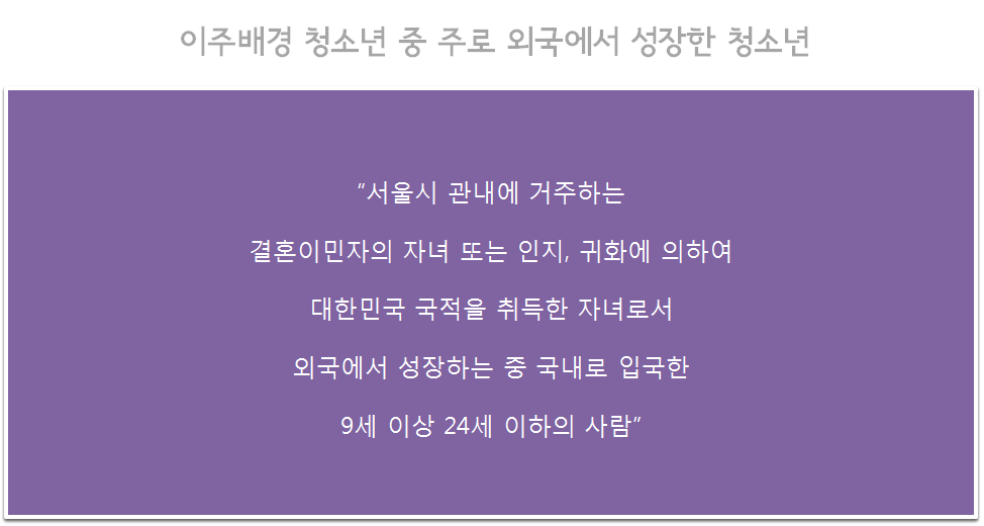
---

6) 2017.6.21.시행, 법률 제14447호, 2016.12.20., 일부개정.

7)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8) 2017.1.5.시행, 서울특별시조례 제6386호, 2017.1.5., 타법개정.

▌그림 Ⅰ-1▌ 관련 법령 해석에 의한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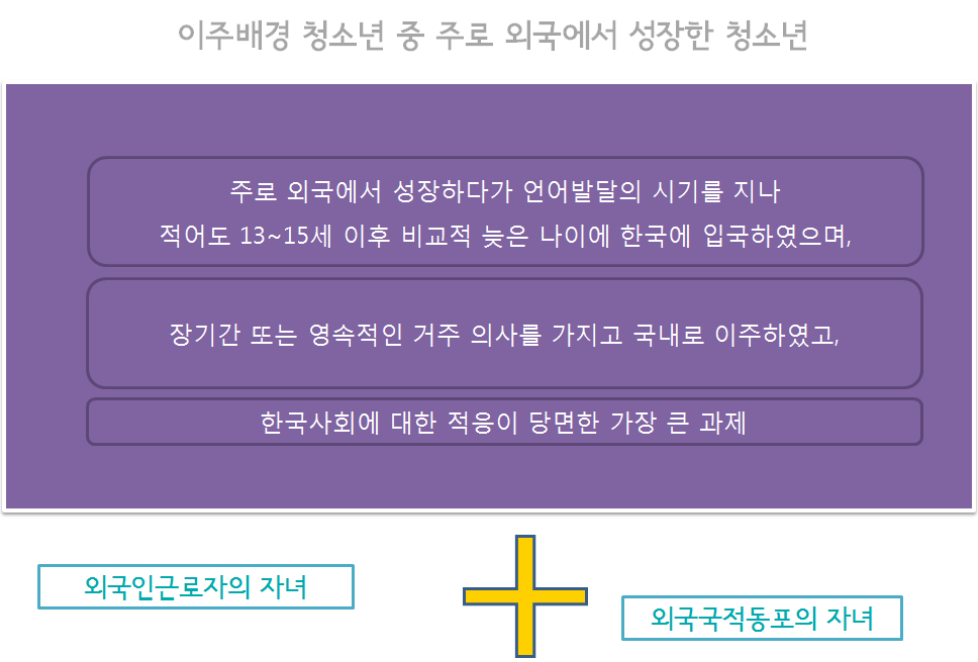
(2) "중도입국 청소년"의 범위 확장 필요성

상술한 바와 같이 법령 해석에 의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조사 과정 중 중도입국 청소년의 범위를 좀 더 넓게 새겨야 할 필요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연구의 중점 대상이 된 중도입국 청소년은 '주로 외국에서 성장하다가 언어발달의 시기를 지나 적어도 13~15세 이후의 비교적 늦은 나이에 한국에 입국' 하였으며, '장기간 또는 영속적인 거주의사' 를 가지고 국내로 이주하였고,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 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이다. 여기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자녀나 외국국적동포의 자녀 등이 포함된다.[9)]

---

9) 외국인 부모와 동반 입국한 청소년, 근로 및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무연고 청소년,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 사이의 자녀로 제3국에서 출생하여 부 또는 모를 따라 한국에 온 청소년을 포함하여 "중도입국 청소년" 의 개념을 넓게 보는 시각에 대하여 "중도입국 청소년" 의 개념을 좁게 보는 시각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한다. 외국인 부모와 함께 동반 입국한 청소년은 외국인노동자의 자녀로서 입국 자체가 불법이므로, 기본적인 교육권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있으나 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대상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무연고 청소년은 유학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의 자녀로서 제3국에서 출생하여 입국한 청소년의 경우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지원정책과 연장선상에서 다루는 것이 합당하여 "중도입국

▌그림 Ⅰ-2▐ 연구 중점 대상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의 특징



실제 관련 지원기관 이용자인 청소년 중에는 결혼이민자의 자녀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로서 귀화시험에 통과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청소년이 있고, 90일을 넘기지 못하는 체류자격으로 인해 여러 번 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함에도 이를 무릅쓰고 한국에 돌아온 청소년도 있었다. 이들은 진학하거나 취업하여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살기를 원하였다.

더욱이 미성년 자녀인 중도입국 청소년의 체류자격은 대부분 부모의 체류자격에 의해 좌우된다. 부모가 영주권 등 장기의 체류자격 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이들도 동반하여 영주권 등 장기 체류자격 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동일한 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체류자격에 의해 지

청소년" 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양계민, 2016).

원대상인지 아닌지, 부모와 본인의 체류자격 변화에 따라서 동일한 청소년에 대하여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인지 아닌지 구별하기도 적절치 않은 면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범위를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의 자녀에 한정하지 않고, 외국인근로자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자녀 등 장기간 또는 영속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청소년으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 다룰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선행연구 및 관계법령과 정책을 검토한다. 선행연구의 검토 결과로서 최근까지의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현황과 정책적 문제점을 갈무리하고, 관계법령과 정책을 검토하여 현행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체계의 한계점을 분석한다.

둘째,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의 내용과 그 주요 원인의 분석이다. 이 연구의 사전 전문가회의 및 착수자문회의를 통해 도출된 주요 원인은 (ⅰ) 관련 정책의 서울시 지역적 특성 반영 부족, (ⅱ) 후기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동기 부여 필요성, (ⅲ) 정보 제공 경로 미비, (ⅳ)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정, (ⅴ) 진로설계의 어려움이다. 여기서는 우선 이를 뼈대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림 Ⅰ-3▐ 사전 전문가회의 및 착수전문가회의에서 도출된 주요 원인

각각의 주요 원인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관련 정책의 서울시 특성 반영 부족의 문제는 주로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인구 규모를 추정할 자료가 거의 없어 지원이 필요한 규모를 예상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내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의 충분도와 지리적 여건을 판단하기 위해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인구 규모 추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ⅱ) 17~18세의 후기 중도입국 청소년은 특히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들 다수는 진학이나 취업을 하지 않고, 부모가 주는 용돈으로 생활하며, 그들만의 집단을 형성하여 일정한 생활영역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드물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도록 어떻게 동기 부여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2017년 서울시가 최초로 시행한 "또래친구만들기" 사업은 그러한 동기 부여 프로그램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의 결과 분석을 통해 개선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ⅲ) 또한, 중도입국 청소년 및 학부모가 교육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제공받는지 파악하고, 공식적인 정보 제공 경로의 마련 및 외국어 서비스 필요성을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ⅳ) 중도입국 청소년은 사전 준비 없는 입국, 체류기간의 불안정, 고민을 털어놓을 지지기반의 부족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 여러 원인에 의해 심리적 불안정을 경험한다. 이러한 어려움의 직접적인 해결을 지원하고, 간접적으로 심리적 안정을 돌볼 수 있도록 상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조사하고, 대응 방안을 제기하고자 한다.

(ⅴ) 마지막으로, 지지기반이 부족한 중도입국 청소년이 학교밖 청소년으로 지내는 한 교육전문가 없이 한국의 교육체계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진로를 설계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공교육에 진입한 경우에도 생활용어 수준의 한국어 실력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이탈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나아가 직업교육과 취업연계가 어려운 현실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할 것인지 중도입국 청소년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진로설계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셋째로 앞서 분석한 내용을 기초로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정책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중도입국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주요 원인으로 앞

서 제시한 문제는 서로 분절적이지 않고, 중도입국 청소년을 둘러싼 채 동시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중도입국 청소년의 핵심역량 강화 방안으로서 학교 교육을 위한 심화학습을 마련한다면, 이는 진로설계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직업교육과 취업 연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각각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대체로 중도입국 청소년이 입국 후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의 순서를 고려하여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표 Ⅰ-1▐ 연구 내용 및 세부 내용

구분	연구 내용	세부 내용
정책 진단을 위한 문헌연구	선행연구 검토	•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현황 및 정책적 체계 문제점 파악
	관련 정책 검토	• 중앙정부 및 서울시 관계법령 및 관련정책 검토 • 국외 법령 및 정책 비교 분석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의 주요 원인 분석	관련 정책의 서울시 지역적 특성 반영 부족	•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인구 규모 추정 • 외국인 밀집지역 내/외 중도입국 청소년 및 중국 국적 중도입국 청소년 분포 파악 •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기관 배치지역 및 지원내용 검토
	동기 부여의 필요성	• 후기 중도입국 청소년과 정책적 사각지대 현황 • “또래친구만들기” 사업 결과 분석 및 개선 방향 제시
	정보 제공 경로 미비	• 중도입국 청소년 및 학부모의 정보 제공 경로 파악 • 공식적 정보 제공 경로 마련 및 외국어 서비스 필요성 검토
	심리적 불안정	• 사전 준비 없는 입국, 체류기간의 불안정, 고민을 털어놓을 지지기반의 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에 의한 심리적 불안정 경험 • 각각의 원인에 대한 직접적 지원 및 심리 상담 등의 지원 필요
	진로 설계의 어려움	• 교육전문가 부재 • 한국어 심화 학습 필요성 검토 •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의 어려움
정책 방안 제시	지역 내 중도입국 청소년 인구 비례 거점 마련	• 10~24세 중도입국 청소년 밀집지역 내 소규모 거점 마련 • 독일 JMD 사례 참조
	정보 제공 경로 확보 및 상시 접근 체계 마련	• 공식적 정보 제공 경로 조성 • 이동식 상담버스의 활용과 교육전문가 양성
	허브로서의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 역할 강화	• 지원기관의 연계 기능 강화 • 동기부여 프로그램의 개발과 핵심역량 강화
	상담 및 부모교육	• 이중언어 가능 상담원 양성 •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의 부모 대상 아동학대 방지 교육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통계 마련	• 국가차원에서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통계 마련 • 서울시민카드 앱 이용 관리방안
	체류허가기간의 유예	• 서울시 및 출입국관리소의 D-4-3 비자와 유사한 체류허가기간 유예의 협의

3)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크게 문헌연구와 통계분석, 심층면접조사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문헌연구

우선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최근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연구는 전국 단위에서 설문조사, 「SNS 토론단」 운영, 심층면접을 통해 중도입국 청소년의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한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배상률, 2016), 표본가구(27,120가구) 중 조사가 완료된 17,849가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정해숙 외, 2016)이 대표적이다. 이 외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 정책과제』(이규용 외, 2014)와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직업군 개발 및 취업지원 방안 연구』(서덕희 외, 2015)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연구는 『서울시 중도입국청소년 현황과 지원방안』(장명선 외, 2011)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관계 법령 및 관련 정책을 검토한다. 관계 법령으로는 앞서 언급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주요하고, 서울시 조례로는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있다.

보다 중요한 내용으로는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관련 정책 현황이 있다. 중앙정부는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 그 중 중점적으로 초기적응 프로그램인 'Rainbow School' 운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서울시는 ≪2017년도 서울시 다문화가족 지원 시행계획≫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에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중 '서울온드림다문화가족교육센터(이하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운영이 주요하다. 또한 2017년 새로 시작한 '중도입국 청소년 또래친구만들기 사업'의 경과도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관계법령 및 관련정책의 검토를 통해 현재까지 중도입국 청소

년 정책을 바라보는 서울시의 관점을 확인하고, 정책적 한계점을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통계 분석

현재로선 전국 및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현황을 조사·분석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인구 규모 추정을 위하여 통계청의 2016년 '지역 및 연령별 등록외국인 현황' 중 10~24세 인구 현황[10], 같은 통계의 자치구별 국적별 등록외국인 현황 등을 참고로 하고자 한다.

특히 국적별 외국인주민 인구 현황에서 압도적 비율을 보이는 중국 국적 외국인주민(중국인 및 한국계 중국인)의 밀집지역인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의 중도입국 청소년 규모를 추정해본다. 또한, 추정인구와 지역분포를 통해 서울온드림교육센터를 비롯한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의 위치 및 규모 적정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현황 검토를 위하여 선행연구의 통계분석을 참고하고자 한다. 이 부분에서는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정해숙 외, 2016), 『2016년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배상률, 2016)의 통계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특히 중도입국 청소년의 ① 재학 여부, ② 부모의 관심 정도, ③ 한국어와 출신국의 언어 사용 능력, ④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주된 활동, ⑤ 학교 이탈의 경우 그 주된 원인, ⑥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시설 인지율 및 이용률, ⑦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 ⑧ 직업훈련 여부, ⑨ 취업 여부, 직종, 종사상 지위 등을 참고로 이 연구의 면접조사를 통해 도출한 정보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정책학교, 대안학교, 레인보우스쿨 및 서울온드림교육센터 교육 현황을 확인한다.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추정 인구와 비교하여 지원 규모, 추가적 교육 시설 및 인적 자원 확충 여부와 커리큘럼의 적정성 검토의 기초로 하고자 한다.

---

10) 중도입국 청소년의 연령 범위는 법령 해석을 고려하여 대개 9~24세로 보고 있으나,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0세부터 5세 단위로 구성되어 있어, 이 보고서의 자료 분석에서도 그에 따라 10~24세로 한정하여 보기로 한다.

(3) 심층면접조사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학부모, 지원기관 종사자 등 현장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은 참여 가능한 한 서울시 내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 외국인학교, 다문화 정책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되도록 다양한 체류자격을 지니면서 적응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연령대인 17세 이상을 다수 포함하였다. 다만, 국적에 대하여는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국적자(한국계 중국인 및 중국인)를 10개 사례로 하였다. 또한, 다른 국적 출신의 중도입국 청소년의 의견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본국이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파키스탄, 몽골, 러시아인 경우를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도모하였다.

한편, 심층면접조사의 내용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어 구사 능력에 따라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섭외과정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전체 체류기간을 5년 안팎으로 제한하고, 비교적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청소년을 우선 고려대상으로 하여, 되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 내용과 순서를 조정하였다. 섭외대상인 중도입국 청소년 중 한국어 구사 능력이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은 저연령이고, 체류기간이 짧으며, 중국 국적인 경우였는데, 이러한 경우는 심층면접조사 경험이 풍부하고 중국어에 능통한 연구진이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자유로운 의사 및 감정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더불어 학부모에 대한 심층면접도 진행하여 중도입국 청소년의 관점과도 비교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였으며, 자녀의 교육 및 진로에 관한 학부모 나름대로의 고민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서울시 내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 외국인학교, 다문화 정책학교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해 한국어 내지 교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현장종사자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와 서울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계

획하였다. 다만 체계상의 상이함이 있었는데, 중도입국 청소년 문제에 관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밖청소년지원과가, 서울시에서는 여성가족정책실의 다문화가족팀이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의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정책은 이제까지 서울온드림교육센터의 운영과 2017년 신규 사업인 '또래친구만들기'가 주요하고, 조사과정 중 정책 담당 공무원이 바뀌어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 공무원에 대하여만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고, 서울시에 관하여는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종사자는 따로 심층면접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또래친구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서면조사 등을 진행하였다.

▎표 Ⅰ-2▎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 심층면접조사 대상별 특성

조사 집단	사례 순번	이름	국적	연령	재학여부	입국시기	면접조사일	체류기간 (면접조사일 기준)	체류자격
서울시 중도 입국 청소년	1	청소년01	한국계 중국	19	학교밖	2016.8.	2017.3.21.	7개월	• 최초 c-3 • 현재 F-1
	2	청소년02	우즈베키스탄	19	일반고	2013.11.	2017.3.25.	3년 4개월	• F-3
	3	청소년03	한국(귀화)	21	일반고 졸업	2014.7.	2016.3.25.	1년 8개월	• F-1 • 입양 뒤 베트남 국적에서 귀화
	4	청소년04	베트남	20	다솜고	2015.2.	2017.3.25.	2년 1개월	• F-2 • 귀화시험 결과 기다리는 중
	5	청소년05	필리핀	16	학교밖	2015.4.	2017.3.27.	1년 11개월	• F-1
	6	청소년06	한국계 중국	13	일반중	2016.8.	2017.3.27.	7개월	• 영주권
	7	청소년07	한국계 중국	13	일반중	2016.8.	2017.3.27.	7개월	• 1년 이상 장기비자 추정
	8	청소년08	한국(귀화)	20	학교밖	2013.4.	2017.3.28.	2년 11개월	• 최초 F-2 • 파키스탄 국적에서 귀화함.
	9	청소년09	한국계 중국	18	다솜고	2015	2017.3.29.	약 2년 3개월	• F-1
	10	청소년10	한국계 중국	18	다솜고	2012	2017.3.29.	약 5년 3개월	• 영주권
	11	청소년11	한국계 중국	18	다솜고	2012	2017.3.29.	약 5년 3개월	• 1년 이상 장기비자 추정
	12	청소년12	몽골	18	몽골학교	2014.6.	2017.3.30.	2년 9개월	• F-2
	13	청소년13	한국계 중국	17	서울관광고	2015	2017.4.1.	약 2년 4개월	• F-1

조사 집단	사례 순번	이름	국적	연령	재학여부	입국시기	면접조사일	체류기간 (면접조사일 기준)	체류자격
	14	청소년14	중국	16	다솜고	2016.7.경.	2017.4.1.	약 9개월	• 1년 이상 장기비자 추정 • 귀화시험 준비
	15	청소년15	한국계 중국	16	특성화고	2016.7.	2017.4.1.	9개월	• F-1 • 귀화시험 준비
	16	청소년16	중국	21	학교밖	2013.3.	2017.4.1.	4년 1개월	• 최초 F-2 • 20세 지나 F-1 • 귀화시험 준비
	17	청소년17[11]	러시아	18	일반고	-	2017.4.11.	약 3년	• F-1
학부모	18	학부모01	한국계 중국	-	-	-	2017.3.31.	10여 년	-
	19	학부모02	중국	-	-	-	2017.3.3.1	10여 년	-
현장 전문가 및 교사	20	전문가01	한국	-	-	-	2017.3.21.	-	-
	21	전문가02	한국계 중국	-	-	-	2017.3.22.	20여 년	-
	22	전문가03	한국계 중국	-	-	-	2017.3.23.	20여 년	-
	23	전문가04	중국	-	-	-	2017.3.30.	6년	-
	24	전문가05	몽골	-	-	-	2017.3.29.	10년	-
	25	전문가06	한국	-	-	-	2017.4.14.	-	-
	26	전문가07	한국	-	-	-	2017.9.15.	-	-
	27	전문가08	한국	-	-	-	2017.9.28.	-	-
	28	전문가09	한국계 중국	-	-	-	2017.11.17.	10여 년	
공무원	29	공무원01	한국	-	-	-	2017.10.20.	-	-

11) 중도입국 청소년 면접조사 대상의 대부분은 영속적 또는 장기 거주 의사를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자격을 새로 부여받을 목적 외로 출국한 사례가 없음. 다만, 중도입국 청소년17의 경우는 5세 경 한국에 입국해 유치원을 다녔던 경험이 있음. 이후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초등학교 4학년에 다시 입국하였으나 영속적인 거주의사 없이 본국대사관부설학교에 다님. 그러나 15세 무렵부터 한국 학교에 재학하며 한국어 및 교과 학습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속적 또는 장기 거주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근거로 볼 수 있어, 그 기간으로 기산하여 3년 이내에 해당하고 보아 대상에 포함하였음.

▌표 Ⅰ-3▐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심층면접조사 주요내용

조사주제	조사내용
입국 전 상황	- 입국시기, 고향, 체류자격, 학력 등 - 체류가 불안정한지의 여부 - 가족해체경험 여부 - 한국에 들어오게 된 계기 및 스스로의 선택 여부
입국 후 변화	- 가족 직업 - 용돈 - 재정적 상황 - 성격적 변화 -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
진로	- 일과 - 모국어 수준, 한국어 수준, 검정고시 및 향후 계획 - 정보전달경로 - 지원기관 또는 학교에 대한 만족도 및 이유
친구관계	- 또래친구 및 한국인 친구 유무
정체성 및 고민	- 국적에 대한 정체성 혼란 여부
정책수요	- 한국사회 및 정부에 대한 정책수요 - 서울시 및 현 지원기관에 대한 정책수요

▌표 Ⅰ-4▐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학부모 심층면접조사 주요내용

조사주제	조사내용
일반적 특성	- 이주배경(본국상황, 이주경로, 준비상황, 입국시기, 체류비자 종류, 자녀초청 계기 및 과정) - 자녀의 학업상황 및 정보 접촉 경로, 준비단계 상황 등 - 가족관계(구성원, 거주환경 등) 및 자녀 초청 전후의 변화 - 본인 및 자녀 네트워크(한국인/본국출신 네트워크, 또래 네트워크)
자녀의 진로	- 자녀의 진로에 관한 고민 - 자녀의 향후 꿈, 자신의 의견 - 자녀가 현재 지원받고 있는 현황(한국어교육, 취업교육, 직업체험 등)
정책수요	- 한국사회 및 정부에 대한 정책수요 - 서울시 및 현 지원기관에 대한 정책수요

▌표 Ⅰ-5▐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현장전문가 및 교사 심층면접조사 주요내용

조사주제	조사내용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업무	- 현재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업무 - 소속 학교/지원기관의 특성 및 역할, 청소년 및 현장전문가/교사 인원, 국적 분포
지원기관 현황 및 사업 내용	- 소속 학교/지원기관에 관한 정보 접촉 경로 - 청소년 재학여부, 학교밖 청소년인 경우 비재학 원인 - 청소년의 공교육 편입 희망도 및 불희망 원인 - 특성화 프로그램(이중언어교실, 특별활동, 또래친구만들기사업 등), 상담 등 심리프로그램 진행 여부
기관의 어려움 및 개선점	- 재정지원 주체, 서울시의 재정적/재정 외적 지원 여부
중도입국 청소년의 일반적 특징	- 체류자격, 한국 입국 사유 - 또래친구 및 한국인 친구 유무 - 가족관계 화목 여부 - 맞벌이 가정의 경우 여가시간 활용
정책수요	- 중도입국 청소년의 교육 및 적응을 위해 서울시에 요구하는 정책 내용

▌표 Ⅰ-6▐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공무원 심층면접조사 주요내용

조사주제	조사내용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업무	- 현재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업무 - 학교밖 청소년 중 중도입국 청소년 비율 - 다른 학교밖 청소년과 중도입국 청소년인 학교밖 청소년의 차이점 및 지원정책 수립 시 중점 고려 사항
중도입국 청소년인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 대안학교 등 학교밖 교육 정보의 전달 체계 및 정책수요 수렴 경로 - 학교밖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 플랫폼 구상에 대한 의견
청소년증	-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증 발급 여부 - 중도입국 청소년의 신분증명 - 교육기능을 가진 기관에 대한 등록증 발급에 대한 의견
정책수요	- 중앙정부 차원의 학교밖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 시 아쉬운 점 -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원 단체 등의 의견수렴 방법

3. 연구 추진 체계

이 연구의 주요 추진 체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Ⅰ-7▐ 주요 추진체계

단계	주요 내용		
연구 설계 및 계획	시행계획서 작성	- 연구목적, 내용, 추진방법 및 체계 등 계획 수립	연구 방향 설정 및 연구내용 도출
	전문가의견 수렴	- 조사내용 구성 및 검토를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 (착수자문회의 개최)	
연구 수행	문헌조사 및 자료 분석	- 관계법령 및 지침, 계획 검토 - 선행연구 검토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현황 파악
	통계 분석	-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인구 규모 추정 - 중국국적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인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의 중도입국 청소년 규모 추정 - 서울시 중도입국 현황 검토	
	심층면접 조사	-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17명(공교육기관 재학여부, 외국인주민 밀집지역, 연령 고려), 학부모 2명, 현장전문가 및 교사 9명, 공무원 1명(중앙정부), 총 29명 - 주요내용 :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의 이주배경, 교육 및 진로 문제, 정보제공 경로, 가족관계 갈등으로 인한 상담 및 정서적 지원 등 사례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정책의 한계점 분석 및 정책수요 조사	
정책 방안 도출	전문가 자문	- 정책 방향성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	정책방향 및 정책방안 도출
	정책방안	- 지역 내 중도입국 청소년 인구 비례 거점 마련 - 정보 제공 경로 확보 및 상시 접근 체계 마련 -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 역할 강화 - 동기부여 프로그램의 개발과 핵심역량 강화 - 상담 및 부모교육	
결과 보고	결과보고서 작성	- 최종 연구보고서 완료	연구보고서 제출

II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1. 선행연구 검토
2. 시사점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1. 선행연구 검토

최근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연구로 대표적인 것으로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배상률, 2016)과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정해숙 외, 2016)이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배상률, 2016)에 의하면, 중도입국 청소년[12]들은 다른 이주배경 청소년에 비해 성장과 자립 여건이 척박하여 사회적 관심과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하였다. 특히 상당수는 한국 사회 정착에 어려움이 있으며, 학령기에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단순노무직으로 취업하거나 니트족으로 전락하는 비율이 높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고유 잠재력과 역량을 개발하고, 유용한 인적 자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양적 조사(설문조사 – 중도입국 청소년 577명, 현장전문가 48명), 질적 조사(SNS토론단 운영, 심층면접조사), 전문가자문, 해외 사례조사, 정책 실무 협의회를 시행하였다. 그 내용을 간추리면 아래와 같다.

---

12)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한 결혼이민자의 자녀로 본국에 살다 한국에 들어와 거주하는 청소년'을 조사하였다.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재학생은 70%, 학교밖 청소년이 30%를 차지했는데, 한국어 실력 부족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공교육 진입기간을 장기화할 뿐만 아니라 학교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 중 3분의 1가량이 한국에서 최근 1년 간 아르바이트 또는 일을 해본 경험이 있었다. 구체적 진로계획과 진로확신 수준을 보여주는 진로정체감은 한국 거주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거주기간이 길수록 진로정체감이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응답자인 중도입국 청소년 중 한국 입국 전 약 70% 가량이 부모님과 떨어져 지냈으며, 입국 후에도 학교 및 직장 때문에 부모님과 별거 중인 경우도 있었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주로 한국에서의 학업이나 가족 결합을 위해 한국으로 왔으며, 절반 이상이 자발적으로 입국하였다. 이들에게 화복한 가정은 행복한 삶의 핵심 요건이며, 성공의 평가 기준과 필요조건은 노력이었다. 약 39%가 한국에서 차별을 경험하였지만, 절반 이상이 차별에 대해 그냥 참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최근 진로문제에 대해 가장 고민을 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였으며, 온라인 게임과 SNS 이용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다. 응답결과를 심층 분석한 결과, 자발적으로 한국에 입국할수록, 한국 문화 및 사회에 긍정적일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중도입국 청소년의 내적 자산(진로정체감,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이 높아졌다.

현장 전문가들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및 취업지원 체계에 대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며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관할하는 별도의 통합지원센터 신설이나 허브가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전문가들은 자녀교육/학교생활/진로진학 등에 대한 부모 대상 교육,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확한 실태조사, 정신상담 및 지원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정책으로 꼽았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기에 중도입국이란 특수성이 더해져 일반 청소년들 이상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며, 한국에서의 환경과 상황인식에 따라 진로를 절충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체류신분 불안에 따른 어려움과 비자연장 과정에서 겪은 부당한 사례들에 대해 불만이 있었는데, 특히 비자연장에 대한 충분한 사전정보의 부재, 심사기간의 단축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처럼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언어장벽과 문화차이로 인한 어려움, 양아버지의 입양

거부의사에 따른 체류신분 유지의 어려움, 비자 연장 문제,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 진로 고민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립지원 방안 마련은 정책 대상에 대한 구분과 니즈를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저연령층에게는 공교육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중심적 지원이, 고연령층에는 진로탐색, 직업기술교육, 취업처 알선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중도입국 청소년이 안전의 욕구,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존중의 욕구가 단계적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무기력한 태도와 함께 시간과 재원만 소모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러한 단계별 욕구 충족이 선행되어야 한다.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지원 영역은 각각 분절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연관성을 갖고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은 단일 성격의 집합체(monolithic group)가 아니므로 연령, 성별, 문화적 배경과 진로 및 진학 등과 관련된 의지 및 역량을 고려해 대상의 니즈를 고려한 맞춤식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체계별 자립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일정수준의 사교육비를 제공하는 '교육바우처 제도', 중도입국 청소년의 재학률, 진학률, 취업률을 반영한 '학교 대상 인센티브 지급', '중도입국 청소년 특별전형 신설', 다문화감수성 및 세계시민교육 관련 '교원양성 과정 및 연수 프로그램', 공교육 진입 제도의 간소화 및 대체 방안 마련,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시설 확충과 교재 및 커리큘럼 개선, 모국어로 번역된 학교운영 및 교육제도 매뉴얼 보급 및 학교통신문 번역 앱 개발, 중등과정 정규교육제도 최초 진입 이전에 디딤돌 학교나 예비학교를 마련해 한국어 집중 교육을 먼저 진행하는 '1+3 제도의 운영',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소셜러닝 개념을 적용한 스마트폰 앱 개발, 다문화 취업 박람회 개최 및 중도입국 청소년 채용 기업 세금감면 혜택 부여,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모델 전국적 확대,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 확대 운영, 일정 수준의 학업이 종료될 때까지 비자를 연장해주거나 귀화 시험 후 국적취득 전까지 잠정적 국적 취득자로 간주해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류신분 관련 입법 체계 마련', 다양한 제도를 유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앙 컨트롤타워 및 허브 구축', 중도입국 청소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위탁형 다문화 대안학교 확대 운영', 부모 교육 등이 제시되었다.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정해숙 외, 2016)은 「다문화가족지원법」[13] 제4조 제1항[14]에 근거하여 2015년 다문화가족[15]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결과의 분석이다. 조사 결과를 간추리면 아래와 같다.

서울과 경기지역에 전체 다문화가구의 절반 정도가 거주하고 있었고, 3인 가구,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 자녀수는 1.02명으로, 2012년 조사 때보다 평균 자녀수가 늘어났다. 다문화가구의 취학률은 초등학교가 가장 높고,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낮아지는데, 이는 전 국민 취학률과 비교해서도 그 격차가 벌어진다. 다문화가구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012년 조사에 비해 전세 비중은 낮아졌지만, 보증금 있는 월세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월 평균 가구소득은 200~30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2012년 조사에 비해 300만 원 미만은 감소하였지만, 400만 원 이상 가구 비중은 소폭 증가하였다. 다문화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의 비율은 2012년과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부부 모두 외국출신인 가구는 가구소득수준이 가장 낮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비율 역시 높았다. 이러한 현황을 통해 다문화가구 자녀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을 제고하고, 다문화가구의 낮은 소득수준을 개선하며, 장애인 가구원이 있는 다문화가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결혼이민자·귀화자 수는 304,516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2년에 비해 약 8%가 증가하였다. 30대가 가장 많고, 한국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거주자의 비중은 2012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지만, 10년 이상 거주자가 절반 이상으로 그 비중이 대폭 증가하였다. 국적으로는 중국(한국계)의 비율이 소폭 감소하였고, 베트남 출신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결혼이민자·귀화자와 배우자 모두 초혼인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향후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2012년에 비해서는 낮아졌다. 이혼·별거 후 자녀를 본인이 양육하는 비율은 2012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는 비율은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본인이 양육하지

---

13) 2017.3.21. 시행, 법률 제14702호, 2017.3.21., 일부개정.

1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 제1항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5) 17,849가구 결혼이민자·귀화자 등 17,849명, 배우자 15,540명, 만 9~24세 자녀 6,079명 대상.

않을 경우 자녀를 거의 보지 못한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되었다. 또한 자녀와의 친밀도는 높은 편이지만 자녀 친구들에 대해 아는 비율은 응답자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들은 부모역할 수행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높았으며, 5세 이하의 경우는 한국어 교육,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가 배우는 교과목이나 학교생활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 경제적 지원, 다른 학부모와의 대화나 정보 습득의 어려움 등이 학부모로서의 어려움으로 꼽혔다. 한국 문화 동화에 대해서는 지지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고, 자녀에게 자신의 모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배우자는 한국출신 남편이 가장 많으며, 중장년층이 약 70%를 차지했다. 또, 한국출신 배우자는 외국출신 배우자에 비해 학력이 높았다. 이들은 현재 배우자와 초혼인 비율이 약 70프로이다. 자녀와의 친밀감은 비교적 높으며, 자녀 친구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점도 나타났다. 외국출신 남편은 일상적인 자녀 돌봄에 더 많이 참여하지만, 부모모임 참여 정도는 낮았다. 그러나 부모역할 수행정도가 가장 낮은 집단은 한국출신 남편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배우자가 취업상태에 있지만, 관리직이나 전문직 비중은 낮고, 기능직,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비중이 높은 직업분포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출신 배우자보다 외국출신 배우자의 임금수준이 낮다. 성별분업에 대한 의식도 낮은 편으로 평가된다.

중도입국 청소년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만 9~24세의 청소년 자녀는 82,486명으로 추정되며, 2012년에 비해 24% 증가했다. 이 중 60.8%는 국내에서만 성장했고, 23.7%는 외국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고, 15.5%는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자녀이다. 국내성장 자녀는 9~11세 자녀 비중이 가장 높고, 대부분 재학 중인 반면,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자녀의 경우 약 70%가 18세 이상이며, 절반 이하만이 재학 중이다. 어머니가 외국계인 비율이 81.9%로, 아버지가 외국계인 경우가 8.7%, 부모가 모두 외국출신인 경우가 9.4%이며, 국내성장 자녀의 경우는 외국계 부모의 출신 국적이 중국, 한국계 중국, 베트남 순이지만,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자녀는 한국계 중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가정생활을 살펴보면, 부모와의 관계만족도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았고,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보다 재학하지 않는 경우 만족도가

낮았다. 중도입국 자녀의 15.5%는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으며,[16] 비재학 자녀는 주로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가장 많이 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니트족(13.2%)도 상당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학교를 그만 둔 이유는 '학교생활 및 문화가 달라서', '학교공부가 어려워서' 인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급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자녀일수록 학교공부에 대한 어려움이 컸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도 5.0%로 나타났는데,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자녀의 피해율이 국내 성장 자녀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하는 욕설과 비방이 높아져 모바일이나 가상공간으로 그 피해유형이 옮겨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일반 청소년보다 낮다. 정서적 측면에서 18세 이상, 비재학,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자녀가 우울감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부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서비스 지원 요구가 가장 많았다. 차별 경험에 있어서도 18세 이상이면서 외국에서 성장 자녀가 차별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대부분의 자녀들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18세 이상이면서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자녀는 한국 국적 소지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인 레인보우스쿨이나 다문화예비학교 및 다문화대안학교에 대한 인지율과 이용률도 낮게 나타났다. 15세 이상 자녀 중 약 30%가 취업하였는데, 재학 중 자녀의 18.2%가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 중 절반 이상이 니트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업한 자녀들은 서비스업, 단시간 일자리, 임시직 및 일용직, 저임금(50만 원 미만)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입국 청소년과 관련하여 살펴볼 참고문헌으로『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 정책과제』(이규용 외, 2014)가 있다. 이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 유입추이와 노동시장 참여 실태, 비전문 외국인력 수요의 결정요인 및 내국인 영향분석,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정책 쟁점으로 요약된다. 중도입국 청소년과 관련하여 보다 중요한 부분으로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청소년의 노동시장 통합실태와 쟁점' 을 두고 있다. 이 연구 역시『전국

16) 졸업이나 중퇴, 혹은 비진학 등의 사유로 인함.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청소년의 취업실태와 노동시장 통합을 분석하였다. 이에 의하면 한국에서 성장한 다문화 청소년과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노동시장 실태와 통합 정도는 매우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 성장한 다문화 청소년은 11.2%만이 니트 상태이나, 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37.7%로 3배 이상이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남녀 모두 단순노무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고, 노동시간이 길며, 저임금을 받아 한국에서 성장한 다문화 청소년에 비해 노동시장에서의 상황이 매우 열악하였다. 특히 중도입국 청소년은 한국어 의사소통, 저임금, 장시간 근로 등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직업군 개발 및 취업지원 방안 연구』(서덕희 외, 2015)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진로관련 특징과 요구를 확인하고, 그 특징과 요구에 특화된 직업군을 개발한 후, 그러한 직업군에 진출하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취업지원방안이 무엇인지 직업교육 모형 등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전국 인구 규모가 약 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6천여 명의 중도입국 청소년 중 고등학교 재학생 수가 매우 적고, 탈락률이 높았으며, 대학 진학률도 높지 않았다. 취업의 경우에도 두 개의 다솜학교는 전공과 관련성이 있는 업체로 약 50% 가량 취업하였고, 무지개청소년센터와 위탁기관들의 경우 약 20%의 취업률을 보였다. 그 외 대개 음식점이나 면세점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취업 후에도 한국어능력의 문제나 업무의 어려움 때문에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부모와 함께 살고 싶어서 온 청소년이 과반수가 넘었으며, 취업이나 진학을 위해 온 경우는 10% 가량을 차지하여 한국에서의 진로에 대해 적극적인 비전을 가지고 온 경우는 소수였고, 80% 이상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한국어능력이 보통 이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진로와 관련된 정보는 주로 인터넷이나 부모, 학원, 지인들로부터 얻었으며, 진로에 대한 고민은 주로 선배와 지인들, 부모님과 나누거나 이주민커뮤니티에서 나누는 수가 압도적이었다. 진로관련 지원 중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본 것은 선배의 조언, 진로체험, 진로상담, 진로정보 등이었다. 또,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국어 수준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국어가 아니라 직업과 관련된 전문 한국어와 한국어 발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적합한 직업으로 빈번하게 언급되는

직업들은 관광가이드, 제과제빵사, 요리사, 번역가, 미용사, 판매원, 교사 등 제한적인 범위에 국한되어 있으며, 개인이 경험하는 환경과 주변 지인들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에게 보다 특화된 직업을 4가지 기준에 의하여 도출하였다. ① 이주배경 자원 활용 특화 직업군, ② 장기 체류 비자 취득 특화 직업군, ③ 국가기간 전략산업 수요에 따른 특화 직업군, ④ 다문화 친화 사회 특화 직업군 등이 그것이다. ①에 해당하는 직업으로는 출신국의 언어 및 문화적 이해를 토대로 교육 제공이 가능한 직업, 해외 전시행사 및 의료마케팅을 매개로 진출 가능한 직업, 의료·관광·통역을 매개로 해외 고객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 출신국의 음식 조리기술을 매개로 진출 가능한 직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②에 해당하는 직업으로는 비자 획득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재외동포(F-4) 자격을 얻는데 유리한 공인 국가기술자격증의 취득과 밀접한 직업이 해당된다. ③에 해당하는 직업으로는 한국어 능력보다는 해당 분야의 기술력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직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④에 해당하는 직업으로는 향후 다문화 친화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직업 및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직업을 고려하여 도출하였다. 이를 기초로 이주배경청소년 대상의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에 있어 여러 관점에 의한 고려를 통해 진로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취업지원방안은 이주배경 청소년이 참여하는 데 한계점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즉,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취업지원방안은 한국국적 청소년만이 지원 가능하고, 이주배경 청소년은 한국어나 영어능력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직업교육이 바로 취업과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이런 맥락에서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취업지원은 실제로는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는 방식을 지자체중심 모형, 기관중심 모형, 실무자중심 모형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안산과 같이 인구학적으로 이주민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이주민 관리 차원에서 사례관리 중심의 다층적 협의회가 구축된 시스템에 근거하여 총체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확인하여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취업시장에 실제 진출하기 위한 취업지원 방안으로는 직업교

육을 위한 체류자격 기준 완화,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정착 및 사회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의 포괄적 인정,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정보의 한계와 이주배경 특성을 고려한 직업탐색 프로그램의 확대,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직업교육과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상술한 내용에 따라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통계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부 등의 협의를 통해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등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직업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사업이 이루어지는 중앙부처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진로 혹은 직업교육이 가진 특성 상 특정 기관 내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전 사회적 책임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로서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것은 다른 연구와 달리 서울시 차원에서 행해진『서울시 중도입국청소년 현황과 지원방안』(장명선 외, 2011)이다. 이 연구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 생활실태 및 지원정책 욕구도에 관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17] 결과로서, ① 짧게는 1~2년, 길게는 10년 만에 부모와 재결합하여 친부모자녀 간의 정서적 공백이 발생하거나, 새아버지 및 그 자녀, 새아버지와 친엄마 사이에 출생한 동생 등 새롭고 복잡한 가족 구성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였으며, ② 집에서 엄마와는 모국어로, 새아버지와는 한국어 및 모국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며, ③ 한국어 미숙 등으로 학교를 거부당하거나 자신의 나이에 비해 낮은 학년으로 배정 받은 경우가 있다. ④ 학업성적은 중하위권이며, 교사와 긴밀한 관계는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구체적이지 않으나 나름의 진로를 계획하며, 한국어와 사회적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⑥ 중도입국 청소년의 61.5%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본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19.2%는 본국과 한국의 혼합정체성을, 15.4%만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⑦ 중도입국 청소년들

17) 이 연구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 유형을 ① 결혼이민자 중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여 전 배우자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 ②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부모 본국에서 성장하다 학령기에 재입국한 경우, ③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본국에 있는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 ④ 제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 등으로 나누고, 첫째와 두 번째 경우를 중점으로 두되 세 번째는 포함하나 네 번째의 경우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면접에 참가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남학생이 65.6%, 여학생이 34.4%이며, 연령별로는 14세~16세가 62.5%로 가장 많았으며, 출신국은 중국이 46.8%, 몽골 21.8%였다.

의 대부분이 한국에 와서 처음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 제공 및 도움을 받는 곳은 공공기관이 아닌 교회 등 종교단체 또는 지역사회 민관기간이다. ⑧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한국사회적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싶은 것도 한국어교육으로 나타났다.

▌표 Ⅱ-1▐ 선행연구 검토 정리

선행연구	내용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배상률, 2016)	- 중도입국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재학생 70%, 학교밖 청소년 30% 비율을 보임. 한국어 실력 부족은 공교육 진입기간의 장기화와 학교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지니 않는 주된 이유임. 응답자의 1/3 가량이 노동 경험이 있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진로정체감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주로 가족의 결합을 위해 절반 이상이 자발적으로 입국하였으며, 진로에 대해 가장 고민함. - 현장전문가들은 통합지원센터 신설이나 허브 구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함. 또한, 부모 대상 교육,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정신상담 및 지원을 시급한 정책으로 꼽음. 비자연장에 대한 충분한 사전정보 부재, 심사기간의 단축 필요성 등의 문제가 제기됨. - 이에 따라 정책 대상에 대한 구분과 니즈를 고려하여, 저연령층에 대해 공교육 수혜 중심적 지원, 고연령층에는 진로탐색, 직업기술교육, 취업처 알선 중심 지원을 제시함. 지원체계별 자립지원 정책으로서 교육바우처 제도, 학교 대상 인센티브 지급, 중도입국 청소년 특별전형 신설, 교원양성 과정 및 연수 프로그램, 1+3 제도의 운영,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모델 전국적 확대,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 확대 운영, 학업 종료시까지 비자연장, 위탁형 다문화 대안학교 확대 운영, 부모교육 등이 제시됨.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정해숙 외, 2016)	- 서울과 경기지역에 전체 다문화가구의 절반 정도가 거주하고 있음. 취학률은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전 국민 취학률과 비교해 격차가 벌어짐. 조사된 현황을 통해 다문화가구 자녀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을 제고하고, 다문화가구의 낮은 소득수준을 개선하며, 장애인 가구원이 있는 다문화가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됨. - 결혼이민자·귀화자 수는 30만 명 이상으로, 자녀와의 친밀도는 높은 편이지만, 자녀 친구들에 대해 아는 비율은 응답자의 절반 정도임. 이들은 부모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높았음. 이들의 배우자는 한국출신 남편이 가장 많았고, 자녀와의 친밀감은 비교적 높으며, 자녀 친구들에 대해 잘 알지 못했음. - 만 9~24세 청소년 자녀는 82,486명으로 추정되며, 2012년에 비해 24% 증가함. 이 중 15.5%는 외국에서 주로 성장함.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자녀의 경우 약 70%가 18세 이상이며, 절반 이하만이 재학 중임. 국적으로는 한국계 중국이 절반 이상임.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학교생활 및 문화가 달라서', '학교공부가 어려워

선행연구	내용
	서’인 것으로 나타남. 레인보우스쿨이나 다문화예비학교 및 다문화대안학교에 대한 인지율과 이용률도 낮게 나타남.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 정책과제』 (이규용 외, 2014)	-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청소년의 취업실태와 노동시장 통합을 분석함. - 한국에서 성장한 다문화 청소년은 11.2%만이 니트 상태이나, 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37.7%로 3배 이상임. 중도입국 청소년은 남녀 모두 단순노무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고, 노동시장이 길며, 저임금을 받아 한국에서 성장한 다문화 청소년에 비해 노동시장에서의 상황이 매우 열악하였음. 중도입국 청소년은 특히 한국어 의사소통, 저임금, 장시간 근로 등의 어려움을 느낌.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직업군 개발 및 취업지원 방안 연구』 (서덕희 외, 2015)	- 중도입국 청소년의 전국 인구 규모를 약 3만 명으로 추정함.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6천 명의 중도입국 청소년 중 고등학교 재학생 수가 매우 적고, 탈락률이 높으며, 대학 진학률도 높지 않음. 취업률 역시 다솜학교는 약 50%, 무지개청소년센터와 위탁기관은 20%로 나타남. 취업 후에도 한국어능력이나 업무 어려움으로 그만두는 경우도 많음. 직업과 관련된 전문 한국어와 한국어 발음 교정 수요가 있음. - 이주배경 청소년이 기존 취약계층 청소년 취업지원방안에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국 국적 청소년만 지원 가능함. 직업교육을 위한 체류자격 기준 완화, 한국정착 및 사회진출 프로그램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의 포괄적 인정, 진로정보 한계와 이주배경 특성을 고려한 직업탐색 프로그램 확대,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모형 제시
『서울시 중도입국청소년 현황과 지원방안』 (장명선 외, 2011)	- 중도입국 청소년 생활실태 및 지원정책 욕구도에 관한 심층면접 조사 실시 - 1~10년 만에 부모와 재결합하여 정서적 공백이 발생하거나 새아버지와 그 자녀 또는 친엄마 사이에 출생한 동생 등 가족 구성원 사이의 갈등이 발생함. 집에서 엄마와는 모국어, 새아버지와는 한국어 및 모국어를 혼용해 사용함, 한국어 미숙으로 학교를 거부당하거나 낮은 학년으로 배정받음, 성적은 중하위권이고, 나름의 진로를 계획하며, 한국어와 사회적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음. 본국 정체성이 강하였고, 공공기관 보다 교회 등 종교단체 또는 지역사회 민간기관으로부터 정보 제공 및 도움을 받고, 한국어교육을 가장 받고 싶은 것으로 나타남.

2. 시사점

상술한 연구들은 전국 규모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제를 조명하였다. 마지막 장명선 외(2011)의 연구는 내용의 일부로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현황을 구하고, 서울시에 거주 하는 학교 내/학교 밖 중도입국 청소년, 부모, 교사, 현장 전문가 등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결과의 결론 및 정책제언에서는 ① 정확한 현황파악이 되어야 할 것, ② 중도입국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시스템 구축, ③ 정부 부처 내지 지역 유관기관의 연계강화, ④ 다각적 측면의 교육지원, ⑤ 가족단위 프로그램의 도입, ⑥ 민·관·학 수평적 협력관계의 구축, ⑦ 일반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통합적 차원의 프로그램 진행을 지향하고 있다. 마련되어야 할 세부적 정책 내용으로는 한국어 교육 지원, 가족생활 지원, 학교생활지원, 사회생활 지원, 정확한 통계자료 구축, 다문화이해 교육 및 교사들의 역량강화로 나누어 그 사업대상과 추진체계, 목적과 내용을 적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6년 뒤 영등포구, 금천구, 구로구에 외국인밀집지역의 영향과 중국국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현재의 특징을 반영한 정책제안과는 거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지역적 특징에 좀 더 중점을 두어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의 배치 및 허브로서의 역할 강화를 비롯한 지역 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두고자 한다.

내용적으로 선행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이 처한 척박한 환경에 관한 상황설명과 공교육 진입, 생활 한국어 이상의 한국어 교육, 직업교육·직업체험·진로상담과 같이 취업에 관련된 지원의 현실화, 불안한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심리상담 등을 강조한다.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사항 중 여러 번 등장한 '한국어 교육'은 두말 할 나위 없이 한국 사회 적응의 핵심역량으로서 중요하다. 특히 서덕희 외(2015)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음식점이나 면세점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취업 후에도 한국어능력의 문제나 업무의 어려움 때문에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도 적지 않다. 80% 이상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한국어능력이 보통 이하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국어 수준이 일상생

활에 필요한 한국어가 아니라 직업과 관련된 전문 한국어와 한국어 발음인 점은 여러 지원기관의 기존 한국어 교육 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또, 장명선 외(2011)은 한국어 미숙 등으로 학교를 거부당하거나 자신의 나이에 비해 낮은 학년으로 배정받는 현실을 서술하며, 일상생활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마치고 공교육으로 진입한다 하더라도 그 체계 안에서 버티어 진학하기 위해서는 결국 직업을 위한 전문 한국어처럼 학습을 위한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 직업교육과 직업체험은 중도입국 청소년 본인에게 맞는 직업을 탐색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바로 취업과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서덕희 외, 2015). 상술한 연구에서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취업지원이 실제로는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며, 안산과 같이 인구학적으로 이주민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이주민 관리 차원에서 사례관리 중심의 다층적 협의회가 구축된 시스템에 근거하여 총체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모형은 서울시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다. 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이주민 자조모임 등을 통해 취업하고자 하는 중도입국 청소년과 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을 매칭시키는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배상률의 연구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립지원방안으로서 고연령층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탐색, 직업기술교육, 취업 알선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제안을 한 바 있다. 그에 대하여 이 보고서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서울시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환경적 원인, 이를테면, 사전 준비 없는 입국 또는 가족해체경험의 영향과 지지기반의 부실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 교육전문가가 부재하고 한국어 심화학습 과정이 없어 진로설계가 어려운 환경 등의 문제를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원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한편, 진로상담과 심리상담의 필요성은 꾸준히 주장되고 있다. 진로상담의 경우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직업군 개발 및 취업지원 방안 연구』(서덕희 외, 2015)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주로 선배와 지인들, 부모님과 나누거나 이주민커뮤니티에 하는 수가 압도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선배, 지인들,

부모님의 경우 신뢰할만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 이주민커뮤니티의 경우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비전문적이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진로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올바른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진로상담사가 필요하지만,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에서도 담당 선생님에게 묻는 수준으로, 이와 같은 인력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심리상담의 경우는 이제껏 무시되거나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의 담당 선생님의 몫으로 미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는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기에 새로운 환경에 입성하여 겪는 문화적 충격과 체류불안정, 언어의 장벽으로부터 도피하여 생각할 장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만, 아직 한국어에 미숙한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하여 이중언어가 가능한 상담원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상담을 위해 모국어로 말하면, 어머니 등 한국어가 가능한 중개인이 통역하여 상담사에게 전달하고, 또 반대로 상담사가 한 말은 중개인이 통역하여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전달하는 형식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심리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일이므로, 심리상담사들은 17세 이상의 후기 청소년인 경우에도 미술치료나 음악치료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내용적 측면은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미비로서 전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서울시 10~24세 인구의 국적이 압도적으로 중국 국적인 것을 감안하여 실행 가능한 정책의 구상에서 주요 외국어 서비스 제공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으로는 관련 법령 및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살펴보고,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으로서 개선해야할 점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III

관계 법령과 관련 정책 검토 및 시사점

1. 관계 법령 검토
2. 관련 정책 검토
3. 시사점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Ⅲ 관계 법령과 관련 정책 검토 및 시사점

1. 관계 법령 검토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제1호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제2호에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청소년' 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의하여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을 말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는 결혼이민자와 귀화 등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의 자녀를 의미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5년 마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에 따라 후술할 여성가족부의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이 도출되었으며, 현재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의 수립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2017.12.28.현재). 또 동법 제3조의2에서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의무를 여성가족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부과한 바, 마찬가지로 후술할 ≪2017년도 서울시 다문화가족 지원 시행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 외에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두고 있고, 이는 서울시 내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 이에 따라 동법 제7조 지원의 범위 중 제1조 제6호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이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정책 마련을 근거 짓는다.

2. 관련 정책 검토

1) 중앙정부의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중앙정부는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다음의 과제를 수행한다.

▌표 Ⅲ-1▐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중 다문화가족 자녀 관련 과제

과제명	내용	담당부처
1.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	1-1. 건강정보 문해력 향상	보건복지부
	1-2.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 확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1-3. 이중언어교육 단계적 확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1-4. 찾아가는 부모교육서비스 지원	여성가족부
2. 한국어능력 향상	2-1.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공유	문화체육관광부
	2-2. 다문화배경 학생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3. 학교생활 초기적응 지원	3-1. 초등학교 입학 전 준비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3-2. 예비학교 전국 운영	교육과학기술부
	3-3. 자녀생활서비스 확대	여성가족부
	3-4. 초기적응 프로그램 'Rainbow School' 운영	**여성가족부**
4. 기초학력 향상 및 진학지도 강화	4-1. 한국어 향상 및 기초학력 지원 강화	교육과학기술부
	4-2. 진로·진학지도 강화	교육과학기술부

과제명	내용	담당부처
5. 공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 제고	5-1. 입학절차 안내 및 학교 진입 유도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5-2. 각종 위원회 등에 다문화가족 청소년 참여 가이드라인 마련	여성가족부
	5-3. CYS-Net에 이주배경 청소년 상담 및 복지 포함	여성가족부

※ 출처 :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여성가족부·관계부처합동, 2012. 12. 52면.

이 중 중도입국 청소년과 관련이 깊은 과제는 "3-4. 초기적응 프로그램 'Rainbow School(이하 '레인보우스쿨')'이다. 현재 레인보우스쿨은 전국에 23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서울시의 경우 무지개청소년센터,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화원종합사회복지관, 세 곳에서 각각 레인보우스쿨 운영을 맡고 있다.

▌표 Ⅲ-2▐ 2017년 레인보우스쿨 운영기관 현황

연번	기관	지역	운영형태
1	무지개청소년센터	서울 종로	전일제
2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서울 금천	
3	화원종합사회복지관	서울 구로	
4	부천새날학교	경기 부천	
5	수원이주민센터	경기 수원	
6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경기 안산	
7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경기 평택	
8	다문화사랑회	인천	
9	광주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광주	
10	사단법인 부산교육연구소	부산	
11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	
12	세린작은도서관	울산	
13	충북다문화가정지원센터	충북 청주	
14	아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충남 아산	
15	영남대학교 다문화교육연구원	경북 경산	
16	창원YMCA	경남 창원	
17	원광보건대학교 다문화가족교육센터	전북 익산	
18	미평종합사회복지관	전남 여수	

연번	기관	지역	운영형태
19	(사)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서울 구로	시간제(방과 후·주말)
20	고양이민자통합센터	경기 고양	
21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경기 안산	
22	춘천YMCA	강원 춘천	
23	배재대학교 산학현력단	대전	

※ 출처 : 무지개청소년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보도자료 2017.2.10.(금) 참조

지원대상은 9~24세 학교밖 이주배경청소년(중도입국 청소년,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 등)으로 국적이나 국내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다.

레인보우스쿨에서는 기초 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 특기적성 개발, 심리정서 상담 및 진로진학 안내 등의 과정을 운영한다. 그 외 진로지원 프로그램 "무지개 Job아라!", 직업훈련 프로그램 "내-일을 잡아라", 통합상담, 한국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통·통" 통합캠프 실시, 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젝트 다톡다톡(多talk茶talk) 등이 있다.

▌표 Ⅲ-3▐ 여성가족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구분	내용
맞춤형 정보서비스	- 이주배경청소년의 체류, 정착, 교육, 취업 진로, 생활 전반의 정보 안내 - Rainbow School 등 활동 프로그램 및 기관연계 지원 - 진로·진학지도, 심리·정서 상담 연계 지원
입국초기 지원교육 (Rainbow School)	- 2017년 서울·경기 및 15개 지역, 23개 기관에서 위탁운영 -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및 특기·적성, 사회문화, 심리프로그램 지원 - 전일제, 시간제(방과 후, 주말·야간) 운영 ※ 위탁운영 기관마다 프로그램 운영의 차이가 있음
진로지원 프로그램 "무지개 Job아라!", "내-일을 잡아라"	- 진로지원이 필요한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진로탐색 및 설계, 직업체험 - 10대 후반~20대 후반 중도입국 청소년 대상
통합상담	- 온·오프라인 상담 및 찾아가는 상담실시
역량강화	- 이주배경 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지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 실시 - 이주배경 청소년과 한국청소년들이 마음으로 통하는 "통·통·통" 통합캠프 실시
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젝트 "다톡타독(多talk茶talk)"	-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지원 및 치료비지원 사업 - 심리치료비 1인 110만 원 지원

※ 출처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조(2017.6.5. 현재 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11.do)

2) 서울시의 ≪2017년도 서울시 다문화가족 지원 시행계획≫

서울시는 ≪2017년도 서울시 다문화가족 지원 시행계획≫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에 관련된 과제를 수행한다.

▌표 Ⅲ-4▐ 2017년도 서울시 다문화가족 자녀 관련 과제

과제명	사업내용
1.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 확대	- 다문화가족 자녀(만12세 이하) 대상 언어발달정도 평가한 후 주2회 언어교육 수업 제공 - 자녀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 교육 및 상담
2. 이중언어 교육 단계적 확대(가족환경 조성)	- 어권별·수준별·연령별 이중언어 자조모임 구성 및 운영지원 -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놀이, 게임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이중언어 관련 부모교육 및 가족교육 실시 -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 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만3세~초등학생 재학생) 등 · 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가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상담, 책읽어주기 활동 코칭 등
3. 생애주기별 동화집 시리즈 제작	- 전래동화 및 육아·교육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보의 다국어(10개 언어) 번역을 통한 이중언어 동화집 시리즈 제공 ※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러시아어, 네팔어
4. 다문화 자녀 보육시설 운영	-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 지정·운영 ※ 연도별 지정 목표 - ‘18년 55개소, ‘19년 60개소
5. 다문화자녀 및 일반청소년 교류지원 사업	- 다문화가정의 한국문화 적응 및 문화통합 - 다문화청소년 및 한문화청소년의 특기적성계발활동 - 다문화 이해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제공
6. 자녀생활서비스 지원(다문화자녀 학습·문화·체험활동 지원)	- 2017.1~12월(연중) 지역아동센터 이용 다문화 아동 대상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7. 중도입국자녀 종합지원	- 한국생활 적응 : 한국어교육, 컴퓨터교육, 멘토링 학습지도 - 진로지도 : 진로상담·커리어 코칭을 통한 종합적 진로설계 - 취업지도 : 취업대비 교육과정 운영 - 심리정서 지원(개인 및 가족상담), 가족관계 향상(부모교육) 등
8. 기초학력 지원 강화(방문학습지)	- 방문교육 · 다문화·외국인 자녀(만2세~만6세) : 한국어교육 등 · 다문화·외국인 자녀(만7세~만12세) : 기초학력(국, 영, 수, 사, 과 중 택1) 교육

과제명	사업내용
9. 다문화가족 학위취득 지원	- 고른기회입학전형Ⅱ(정원 내) · 지원자격 : 다문화 등 기타배려대상자 ·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⑥ 결혼이전에 외국국적이었던 친부(친모)와 대한민국국적인 친모(친부) 사이에 출생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서 대한민국 국적자 (단, 결혼이전에 외국국적을 가진 친부(친모)가 한국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전형방법 · 1단계(2배수) - 서류평가 100% ※ 정성적 종합평가 ※ 전형자료 :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 2단계 - 면접평가 100% ※ 기초학업능력, 전공적합성, 인성 등을 확인
10. 문화통합프로그램 다같이 놀자 프로젝트	- 외국인·다문화자녀 대상 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출처 : ≪2017년도 서울시 다문화가족 지원 시행계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17.1. 12면 이하.

서울시가 수행하는 대부분의 과제는 취학 전 또는 초등학교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도입국 청소년과 관련한 과제로는 '중도입국자녀 종합지원'이 있다. 그 내용은 크게 '서울온드림교육센터의 운영', '다문화자녀·중도입국자녀 심리정서 지원', '중도입국 청소년 또래친구만들기 사업'으로 나누어진다. 각각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Ⅲ-5▐ 2017년도 서울시 다문화가족 지원 시행계획 중 '중도입국 청소년 종합지원'의 내용

과제명	사업내용
1. 서울온드림다문화가족교육센터 운영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한국어 교육, 심리·정서지원 등을 통한 중도입국자녀의 한국사회 조기 정착 및 학교생활지원 ○ 사업내용 - 한국생활 적응 : 한국어 교육, 컴퓨터 교육, 멘토링 학습지도 - 진로지도 : 진로상담·커리어 코칭을 통한 종합적 진로 설계 - 취업지도 : 취업대비 교육과정 운영 ○ 추진체계 - 서울시 : 장소제공 - 서울온드림교육센터((사)두드림청소년지원네트워크): 센터 및 프

과제명	사업내용

로그램 운영
- 현대차정몽구재단 : 재원조달, 센터운영·사업수행 위탁

□ 2016년도 추진실적
- 운영실적 : 서비스 이용 실인원 127명

구분	정규			소그룹 한국어 지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한국사회 적응지원	외부연계	총계 (중복)
	기초	초급	중급					
인원	45	10	16	39	63	39	32	244

□ 2017년도 추진계획
○ 중도입국 청소년 중점지원,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지속 운영
- 수준별 한국어 교육, 영어기초, 멘토링 학습 지도 등
- 검정고시 대비반 운영, 귀화시험 대비 지도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 진로상담·커리어코칭을 통한 종합적 진로지도 설계
- 한국사회 이해교육 수시 운영, 한국 역사·문화 탐방 매월 실시
- 타 기관과의 연계 문화 활동 운영, 캠프 등의 행사 진행
- 심리정서 지원(개인 및 가족상담), 가족관계 향상(부모교육) 등
- 중도입국자녀 일반을 위한 자료집, 프로그램 등 개발

□ 성과지표

년도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	실적	달성율(%)	산출근거
'16	중도입국자녀 종합지원	중도입국자녀 교육인원	120명	127명	105%	교육프로그램 수강인원
'17	중도입국자녀 종합지원	중도입국자녀 교육인원	150명	-		교육프로그램 수강인원

□ 예산현황
○ 소요예산 : 4억 원
- 재원형태 : 기타 100%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A)	'17년 (B)	증감 (B)-(A)
사업량(단위 : 명)					120	150	30
사업비(백만원)					200	400	200
국비	회계(일반, 특별)						
지방비	시·도비	290	297	38			
기타(현대차정몽구재단)					200	400	200

2. 다문화자녀·중도입국자녀 심리정서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심리적 위기를 경험하는 중도입국 자녀·다문화가족 상담 및 심리검사 ○ 사업내용 - 중도입국·다문화가정 청소년과 가족대상 상담이 의뢰되는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역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간으로 상담 예약 후 청소년복지센터 상담원이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 추진체계

<table>
<tr><th>과제명</th><th>사업내용</th></tr>
<tr><td></td><td>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 상담의뢰,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상담서비스 제공
□ 2016년도 추진실적
○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1388 전화상담 등 실시(총 66명)
□ 2017년도 추진계획
○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및 심리검사 서비스 제공 : ‘17.1월~12월
- 중도입국·다문화가정의 청소년과 가족대상 상담이 의뢰되는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역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간으로 상담 예약 후 청소년복지센터 상담원이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 다문화 관련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업무 협조(통번역 필요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 협조
□ 성과지표
<table>
<tr><th>년도</th><th>사업명</th><th>성과지표</th><th>목표</th><th>실적</th><th>달성율 (%)</th><th>산출근거</th></tr>
<tr><td>‘16</td><td>다문화/중도입국 자녀 및 가족상담</td><td>상담의뢰인원</td><td>28</td><td>66</td><td>236%</td><td>상담인원(실인원)</td></tr>
<tr><td>‘17</td><td>다문화/중도입국 자녀 및 가족상담</td><td>상담의뢰인원</td><td>30</td><td></td><td></td><td>상담인원(실인원)</td></tr>
</table>
□ 예산현황
○ 소요예산 : 비예산 사업
</td></tr>
<tr><td>3. 중도입국 청소년 또래친구만들기 사업(신규)</td><td>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교육사각지대에 노출된 중도입국자녀의 심리·정서 프로그램 필요
- 차별(13.5%) 및 학교폭력 경험(8.1%)이 국내성장 자녀 대비 두 배 이상
○ 사업내용
- 중도입국 청소년이 다수 거주하는 서울시 서남권의 학교 내 한국인 청소년과 학교밖 중도입국 청소년 1:1 매칭
○ 추진체계
- 청소년·다문화 관련 단체 대상 프로그램 공모·선정
- 자치구 및 운영 단체 : 교육청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 2017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 ‘17.1월
○ 기본계획 수립 및 자치구 공모 : ‘17.2월
○ 프로그램 운영 ‘17.3~11월
□ 성과지표
</td></tr>
</table>

과제명	사업내용

년도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	실적	달성율 (%)	산출근거
'17	중도입국 청소년 또래친구만들기	프로그램 참여(체험)인원	100			사업결과보고

□ 예산현황

○ 소요예산 : 총 90백만원

- 재원형태 : 시비 100%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A)	'17년 (B)	증감 (B)-(A)
사업량(단위 : 명)						100	
사업비(백만원)						90	
국비	회계(일반, 특별)						
지방비	시·도비					90	
기타							

※ 출처 : ≪2017년도 서울시 다문화가족 지원 시행계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17.1. 24면 이하.

3. 시사점

1)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 중심의 정책에 대한 비판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다문화가족정책에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내용이 빈약하다고 판단된다. 주요한 정책은 영유아로부터 초등학교 6학년 연령이 13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사회 적응의 핵심역량인 언어습득에 불리한 후기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사실상 관련 지원기관을 운영하는 데 그친다. 중앙정부의 초기 적응 프로그램인 'Rainbow School' 운영과 서울시의 '서울온드림교육센터'의 운영이 그러하다.

▌그림 Ⅲ-1▐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법령 및 정책

특징적으로 서울시의 경우 서울온드림교육센터가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서남권글로벌센터의 공간은 서울시가, 예산은 현대차정몽구재단이 지원하고 있다. 현재 그곳에 출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용어 수준의 한국어 교육을 기초로 검정고시 대비, 진로상담, 심리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맞춤식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는 한국어교육이 무료라는 점, 선생님이 친절하고, 진로상담 등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언급되었다. 이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이라도 한국어를 배우러 올 수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이 가진 문화적 차이를 이 기관에서 수행하는 교육의 전제조건으로 이해,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러한 기반에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한국사회로의 기본적인 적응과 통합과정을 차근히 밟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편,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정책이 서울온드림교육센터의 운영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도입국 청소년 내에서의 이질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를테면, 17~18세 이전의 저연령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한국어 교육이 종료되면 학력인증이 가능한 공교육 기관으로 연계한 후 학교생활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

고, 17~18세 이후의 후기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해서는 니트 상황을 벗어나게 하기 위한 동기부여 프로그램, 취업을 위한 교육과 취업알선처 연계 등을 보다 본격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심층면접조사에서도 그러한 다양한 정책 수요가 감지되었다.

> 「초·중등교육법」이 얘기하는 보통 교과와 자기의 체험활동이 편제 속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지원기관에서는) 그런 건 관심 밖이죠. 물론 검정고시로 해서 (상급학교에) 갈 수 있죠. 주로 탈북청소년들이 그렇게 연계되고, 굳이 그렇게까지 (공교육의 필요성까지) 안 느끼고 곧바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한국 국적은 취득해요. 국적만 취득하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전한 시민으로 양성'할 때 그 개념에는 조금 다를 수 있죠. – 전문가06

전문가06의 견해와 같이 주로 후기 중도입국 청소년이 현재의 지원체계에서 초급 한국어 학습과 같은 조기 적응을 마친 후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는 경우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종사자의 경우도 중도입국 청소년이 보통 1년 정도 머물며 초급 한국어를 완전히 떼고, 중급 한국어에 올라가는 단계에서 취업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은 국적을 형식적으로 취득했을 뿐 한국사회에 통합되지 못해 자신의 국적에 대한 정체성은 변하지 않은 채 국내에 거주하는 것이 일을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례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은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정도의 한국어를 익힌 후에도 외국인이 밀집되어 있는 영등포구, 금천구, 구로구를 벗어나지 않고, 한국 내에서 중국인으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도 감지되었다.

> 거기(서울온드림교육센터)는 한국어만 배우니까 수학이나 과학, 이런 게 빠져서 머리에 있었던 것도 잊어버려요. ... ..(센터에서 1년 공부하고 일반학교에 처음 갔는데)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말하는 건 알아들어요. 그런데 교과서를 보니까 하나도 이해 못하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저는 너무 어려워서... 거기서 영어를 잘 하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 친구들한테 부탁했어요. 나랑 같이 공부해달라고. 그리고 만날 학교에 남아서 도서관에서 한 시

간씩 그 친구들이랑 공부했어요. 그 친구들이 한국어 책을 영어로 설명해줬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단어인지 설명해줬어요. - 중도입국 청소년02

중도입국 청소년02는 일반학교에 가서 학습에 필요한 한국어를 몰라 영어를 잘하는 친구에게 부탁하여 공부하였다. 그런데 중도입국 청소년은 많은 경우 언어장벽으로 인해 중도입국 청소년의 성격이 소극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입시와 경쟁에 시달려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교육 환경 탓에 중도입국 청소년02와 같이 용기있게 도움을 청하거나 그 친구들과 같이 영어에 능숙한 친구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교 내에서 학습에 필요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정책 제안도 구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기존의 지원기관이 초기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잘 수행하여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진학과 취업, 사회통합 등에 관한 다채로운 정책 수요를 소화하기엔 부족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러한 비판을 토대로 서울시의 관련 정책을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2) 이중 언어 상담사 부재

또, '다문화자녀·중도입국자녀 심리정서 지원'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심리상담을 요청할 경우 현재로선 이중 언어가 가능한 상담사가 없어 보호자가 동행하여 중도입국 청소년과 상담사의 말을 통역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거나 영어를 쓰는 실정이다. 통역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도 문제지만, 상담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내용이 중도입국 청소년의 입장에선 대부분 부모와 나누고 싶지 않은 내용임을 고려하면, 이중 언어가 가능한 상담사의 양성도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심리상담이 가능한 기관이 많아요. 그렇지만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있는 기관이 없어요. 저희도 하는 데까지 하는데, (아이들이) 한국말을 이렇게까지 못할 줄 몰랐어요. ... ...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7, 80프로 이상이 중국하고 베트남인데, 심리상담은 다 영어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국어로 물어보면, 엄마가 통역을 해줘서 아이가 통역을 듣고 말을 한대요. - 전문가01

전문가01의 말에서 중국어, 베트남어 등 주요 외국어가 가능한 상담사가 절실하고, 이 상담사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도출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중 언어 상담사의 양성이 또 하나의 문제로 파생된다. 이에 대하여는 Ⅴ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이와 같이 현재 시행 중인 관련정책에 부족함을 느끼고 정책수요를 표현하는 면접대상자들도 있었다. 그러한 정책수요의 내용으로는 (ⅰ) 한국인 학생과의 교류 기회, (ⅲ) 심리상담 (ⅳ) 진로상담 (ⅴ) 상급의 한국어 교육 등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성장을 저해하는 환경적 요인에 관한 Ⅲ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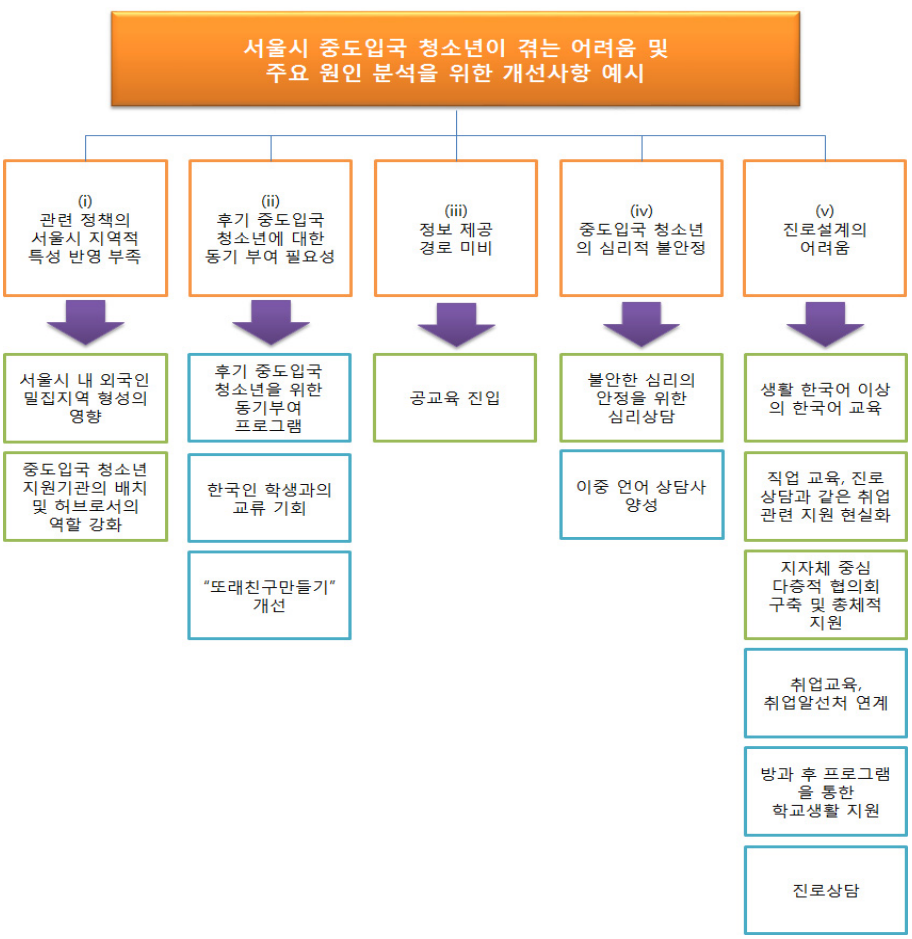
3) “또래친구만들기” 사업의 개선점 파악 필요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수행하는 관련 정책 중 새롭게 주목할 만한 내용이 2017년 신규로 시행된 ‘중도입국 청소년 또래친구만들기’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서울시 내 3개 자치구에서 시행하였으며, 중도입국 청소년과 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인 청소년을 1:1로 매칭하여 영상 만들기, 난타, 합창 등 함께 해야 하는 주제를 부여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에 노력하였다. 향후에도 이 사업의 지속이 기대되는 일면, 타면으로는 1기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이 모임과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숙제로 남았다. 특히 참여 청소년을 모집하기 힘들고, 중도 탈락자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소결

서울시의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기존 정책은 중도입국 청소년이 성장하기에 척박한 지원체계와 환경적 요인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해소 노력을 보여준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의 현황과 이들이 겪는 어려움 및 주요 원인의 분석이 필요하고, 그에 대응하는 개선방안의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다음 장에서는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현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 장에서는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 및 그 주요 원인을 분석한 후 마지막 장에서 지원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Ⅲ-2▐ 개선사항 분류 예시



IV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의 현황 검토

1. 9~24세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추정 인구
2. 외국인주민 밀집지역 내 중국국적 중도입국 청소년 추정 인구
3.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통계 마련의 시급성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의 현황 검토

1. 9~24세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추정 인구

현재로서 중도입국 청소년에 관한 인구 통계자료는 없다. 여성가족부에서도 학교밖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자료를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

>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 중에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얼마나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그게 따로 저희가 통계를 뽑고 있는 게 없고, 다만 하는 데도 있다. 그러니까 (학교밖 청소년 중 중도입국 청소년의) 분류보다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중도입국 청소년이 와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곳이 있기는 있다. 다만 이제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따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쓰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따로 코드화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서 따로 이제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인지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다만, 적어요. 거의 없어요. – 공무원01

서울시가 중도입국 청소년에 관한 문제를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다루고 있는 것과 달리 여성가족부는 학교밖청소년지원과에서 다루고 있다. 관련 공무원의 심층면접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거의 없어 역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서울소재 레인보우스쿨 이용자의 수는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레인보우스쿨 이용자가, 예를 들면, 16년도에 총 1,538명인가. 레인보우스쿨 전국 현황이요. 저희 통계자료에는 그렇거든요? 다문화가족 자녀하고, 중도입국하고, 그 분류를 안 해놨어요. 국적별로 인원은 안 나오더라고요. – 공무원01

다만 이용자에 대한 전국 현황만을 파악하고 있어, 지역별·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치한 분류작업이 요구되며,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이용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분류작업을 통해 향후의 정책적 개선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무원01은 2018년에 시행될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중도입국 청소년 부분을 이전보다 더 자세히 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크게 앞으로 생각해야할 거는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황파악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해당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대책부분도 맞춤형으로 나오기가 어렵고…… 저희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내년도(2018년도)에 또 하거든요. 그 때 중도입국 청소년 부분을 예년보다 더 자세하게 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또 그에 따른 대책이 아무래도 더 검토되겠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 공무원01

2016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통해 이미 중도입국 청소년의 현황이 어느 정도 밝혀진 바 있지만, 2018년도 동 조사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 부분을 더욱 자세히 조사하기로 계획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당사자에 밀착된 정책의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레인보우스쿨 또는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이용자 통계 가능성과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계획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다른 통계를 통해 중도입국 청소년 현황을 추정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한 자료는 거의 통계청의 외국인 인구 규모 관련 자료이다.

우선 2016년 현재 통계청의 '지역 및 연령별 등록외국인 현황' 통계표를 살펴보면, 10~24세 등록외국인[18] 인구가 전국 시·도 중 서울시에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

18) '등록외국인'이라 함은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기 위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현황으로,

고, 그 수는 45,84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국 총계 174,847명 중 26.2%에 해당한다. 이 수치는 2013년 주춤하였으나, 2012년에서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표 Ⅳ-1▐ 2016년 지역별 10세~24세 등록외국인 현황

(단위: 명)

행정구역	10~24세 인구
서울특별시	45,840
부산광역시	10,388
대구광역시	4,728
인천광역시	6,680
광주광역시	4,911
대전광역시	5,532
울산광역시	2,536
세종특별자치시	624
경기도	37,493
강원도	3,649
충청북도	6,372
충청남도	10,551
전라북도	5,917
전라남도	5,698
경상북도	9,831
경상남도	9,981
제주특별자치도	4,116
총계	170,731

※ 출처 : 통계청, 지역 및 연령별 등록외국인 현황 재가공, 2017.6.2.현재.

▌표 Ⅳ-2▐ 2012년~2016년 서울시 10세~24세 등록 외국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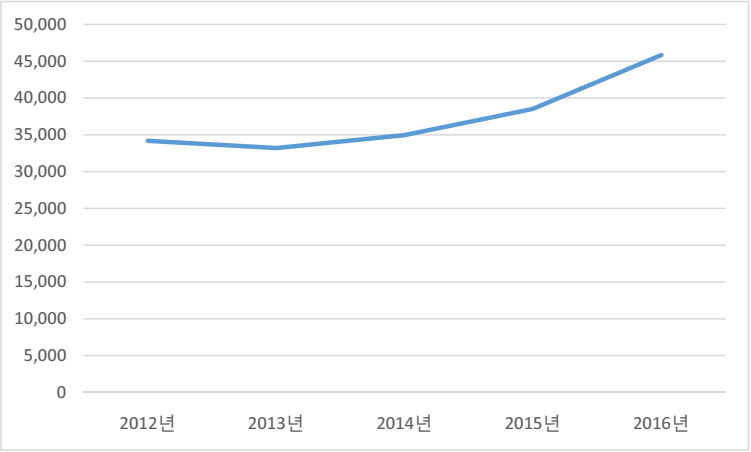
(단위: 명)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5~24세 인구	34,187	33,214	34,955	38,534	45,840

※ 출처 : 통계청, 지역 및 연령별 등록외국인 현황 재가공, 2017.6.2.현재.

이 자료는 조회 년도의 말일 기준 자료이다. 통계청, 체류외국인 통계, 통계설명자료.

▌그림 Ⅳ-1▐ 2012년~2016년 서울시 10세~24세 등록 외국인 현황



물론 이 통계에는 귀화 등으로 한국 국적인 중도입국 청소년을 포함할 수 없다. 또한, 19세 이상의 등록 외국인 중에는 이 연구에서 고려하고자 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 여타의 사유로 한국에 입국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더욱이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중도입국 청소년 인구 규모는 가늠하기 힘들다.

한편,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정해숙 외)에서는 만 9~24세 청소년 자녀의 수가 전국 82,476명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다문화가족자녀라 함은 법령에 따라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자녀로 이해된다.[19] 또한, 다문화가구의 21.6%가 서울에 위치하고, 평균 가구원수가 3.16명으로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서울시 다문화가구에 속한 자녀의 수는 82,476명의 21.6%인 17,815명으로 도출되는데, 그 중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비율이 15.5%라고 하였으므로, 2,761명가량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도입국 청소년 중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9~24세 다문화가정 자녀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자녀와 외국국적동포의 자녀가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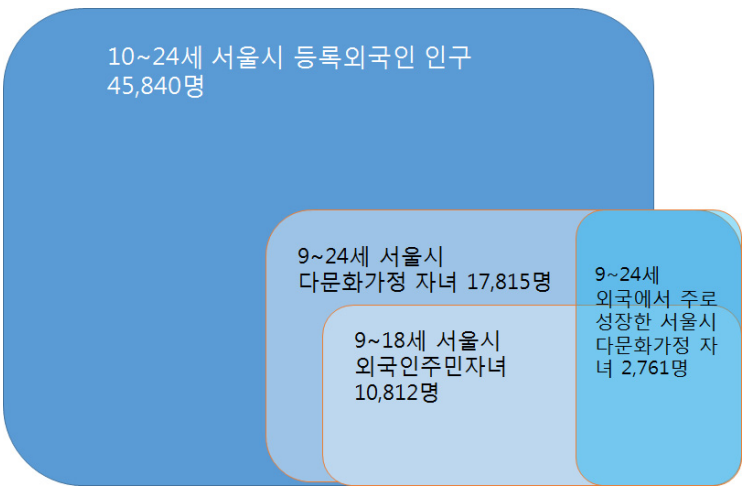
또한, 통계청의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에 따르면, 0~18세 외국인주민자녀의 수는 28,095명이고, 이 중 9~18세는 10,812명으로 나타난다. 이 수치로

1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참조.

도 역시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수를 구하기는 어렵다.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수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Ⅳ-2▐ 2016년 9~24세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인구 추정



생각건대 '9~24세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서울시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인 2,761명이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의 수에 가장 근접하나, 이 역시 이 연구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범위로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자녀와 외국 국적 동포를 제외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2,781명이라는 수치는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9~24세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의 최소한으로 가정하기로 한다.

2. 외국인주민 밀집지역 내 중국국적 중도입국 청소년 추정 인구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인구 추정에 있어서의 지역적 특징은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에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이 형성되어 있고, 이 중 중국 국적 외국인주민(중국인 및 한국계 중국인)의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이다.

이 3개 자치구의 중국인 및 한국계 중국인의 수는 82,415명이고, 3개구 전체 등록

외국인 수인 84,534명의 97.5%를 차지한다. 2016년 기준 이 3개 자치구의 10~24세 등록외국인 인구는 3,084명이므로, 단순 산술하여 이 수의 97.5%인 3,007명의 중국 국적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중도입국 청소년의 비율이 얼마나 될지는 역시 관련 통계의 미비로 알 수 없다.

▌표 Ⅳ-3▐ 2016년 서울시 자치구별 국적별 등록외국인 현황

(단위: 명)

자치구	중국	한국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네팔	타이(태국)	소계
강남구	1,188	853	191	67	21	39	22	16	52	2,449
강동구	694	2,305	325	76	76	35	12	9	21	3,553
강북구	730	1,353	367	100	30	30	5	20	27	2,662
강서구	1,184	2,785	393	182	116	79	64	8	46	4,857
관악구	3,817	11,390	623	106	69	87	95	42	58	16,287
광진구	5,035	6,934	580	99	21	189	36	38	44	12,976
구로구	5,846	24,369	412	114	52	37	27	12	38	30,907
금천구	2,926	15,031	436	148	78	24	43	42	38	18,766
노원구	1,107	692	348	90	22	81	27	14	21	2,402
도봉구	419	504	301	146	27	46	12	42	22	1,519
동대문구	6,721	3,254	1,011	227	60	213	65	71	57	11,679
동작구	3,978	6,175	546	60	27	47	13	5	53	10,904
마포구	3,289	1,592	318	89	35	49	51	68	160	5,651
서대문구	3,735	986	537	123	43	64	83	27	123	5,721
서초구	684	888	98	108	36	36	9	4	31	1,894
성동구	2,468	2,781	533	191	17	31	56	44	56	6,177
성북구	5,082	1,300	860	257	29	93	91	67	59	7,838
송파구	1,143	3,683	332	101	71	30	17	11	44	5,432
양천구	789	2,043	280	129	25	22	6	6	27	3,327
영등포구	5,964	28,279	283	90	24	23	118	41	39	34,861
용산구	860	1,599	234	666	55	121	68	40	157	3,800
은평구	867	1,409	434	119	34	64	18	15	39	2,999
종로구	3,454	2,183	605	108	17	53	42	384	56	6,902
중구	2,696	2,336	359	87	18	571	51	23	27	6,168
중랑구	687	1,973	484	116	29	66	12	17	42	3,426
소계	64,676	124,724	10,406	3,483	1,003	2,064	1,031	1,049	1,295	209,731

※ 출처 : 통계청, 지역 및 연령별 등록외국인 현황 재가공, 2017.11.4.현재.

▌표 Ⅳ-4▐ 2016년 서울시 자치구별 중국국적 외국인주민 인구 및 비율

(단위: 명, %)

자치구	중국	한국계 중국인	소계	자치구 내 전체 등록외국인 인구	전체 외국인주민 대비 비율
영등포구	5,964	28,279	34,243	34,861	98.2
구로구	5,846	24,369	30,215	30,907	97.8
금천구	2,926	15,031	17,957	18,766	95.7
관악구	3,817	11,390	15,207	16,287	93.4
동작구	3,978	6,175	10,153	10,904	93.1
소계	18,553	79,069	97,622	111,725	96.5

※ 출처 : 통계청, 지역 및 연령별 등록외국인 현황 재가공, 2017.6.2.현재.

▌표 Ⅳ-5▐ 2016년 서울시 자치구별 10~24세 등록외국인 인구

(단위: 명)

자치구	10~14세	15~19세	20~24세	총계
강남구	64	104	440	608
강동구	30	54	196	280
강북구	29	76	316	421
강서구	47	87	335	469
관악구	135	328	1,373	1,836
광진구	92	764	2,820	3,676
구로구	267	328	665	1,260
금천구	119	145	337	601
노원구	19	252	717	988
도봉구	20	63	271	354
동대문구	84	1,705	5,078	6,867
동작구	59	550	2,145	2,754
마포구	141	565	2,271	2,977
서대문구	179	948	3,557	4,684
서초구	124	99	222	445
성동구	55	320	1,645	2,020
성북구	68	1,366	3,940	5,374
송파구	55	122	354	531
양천구	33	49	191	273
영등포구	327	305	591	1,223
용산구	578	423	964	1,965
은평구	70	201	344	615
종로구	97	686	2,380	3,163
중구	131	517	1,384	2,032
중랑구	51	80	293	424
소계	2,874	10,137	32,829	45,840

※ 출처 : 통계청, 지역 및 연령별 등록외국인 현황 재가공, 2017.12.28.현재.

자치구별·국적별 등록외국인 수가 많다고 하여, 그 지역에 중도입국 청소년의 비율이 높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C-3(단기종합)은 물론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H-2(방문취업), 귀화로 인한 한국 국적 취득, 영주권 등 다양한 체류신분을 가져 정확한 인구파악이 어렵다. 다만, 다수의 중도입국 청소년이 부모와 함께 살기 위하여 국내에 입국했다는 점을 상기하면, 등록외국인이 많은 지역에 그 자녀도 높은 비율로 분포되어 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중국 및 한국계 중국인의 비율이 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관악구·동작구 이 다섯 개 지역에서 서울시 전체 해당 등록외국인 인구의 58.2%를 상회하므로,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정책을 이러한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에 우선 집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3.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통계 마련의 시급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통계가 부재하여 그 인구 규모조차 가늠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서는 2015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에 기대어 '9~24세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의 최소한을 2,761명으로 보기로 하였으나, 각 지원기관과 학교에 다니는 9~24세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의 수만 하더라도 이 최소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2015년 기준으로 1년을 초과한 '외국인 입국자의 연령 및 체류자격별 장기국제이동'만 하더라도 10~24세 입국자는 41,674명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큰 수의 청소년 이동인구가 있음에도 2,761명만이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으로 분류하는 것은 경험칙상 정확하지 않다는 의심을 끌어낸다.

관련 통계의 마련은 정책을 구상하는 단계에 선행되어야 한다. 서울시가 중도입국 청소년 정책을 구성하기 전에 그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반드시 확실해져야 하므로, 현재 단계에서 관련 통계의 마련은 사안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만일 중도입국 청소년의 체류자격이 너무나 다양하고, 부모의 체류자격 변경에 따라 동반하여 변하거나,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례를 고려한다면,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의 인구 규모는 구하기 어렵게 된다. 그에 대하여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인구를 구하기 위한 차선책을 두 가지 정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첫째, 서울온드림교육센터, 레인보우스쿨, 서울시교육청, 이주다문화 청소년 관련 단체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정책구상과 그에 관련한 의견을 듣는 기회에 소속 중도입국 청소년 인구를 조사하여 그 합산을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의 최소한의 인구로 설정하는 것이다.

둘째, 외국인등록을 마친 청소년에게 서울시 차원에서 외국인청소년증을 발급해주는 방법이다. 국내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외국인에게 발급하여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조폐공사에서 발행하는 중요한 신분증으로, 외국인에게 적용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신분증보다는, 예를 들어, 현재 노원구, 강서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의 5개 시범지구 내 153개소 도서관, 문화, 체육,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서울시민카드 앱"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청소년에게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 로그인 데이터를 동의하에 수집하여 상시 인구 규모를 관리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V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체계상의 개선점

1.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 충분도
2. 동기 부여의 부족
3. 정보 제공 경로 미비
4.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정
5. 진로설계의 어려움
6. 소결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V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체계상의 개선점

중앙정부 및 서울시가 중도입국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의지를 보이며 몇몇 지원정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려움은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다. 구체적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 정책을 보충하여 실효성을 제고하지 않는 한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의 사전 전문가회의 및 착수자문회의 통해 수렴된 주요 원인은 (ⅰ) 관련 정책의 서울시 지역적 특성 반영 부족, (ⅱ)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동기 부여 필요성, (ⅲ) 정보제공 경로 미비, (ⅳ)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정, (ⅴ) 진로설계의 어려움으로 열거된다. 이를 뼈대로 하여 선행연구 및 관련 정책 검토에 따른 시사점에서 도출한 내용은 앞서 <그림 Ⅲ-2>에서 든 예시와 같이 분류된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 충분도

서울시에 소재한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은 서울온드림교육센터와 레인보우스쿨 세 곳이 대표적이다. 이를 서울시 지도에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온드림교육센터는 영등포구, 레인보우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무지개청소년센터,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화원종합사회복지관은 각각 종로구, 금천구,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Ⅴ-1▐ 서울온드림교육센터 및 서울시 소재 레인보우스쿨 지리적 환경

※ ◆ : 서울온드림교육센터
◆ : 레인보우스쿨

물론 이 지역에 등록외국인 인구가 가장 다수이다. 앞서 Ⅳ장의 <표 Ⅳ -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히 중국인과 한국계 중국인 인구가 영등포구 34,861명, 구로구 30,907명, 금천구 18,766명으로 가장 많다.

그러나 한편 동대문구, 성북구, 서대문구에 10~24세 등록외국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앞서 <표 Ⅳ - 5>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해당 자치구의 중도입국 청소년이 국내 학교, 화교학교 등 외국인 학교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글로벌센터 등에 다닐 수도 있겠으나, 학교밖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지도와 같이 서울시 중앙에 집중적으로 위치한 지원기관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 예를 들어, <표 Ⅳ - 5>에서 구한 바와 같이 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에 10~24세 등록외국인 인구가 각각 1,223명, 1,260명, 601명으로, 총 3,084명이고, 이 수치는 서울시 전체의 10~24세 등록외국인 인구의 약 6.7%이므로, 9~24세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의 최소한이 2,761명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해당 등록외국인 인구비율에 비례하여 세 개구에서 약 185명이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중도입국 청소년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재학률은 43.4%이므로(정해숙 외, 2016), 이 세 개 구에서 9~24세 서울시

학교밖 중도입국 청소년의 최소한은 185명의 56.6%인 약 105명이 된다. 그렇다면, 서울온드림교육센터의 경우 2016년 교육실적이 127명이고, 근방의 레인보우스쿨 2개소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자치구의 학교밖 중도입국 청소년은 일부에 대한 지원만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된다. 특히 일부 재학생 중도입국 청소년도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 꾸준히 지원기관에 다니고 있으므로, 서울시 서남권 지역의 중도입국 청소년만을 목표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원기관의 수나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의 중도입국 청소년이 서울온드림교육센터나 레인보우스쿨에 다니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동의 불편함이 있을뿐더러 인원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다. 20세 이상의 중도입국 청소년은 글로벌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연령을 고려한 진학 또는 취업을 위한 공부에는 적합하지 않다. 공간 확장의 필요성은 현장전문가인 전문가01 역시 동의하였다.

> (서울시에 이런 센터가 여러 군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서울글로벌센터, 서남권 글로벌센터, 동대문글로벌센터가 색깔이 있는 것처럼. 강동에서도 아이들이 엄청 오거든요. 물론 서남권에 많긴 하겠지만, 각 자치구 내 거점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더라도 공부방 형태라고 하더라도 있는 게 좋지 않을까. – 전문가01

전문가01은 글로벌센터가 서울시 내 지역별로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지원기관도 지역별로 다양한 색채로 설치될 필요성을 주장하며, 각 자치구 내 거점에 공부방 형태 정도의 지원기관 설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이 같은 지원기관은 한국어를 배우는 곳 이상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곳이니만큼, 중도입국 청소년의 주요 거주 지역 또는 놀이를 위해 자주 방문하는 지역 등을 고려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공간을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10~24세 중도입국 청소년 수가 상당한 다른 자치구, 특히 서울온드림교육센터나 레인보우스쿨과 거리가 먼 강동지역 등에 거점 형식의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들이) 풀타임으로 계속 그 센터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하루 종일 좀 있을 수 있게.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눈을 뜨면 사실상 갈 데가 없어요. 저희들이 출근이 아홉시까지인데, 보통 여덟 시, 여덟 시 반에 와요. 그러면 애들이 여덟 시 오십 분부터 와요. "너희 도대체 선생님이 만날 여기 센터에 있다고 생각하니? 왜 이렇게 일찍 와?" 이러면, "아니, 그냥 눈 떠서 왔어요."하고 와요. 검정고시 보는 애들이 세 시, 네 시에 수업이 있는데, 오늘은 한 시부터 왔어요. "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이러면, "아, 나 점심 먹고 왔어." 그래요. ... ... 사실은 여기 안 오면, 눈 떠서 PC방에 가거나 다른 데로 가는데, 일단 여기가 본인들의 둥지라고 생각하니까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안정감이 있죠. 눈 뜨면, 센터에 와서 공부를 하든, 선생님과 얘기를 하든. 친구들하고 놀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 전문가01

전문가01 역시 공간의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서울온드림교육센터의 경우 서남권 글로벌센터의 두 층을 임대하여 사용해왔는데, 맞춤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변화된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점차로 공간부족이 문제되어 왔다.

센터에 다나는 학생의 수로 공간부족을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울온드림교육센터와 달리 새로 설치하고자 앞서 주장한 공부방 형태의 거점은 예상이용인원을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재원의 투여가 헛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Ⅵ장에서 논하기로 한다.

2. 동기 부여의 부족

1) 후기 중도입국 청소년의 동기 부여 부족

현재 시행 중인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정책은 레인보우스쿨 운영과 서울온드림교육센터의 운영을 제외하고, 주로 초등학교까지의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후기 중도입국 청소년은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후기 중도입국 청소년은 특히 접근성이 매우 낮다는 특성이 있다. 일부 후기 중도입국 청소년은 진학이나 취업을 하지 않고, 부모가 주는 용돈으로 생활하며, 그들만의 집단을 형성하여 일정한 생활영역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드물다고 알려져 있다.

진학이나 취업에 대한 희망이 없는 후기 중도입국 청소년이 스스로 레인보우스쿨 또는 서울온드림교육센터 등의 기관을 찾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인다.

> 진로와 관련해서는 중도입국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떤 청소년이든 (어려움은)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니트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 청소년들하고 비율이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진로지도나 교육이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은 하지만, 다만 한 가지 문제가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성인이면서 외국인이다'(라는 점이죠). 조금 풀어야 될 것 같은 문제예요. – 공무원01

더욱이 공무원01의 말과 같이 중도입국 청소년이 외국 국적이면서 성년에 달한 경우 '성인'인 외국인으로서 중도입국으로 인한 취약성에 대한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게 된다. 체류허가기간은 더 이상 부모에 동반하지 않으며, 진학하여 유학 비자를 받거나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여 F-4 비자를 받지 않는 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후기 중도입국 청소년 역시 「청소년기본법」 상의 청소년에 해당한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입국 초기에 단기간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서 쉬는 경우도 흔하고, 부모의 무관심으로 방치되거나 돈을 벌기 위해 진학을 포기하기도 한다. 공교육에 진입하더라도 자신의 나이 또래와 동일한 학년으로 들어가기 보다는 한국어 미숙 등으로 인해 그보다 어린 학생들과 같은 반이 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사례는 입국 초기에 정확한 정보 없이 한국에 체류하기 시작하여 시간이 도과하면서 점차 자존감을 잃고 학업이나 취업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이다.

>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뭐라도 할 텐데요, 지금은 목표가 없는 것 같아요. (기술 같은 것 배우려고 생각한 적은 있어요?) 네. 생각한 적은 있는데, 뭘 배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 중도입국 청소년16

> (알고 있는) 15살 남자애가 있었어요. 이 학생도 중국에서 4학년까지 하고 와서 부모님이 모르는 거죠, 교육에 대해서. 데리고 와서 몇 년을 집에서 그냥 있었어요. 한국어가 안 되니까 늘 제자리잖아요. 아는 친구 몇 명하고 생활하니까 한국어 하나도 못하고. 그래서 한 몇 년 있다가 ○○복지관에 갔다가 ○○복지관에서도 매일 수업을 하지만... ... 연령이 초등학

교 이상이 되면 학교도 못 가고, 일반 중학교도 못 가고,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고. 그런 사례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정고시를 볼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검정고시를 대비해줬는데, 우리나라 애들은 (시험이) 6학년 수준이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한국어가 안 되니까 검정고시를 볼 수가 없어요. 중학교도 못 가니까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나이가)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 ... 그런 친구가 주위에 많아요. 구로 쪽에. 그냥 부모들이 일하느라고 아이들은 집에 있는 경우도 있고. – 전문가07

중도입국 청소년16과 전문가07은 그러한 예를 보여준다. 한국에 입국한 뒤 막상 체류허가조건과 얽혀 학교에 가기도 어렵고, 검정고시를 볼 한국어 실력도 되지 않으며, 그대로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면, 더 이상 한국에 체류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한국에서 장시간 청소년기를 보내며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한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또다시 어떤 적응을 해야 할지, 과연 이들이 본국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지 우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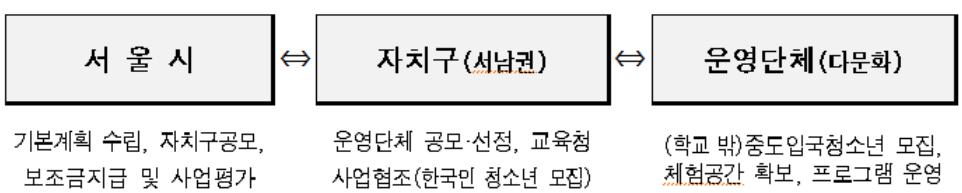
그런데 사례와 같이 점차 진학에 대한 열의를 잃고 시간만 흐름에도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사례가 본 연구의 심층면접조사에서도 여러 건 눈에 띄었다. 처음 한국에 입국에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중도입국 청소년15는 "그냥 집에 있었죠." 라고 답하였고, 중도입국 청소년05 역시 "2년은 그냥 놀았어요." 라고 답했다. 그의 경우 부모님에게 국내로 이주 후 1년간 놀겠다고 얘기하였으나 부모님이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중도입국 청소년이 스스로 지원기관을 찾고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종국에는 혼자서 그 상황을 깨고 나올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후기 중도입국 청소년을 중심으로 심리적 갈등 등으로 인해 동기 부여가 특별히 필요한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하여 동기 부여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스스로 지원기관을 찾지 않는다는 점에서 필요한 경우 아웃리치를 시행하고,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 참여자를 모집하는 활동도 이 프로그램의 일환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또래친구만들기” 사업의 개선점

2017년 최초 시행된 서울시의 “또래친구만들기” 사업은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동기 부여 프로그램으로 인식된다. 이는 한국어나 교과, 또는 취업을 위한 학습보다는 체험 위주의 놀이 또는 문화 적응을 통한 동기 부여라는 측면과 기존 정책의 개선사항으로 고려되었던 한국인 학생과의 교류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을 만족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서울시는 외국 국적의 학교밖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 사회 적응 및 교우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니트족 내지 은둔형 외톨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이에 서남권 거주 한국인 중고생 및 학교밖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 위주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3개 자치구를 선정하여 “또래친구만들기” 사업을 시행하였다. “또래친구만들기” 사업은 프로그램의 내용으로서 개별만남을 수시로 월 2회 이상 진행하고, 8~10명 내외의 모둠을 구성하여 문화, 예술, 체육, 여가활동 등 체험 중심의 커리큘럼을 선택·운영하도록 하였다. 이에 3개 자치구는 운영단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림 Ⅴ-2▐ 서울시 또래친구만들기 사업 모형 예시



※ 출처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2017년 중도입국 청소년 또래친구만들기 사업 추진계획, 2017.2., 3면 참조.

이들의 주요 활동과 인원 변동, 한국인 중고생 및 중도입국 청소년의 이탈 원인은 아래 표와 같다.

▌표 Ⅴ-1▐ 2017년 "또래친구만들기" 사업의 주요 활동과 인원변동 및 이탈 원인

자치구	주요활동	초기 인원	최종 인원	참여자의 이탈원인
A자치구	합창, 멘토링 ,캠프	한국 14명, 중도입국 8명	한국 11명, 중도입국 12명.	·한국 - 합창 활동에 대한 부담(남학생들의 경우), 낯선 친구 또는 환경에 부적응(여학생의 경우), 학업 또는 취업 준비(공통) ·중도입국 - 비자문제, 생계활동(아르바이트)
B자치구	영상, 난타, 목공	한국 25명, 중도입국 25명	한국 23명, 중도입국 17명 ※ 중도 이탈 인원을 고려, 추가 모집하여 초기와 동일하게 충원하여 종료함	·한국 - 학교나 학원 등의 일정이 많음 ·중도입국 - 학교 편입학, 모국 방문, 아르바이트 등
C자치구	미디어 제작	한국 11명, 중도입국 10명	한국 10명, 중도입국 10명 ※ 이탈자 있었으나 총 인원 유지	·한국 - 학교 일정 조절 등 개인적인 사유 ·중도입국 - 비자문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국 입국, 중복 지원

사업 초기인 만큼 몇 가지 개선해야할 사항이 드러났다. 우선 사업 시행처의 현장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참여자의 모집과 모집 인원의 지속적 참여유지가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말하였다.

모든 청소년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참가자 모집과 모집된 인원의 지속적인 참여 유지라고 생각합니다. "또래친구만들기"는 여느 청소년 분야에서도 쉽게 다루지 않는 니트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 인원 모집에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활동을 진행하면서 그 효과성은 분명 나타났다고 생각됩니다. - A자치구 "또래친구만들기" 담당자

중도입국 청소년 모집은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을 통해, 한국 청소년은 자치구 내 청소년 지원 단체를 통해 하였습니다. 한국 청소년과 중도입국 청소년의 생활 간 차이가 있어 활동 일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학기 중 평일은 불가하며, 주말도 일정이 많아 한 달에 2번 이상의 만남이 어려웠습니다. 한 달에 1회 정도의 만남을 오랜 기간 이어가는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 B자치구 "또래친구만들기" 담당자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각 기관 협조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개별만남이 활성화되기까지의 단계 관리에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예시로 보조강사가 주로 청소년들과 참여를 하다 보니 활동비 사용에 대한 개념 잡기에 소요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다음 사업은 현 사업에 비해 준비단계가 보다 길어야 할 것 같습니다. – C자치구 "또래친구만들기" 담당자

청소년 참여자를 모집하기 힘들었다는 점에서 일선에서 일하는 현장전문가조차도 후기 중도입국 청소년에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한 달에 2번에서 1번 정도의 만남으로 부담을 낮춘다거나 다음 사업의 준비단계가 보다 길기를 바라는 전문가들도 있었다. 한편으로 사업의 홍보 방식을 고민하고, 참여청소년의 수요에 좇아 적절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도 도출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중도입국 청소년과 관련한 여러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 또한 공통적이었다.

대중교통 이용(지하철 어플 사용)이나 메뉴 주문 등 꼭 필요한 경험들을 축적하면서 점점 역동적 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로 ○○구 내(특히 PC방, 당구장)에서만 머물던 중도입국 청소년들과 서울 곳곳 그리고 1박 캠프를 통해 자연환경이나 큰 도시를 경험한 점은 그들의 활동 영역을 크게 넓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 A자치구 "또래친구만들기" 담당자

실질적으로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심리적으로 안정하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였으며,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상호 간에 지속적인 연락을 하는 등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 B자치구 "또래친구만들기" 담당자

중도입국 청소년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정보 부족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많은 경험을 놓칠 수 있는데, 이번 사업이 일정부분 해소했다고 봅니다. 한국 청소년과의 교류로 인한 한국 사회 소속감 형성과 한국 청소년들의 여가생활 체험을 통해 활동영역이 확대되었습니다. 한국 청소년들에게는 중도입국 청소년 혹은 중국인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이 해소되었습니다. – C자치구 "또래친구만들기" 담당자

"또래친구만들기" 담당자들은 중도입국 청소년이 활동 영역을 넓히고, 한국인 학생 친구와 지속적으로 교육하며, 중국인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이 해소되었다고

하였다. 사업의 효과로서 기대하던 바와 같다.

다만,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운 문제로 나타났는데, 주중에는 한국 학생이 학교에 가서 늦은 시간에 돌아오고, 주말에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생계를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체류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중국으로 출국하는 것이 이들이 "또래친구만들기" 사업을 이탈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 때문에 일부 현장전문가는 다음 번 "또래친구만들기" 사업의 시행 시에 한국 청소년의 경우에도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한국 청소년과 중도입국 청소년을 1:1로 매칭하고자 한 이 사업의 본래 취지에 대해서도 10대 청소년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한 프로그램으로 비판한 견해도 있었다.

> 1대1 멘토링은 청소년 시기의 특성에 맞지 않습니다. 10대는 무리 짓기를 좋아하고, 그 안에서의 소속감을 갖기 위해 정말 무진장 애를 쓰고, 또래집단에서 인정받고 동화되는 과정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1대1 멘토링 활동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 참가 청소년들의 거부감이 상당했습니다. 때문에 1대1 멘토링 보다는 그룹별 활동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B자치구 "또래친구만들기" 담당자

1대1 멘토링이 무리짓기 좋아하는 10대들에게 무용하다는 의견을 B자치구 "또래친구만들기" 담당자가 제시하였다. 그룹별 활동으로 가능한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 중도입국 청소년 54.5%가 진로문제를 고민하는 상태로,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에 대한 탐색 혹은 교육과 관련한 콘텐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A자치구 "또래친구만들기" 담당자

> 청소년들의 관심과 흥미가 다 다릅니다. 이를 고려하여 참여자 모집 시 의견을 받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B자치구 "또래친구만들기" 담당자

> 중도입국 청소년은 재혼경험이 있는 부모의 자녀인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가정의 불안정은 심리상태에 투영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듯이 상담 콘텐츠 개발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 하기에 교육보단 양질의 취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C자치구 “또래친구만들기” 담당자

“또래친구만들기” 사업의 취지는 접근성이 매우 낮은 학교밖 중도입국 청소년과 한국 재학생 청소년을 만나게 하여 교우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학교밖 중도입국 청소년을 공교육에 진입하도록 유도하고, 서로의 언어·문화를 이해하며,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하고 건강한 세계관을 함양하는 데 있다. 그런데 각 자치구의 “또래친구만들기” 담당자가 진로체험 관련 콘텐츠, 상담 콘텐츠, 또는 사전 의견조사를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참여 청소년 내에서도 관심사가 다양하다 할 것이다.

2017년 “또래친구만들기” 사업 시행처들과 마찬가지로 향후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행처는 대체로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지원기관인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야구나 농구와 같은 팀 대항이 가능한 스포츠, 댄스 동아리 같이 발산할 수 콘텐츠, 기술교육원, 대학 내 캠프 등의 방문을 통한 진로 탐색 콘텐츠, 가까운 거리의 여행과 회화·사진 등을 통한 심리치료 콘텐츠 등 “또래친구만들기” 사업을 거듭하고 확산하면서 시행처마다 독특한 색채를 띨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 사업이 후기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동기 부여 성격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앞서 참여 청소년의 모집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시 차원에서의 적극적 홍보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정보 제공 경로 미비

1) 가족과 지인으로부터의 정보 제공

현재로선 중도입국 청소년이 처음 서울온드림교육센터 또는 레인보우스쿨과 같은 지원기관을 접하기 이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주로 정보를 제공받는 경로는 부모 또는 친척, 지인으로 정보 전달 경로가 한정적이고, 정확하지 않은 내용의 정보가 전달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심층면접조사에 응하였던 청소년들은 지원기관 정보습득의 경로가 대부분 가족이었다.

▌표 Ⅴ-2▐ 심층면접조사 대상 지원기관 정보습득 경로

사례 순번	이름	국적	체류기간	기원기관 정보습득 경로
1	중도입국 청소년01	한국계 중국	7개월	고모
2	중도입국 청소년02	우즈베키스탄	3년 4개월	아버지
3	중도입국 청소년03	한국(귀화)	1년 8개월	어머니 친구
4	중도입국 청소년04	베트남	2년 1개월	본인(학교근처에 거주)
5	중도입국 청소년05	필리핀	1년 11개월	어머니
6	중도입국 청소년06	한국계 중국	7개월	고모부
7	중도입국 청소년07	한국계 중국	7개월	삼촌
8	중도입국 청소년08	한국(귀화)	2년 11개월	어머니
9	중도입국 청소년09	한국계 중국	약 2년 3개월	어머니 친구
10	중도입국 청소년10	한국계 중국	약 5년 3개월	어머니
11	중도입국 청소년11	한국계 중국	약 5년 3개월	-
12	중도입국 청소년12	몽골	2년 9개월	어머니
13	중도입국 청소년13	한국계 중국	약 2년 4개월	-
14	중도입국 청소년14	중국	약 9개월	어머니 친구
15	중도입국 청소년15	한국계 중국	9개월	외할머니
16	중도입국 청소년16	중국	4년 1개월	어머니
17	중도입국 청소년17	러시아	3년	어머니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 정보를) 고모가 찾아줬어요. 고모가 여기 센터에 다니는 친구를 알아요. – 중도입국 청소년01

아버지가 저희를 교육청에 데려가서 '우리 아들 교육시키겠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물어서 교육청에서 여기 가서 한국어를 공부하면 된다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 중도입국 청소년02

저희 어머니가 친구 있거든요. 그 친구가 알려줘서. – 중도입국 청소년03

엄마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업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울온드림교육센터)를 알게 되었어요. – 중도입국 청소년16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진술은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다는 사실과 공식적인 정보 전달 경로가 없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단순히 친척과 가족이 알려준 정보 역시 당사자들이 어딘가에서 듣고 전달해 준 정보로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기대어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 부모님들은 학교를 보내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학교를 보내고 싶은데, 어딜 가야할지 모르니까 화교학교를 가요. 화교학교는 학력 인정이 안 돼요. – 전문가08

부모에 의해 정보를 습득한 경우에도 전문가08이 말한 바와 같이 학력 인정이 되는지의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화교학교에 보내는 사례가 발생한다. 중도입국 청소년10의 경우에도 한국에 도착하기 전 어머니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 결과 화교학교에 다니다가 이후에 어머니 친구의 자녀가 다니는 다문화예비학교로 옮기게 되었다.

> (화교학교는) 중학교는 모르겠지만, 고등학교는 (학력을) 인정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학교로 옮겼어요. (○○다문화학교는) 중국에서 엄마 친구 딸이 거기 다녔다고 들었어요. 화교학교는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엄마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나 봐요. ... ...○○고등학교는요, ○○다문화학교 학생들이 좀 많이 가잖아요. 지원서를 냈죠. 엄마, 아빠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 중도입국 청소년10

결국 중도입국 청소년10은 화교학교에 한 학기 다니다가 따돌림과 폭력을 당한 끝에 학교를 옮기게 되었다. 이후 고등학교에 지원할 때는 본인의 결정으로 ○○고등학교에 지원하게 되었는데, 이때는 ○○다문화학교에 다니면서 습득한 정보로 본인이 지원서를 낼 정도가 되었다.

이러한 정보 제공 경로의 미비는 입국하기 이전에 사전 준비과정을 거칠 수 있는지의 여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를테면, 인터넷을 통해 모국어로 설명된 중도입국 청소년의 교육지원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정도는 미리 준비할 수도 있을 것이며, 중도입국 청소년은 입국 후 긴 시간 집안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모면하고 또래친구들과 수준에 맞는 한국어교육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전달 방법에 대한 고민은 여전하다.

외국에서 들어올 때부터 한국의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예를 들면,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오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오기 전에 뭔가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모일 경우에는 어떻게든 한국에 와 있는 부모들한테 정보가 가면, 준비시키고 그럴 건데, ... 이미 외국에 있는 애들은 정보를 전달하기가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런 거에 신경을 쓰기가… 신경을 잘 안 쓰고 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런 얘기였고요.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온라인상에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나중에 하게 된다고 하면, 어땠든 나중에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는 커뮤니티가 있느냐, 이 부분은 현장에서 더 나중에, 실제로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많이 확인을 해볼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 공무원01

여성가족부 공무원은 정보를 습득할 주체를 한국에 들어올 것을 예정하고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과 그 부모로 보고 있었다. 그런데,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에는 온라인상 '어느 곳' 에 정보를 실어두어야 많이 읽힐지가 문제이고, 그 부모의 경우에는 바쁜 와중에 자녀의 입국을 위한 사전준비 정보를 찾아볼 여유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입장이든 그 부모의 입장이든 중요한 것은 필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을 통한 정보 전달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중도입국 청소년과 그 부모가 주로 가는 사이트에 당해 정보를 직접적으로 싣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정보를 정리한 사이트를 구축하고, 이를 홍보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적절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이트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도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학습 및 진로에 필요한 정보 외에도 생활이나 비자 연장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역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 질문자 :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비자를 바꾸지 않으면 체류를 못하지 않나요?
– 청소년17 : 지금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내년부터인가, 몰라요, 바꿀 수 있을 거예요.
– 질문자 : 만 18세가 되면 성인으로 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뭐, 뭐 필요한지 알아요? 서류 등.
– 청소년17 : 그때 한 번 가봤는데 모르겠어요.

- 질문자 : 어디서 안내받을지는 알죠?
- 청소년17 : 어머니가 다 알죠.

성년이 된 후에는 더 이상 부모에 동반하여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않으므로, 본인의 체류 여하 선택에 따라 준비과정이 필요하나, 이 경우 역시 정보 제공 경로로서 어머니에게 의지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 중도입국 청소년09 : (인지도가 더 높은) ○○고에 들어가면 정말 아까워요. 한국 사람들은 왜 들어가느냐 하면, 중국어 배우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 중도입국 청소년10 : (중국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중국학교 다녀서 뭐해요. 중국에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공부해야지, 중국어 배워서 뭐해요? 홍보가 필요해요. 인터넷에 많이 올리던가.

중도입국 청소년09와 중도입국 청소년10은 정확한 정보의 홍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학력인증도 잘 되지 않는 본국 소속의 학교에 다니기보다 정확한 정보를 갖고 판단하여 한국의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여야 한다며, 인터넷에 올리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오늘날 국가 간 경계를 허물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인터넷이 이용되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 청소년의 경우 위챗을 주로 이용하는 것과 같이 각 국가별로 주요 이용 사이트가 달라 인터넷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데도 요령이 필요할 수 있다. 각국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에 각각의 언어로 정보를 게재하기보다 고정적인 인터넷 사이트의 구축과 점차적인 확장의 방법, 시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의 조합이 효율적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전제되어야 할 것은, 주요 외국어 또는 쉬운 한국어로 동일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언어의 변환이 가능해야 하고, 접근성이 좋으며, 사이트를 관리할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2) 다국어 및 쉬운 한국어 안내 미비

실상 교육 또는 취업 관련 책자나 브로셔 형태의 안내서는 최초 출입국사무소를

지나올 때 또는 비자를 연장하려 관청에 들를 때에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중도입국 청소년 본인에 못지않게 그 부모의 한국어 수준도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학제 안내 등의 기본적인 내용은 영어, 중국어와 같은 주요 외국어와 사진, 그림을 다수 이용한 쉬운 한국어로 제작할 필요가 있다. 실제 일선에서는 다국어 안내서를 만들어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부모들에게 배포하기도 하였다.

> (처음 저희 기관에 올 때) 초기상담을 해요. 보통 인적사항 등 기본적인 것부터 앞으로 하고 싶은 것까지. 사는 지역, 나이, 비자 종류, 누구랑 같이 사는지, 학교에 가고 싶은지, 그래서 만약 만 스무살 미만이면 기본적으로 학교 안내가 들어가요. 중국어와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무슨 서류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 저희가 중국어와 영어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그걸 드리죠. 이 서류 준비해 오시라고. – 전문가01

전문가01은 해당 기관에 찾아오는 부모님들을 위해 중국어와 영어로 안내서를 만들어 필요한 때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의 말에서 이와 같은 안내서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중도입국 청소년과 그 부모님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었던 경험을 말하였다.

일부 중도입국 청소년의 부모는 자녀에 대한 교육정보를 미리 알지 못하고, 한국에 자녀를 데려왔으니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를 차츰 터득하게 될 것이라며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 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아 공교육에 제때 진입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자녀가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진학하고자 할 때도 기본적인 학제, 진학 절차와 입시 정보 등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여기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부모에 대해 한국의 교육제도 및 입시정보 등에 관해 안내하는 행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 한 가지 정보 제공 경로를 확보해야할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여러 원인으로 가출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부모로부터 방치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긴급한 때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이다. 현재로선 외국 국적 청소년을 위한 전용 쉼터가 마련되어있지 않으나, 일시 보호기능이 있는 쉼터 등을 이용하여 학대 등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중도입국 청소년이 간단한 한국어나 주요 외국어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전화번호 등에 대해서도 정보

제공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주체는 누가 될 것인가의 문제는 후술할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 역할 강화와도 관련이 있다. 긴급한 경우 학교 교사와 같이 관계자가 개입하여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연계기능도 강화의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아빠가 내가 알던 아빠가 아니다. 모르는 아빠다.", "아빠가 싫다, 무섭다." 그래요. 아빠가 혹시 때리느냐고 물어보니 때리진 않는대요.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부모의 케어가 잘 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케어가 되지 않는 경우 아이들이 뭘 해야 할지,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한국어 중요하지 않아.", " 중학교 안 가도 돼.", "나도 중학교 안 나왔어도 돈 잘 벌고 살아." 이러면 저희가 아무리 설득해도 아이들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한테 몇 번이나 전화를 하고, 여기 와서 이야기를 들어도 "얘가 열여섯 살인데.", "나중에 한국에서 살 건데 어떻게 하실 건가"하고 물어도 "아이고, 나는 괜찮다."고, 얘도 괜찮다고 했다고. 그런데 주변 친구들이 방학이 끝나면 다들 학교에 가버려요. 그러면 얘는 "선생님, 저도 학교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고. 난처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님들의 영향이 많이 미쳐요. 아직은 미성년자니까. ... ... 가정폭력이 발생해도 저희가 개입을 못해요. 신고가 되도, 법적으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아버님 자체가 외국인이면 경찰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고, 가처분, 접근금지명령도 내리기 어려운 거예요. ... ... 그냥 저희가 전화를 해서 "아버님 옆에만 못 오게 해주세요." 이 정도만 하는 거죠. 저희 기관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어서, 그냥 집까지 잘 데려다주고, 무슨 일 있으면 밤이라도 괜찮으니까 선생님한테 전화해라, 이 정도 말고는 해주는 게 없더라고요. – 전문가01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신속히 개입하여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험한 부모로부터 분리해줄 주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체계의 개선으로서 가장 가까이서 살펴볼 수 있는 지원기관 종사자에게도 가정폭력 사례가 명백한 경우 교사와 마찬가지의 권한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저희 (지원기관에 다니는) 아이들 중 한 명이 지하철패스를 찍었어요. 요즘에 청소년들은 티머니 이런 거 할인되잖아요. 성인용은 파란색으로 찍히는데, 노란색으로 찍혔나봐요. 그런데 역무원이 잡은 거예요. 학생증 내놓으라고. 얘가 검정고시 준비하는 애인데, 학교를 안 다니니까 학생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등록증을 보여준 거예요. 얘가 관광비자를 가지고 온 아이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외국인등록증에 만 18세 이하인 게 다 보이거든

V

요. 그런데 불법승차했다고 얘를 잡은 거예요. 제가 전화를 했더니 학생증이 없으면 할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업체, 철도청 여기저기 다 전화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규정이 없대요. 전 세계 모든 청소년이 다 (할인이) 된대요. 외국인 싫어하시는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벌금 8만 원을 내래요. 그래서 그럼 기다리고 있으라고. 지금 얘 열 시 수업인데 어떤 식으로 책임지겠느냐고. 그랬더니 애를 놔줬어요. 얘는 울고불고. 아이들과 같이 있다 보면 이런 인권침해 사례가 한두 번 있거든요. 사실 그런 인권침해에 대해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통로도 많지 않아요. – 전문가01

인권침해 사례로부터 아직까지 다문화 감수성이 낮은 현실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못 산다는 인식이 강할수록 그러한 침해사례가 잦아진다. 자신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자 지원기관에 다니는 학생을 놓아주었다는 부분에서 더욱 낮은 감수성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사례에 대비해서도 주요 외국어로 경찰, 긴급여성전화1366, 청소년상담전화 등을 적어놓을 필요가 있다.

4.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정

1) 사전 준비 없는 입국

(1) 성격의 변화

중도입국 청소년이 위축되고, 교육과 취업을 포기한 채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심리적 불안정을 해소할 수 없다는 문제로 귀결된다. 심층면접 대상이었던 중도입국 청소년들도 학교에 잘 적응한 경우조차도 본국에 있을 때와 비교하여 성격에 변화가 생겼다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성격이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활발했고, 지금은 좀 내성적이 됐어요. 좀 조심스러워요. – 중도입국 청소년01

한국 와서 제가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적응이 안 돼요. 친구도 없고요. 그냥 다 자신이 떨어져요. 답답해요. 친구하고 말하고 싶은데, 한국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답답한 적 있어요. – 중도입국 청소년13

한국에 온 이후에는 친구들도 없고, 더 내성적이 되었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과 말하는 것도 싫고. – 중도입국 청소년16

중국(본국)에 있을 때는 재미있는 사람으로 친구들한테 인정받았는데, 여기 와서는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그냥 너무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공부도 잘 못하고. 천천히 사람 사귀는 거 좋아하고. 부모님들은 이런 성격 정말 별로 안 좋다고 그래요. 심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중학교 와서 친구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한국 와서 언어가 안 돼서 또 (심리적인 안정이) 또 안 돼요.

이러한 위축감은 사전 준비 없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입국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활달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성격에서 차분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변하였는데, 대화의 맥락에서 이것이 단순히 성장하면서 생긴 변화라기보다는 한국어가 서툴렀던 시점에 위축되었던 때문으로 파악된다.

엄마가 말하기를 두세 달 놀고 돌아온다고. 근데 한국에 오니까 지금까지 눌러 앉아버렸어요. 기가 막혔어요. 많은 물건들 다 중국에 있는데... (엄마한테 중국에 가겠다고) 말했어요. (엄마가) 몇 년 지나고 한국어 배워가지고 가자고. – 중도입국 청소년07

(한국에) 처음 올 때 정말 안 좋았어요. 중국에 있으면 더 좋은데. 말도 모르고, 낯설고 그래서 다 알고 있는 친구들이랑 있는 게 더 좋은 거죠. 근데 엄마가 꼭 오라고 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건 본인이) 아니요. 그때는 엄마가 한국에 와서 방학 다 지내고 가라고 했는데요, 오니까 돌아가지 말라고 했어요. – 중도입국 청소년09

중도입국 청소년07과 중도입국 청소년09의 사례는 한국에서 거주하게 된 것이 본인의 의지조차 아니었다. 부모가 단기간 머무를 것처럼 한국에 입국하도록 한 후 떠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부모보다 친구들에게 속마음을 더 표현하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한국어 한 마디도 모르는데 학교에 들어가 앉아 있자니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수업시간 끝나면 걔네(급우들)들은 놀고, 나는 거기에 앉아만 있고. 초등학교에도 한국어 배우는 반이 있어요. 마음이 괴로웠어요. 중국에 돌아가고 싶고, 여기서 뭐하나 싶었어요. (한 학기 지나고 나서도) 계속 괴로워요. – 중도입국 청소년07

중도입국 청소년07은 계속해서 한국어 학습에서 곤란을 겪고 있었다. 학교생활의 부적응, 약속을 저버린 부모에 대한 불만 등 부정적 감정이 전반적으로 생활의 만족감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2) 진학에 필요한 서류의 미비

심리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 입국한 중도입국 청소년은 다시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힌다. 부모가 공교육 진학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 학교에 갈 수 없는 것이다.

> (한국에 들어올 때는 중학교를) 끝냈어요. 하지만 서류가 없어서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졸업은 했어요. 하지만 졸업장 나오기 전에 한국에 왔어요. ... 학교 들어갈 생각을 했어요. 서류도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졸업장 때문에. (본국에 가서 가져오면 되는데 못 갔어요.) 아빠가 너무 바빠서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우울했어요.) 네. (아빠는 '괜찮아, 너 검정고시 보면 돼.'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검정고시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 중도입국 청소년08

사전 준비 없이 진학에 필요한 서류를 챙기지도 못하고 서둘러 이루어진 이주로 인해 중도입국 청소년08은 공교육에 진입하지 못한 결과가 되었다.

> 중국에 있다가 학적을 가지고 오면 되거든요. 공통 서류가 있어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같은 거? 영사관 인증까지 가지고 오면 다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학교를. 그렇게 해야 하는데, 부모님들이 그걸 놓치는 거죠. – 전문가07

전문가07 역시 부모가 학적 관련 서류를 만들어 오는 것을 놓치는 현실을 얘기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입국 전에 학적 관련 서류 준비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부모가 알 수 있었다면, 중도입국 청소년이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커져, 부모들의 정보 습득 경로도 중요함을 나타낸다.

학적 관련 서류를 가지고 오지 못한 경우에도 교육청의 학력심의위원회에 의하여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다문화학생 학력심의 신

청 대상자를 '학령기 아동으로서 초·중등학교에 편입학 신청을 하였으나 편입학이 거부된 난민, 무연고, 제3국 출생 탈북학생 등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가정 자녀'로 제한하여 후기 중도입국 청소년이 고등학교에 편입학 하고자 하는 경우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20]

경기도의 경우 이 기준을 약간 완화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물론 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 '다문화예비학교에 83일 이상 출석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관련 과목 등 24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그러나 학력심의 대상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단위학교에 입학, 전학, 편입학이 거부된 학령기 청소년(13~18세)이고, 연간 6차에 걸쳐서 한다는 점이 서울시와 차이가 난다. 경기도에서는 다문화예비학교에 재학 중인 270명 중 공교육에 진입한 학생이 모두 87명이었다.[21] 서울시가 초·중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서만 학력심의위원회 대상으로 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후기 중도입국 청소년은 제외하는 것은 공교육으로의 진입을 방해하는 큰 요인이 되므로,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22]

2) 체류자격의 불안정

사전 준비 없는 입국은 또한 체류자격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단기종합비자(C-3)의 경우 체류허가기간이 90일에 불과하다. 체류자격이 짧은 것은 한 학기를 머무를 여유 없이 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검정고시를 볼 자격은 최소한 1년이 주어지는 방문동거비자(F-1)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

20) 교육부 외, 다문화학생 학력심의위원회 운영매뉴얼, 2014.9.

21) 경기도교육청, 보도자료, 2016.4.26.「학교 밖 다문화 청소년 공교육 진입 지원」.

22) 서울시교육청은 다문화가정 자녀 또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하여 여러 유형의 정책학교를 두고 있다. ① 다문화 유치원 6원, ② 다문화 예비학교 13교, ③ 다문화 중점학교 18교, ④ 글로벌 문화학교 16교, ⑤ 다문화학생 직업교육학교 2교, ⑥ 다문화 연구학교 2교, ⑦ 문화소통·세계시민양성모델학교 2교가 그러한 학교이다. (자세히는 http://www.xn—9d0bu9h02hkkgxeu05a5ewzx2qctvpkn.com/page/m12 2017.12.31.현재) 특히 다문화예비학교의 경우 사업의 목적으로서 중도입국학생의 학교 적응력 향상 및 취학률 제고,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초점을 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원활한 공교육 진입 지원을 두고 있다.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3개월 만에 나가요. 중국에서 비자가 안 나오면, 3개월, 4개월씩 기간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드 같은 문제가 있으면, 애들은 여기서 공부하고 싶지만 중국에 들어가야 하고, (그러면 공부를) 하지 못해요. 비용과 시간이 문제예요. 흐름이 끊기는 것도요. 언어 자체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 전문가08

전문가08은 3개월 만에 중국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한국으로 재입국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였다. 향후 한국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충분한 기간 동안 머물며 한국어를 배우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감으로써 언어학습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비용과 시간에서도 낭비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처음에 저는 여행으로 왔어요. C-3-8. 중국에 11월에 갔다 왔어요. (비자 때문에요.) (지금은) F-1. (체류기간은) 아빠랑 같아요. (F-1이면 C-3보다는 장기체류가 가능해서 본국에 왔다갔다할 필요는 없어요.) C-3-8이면 여기서 시험 볼 수 없어요. 검정고시는 최소 F-1이어야 해요. – 중도입국 청소년01

중도입국 청소년01은 90일을 체류한 후에 부모의 체류자격에 따라 F-1으로 변경이 되었다. 그에 따라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으로 늘었고,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엄마가 영주권이 있는 경우에도 아이가 19살인가…… 어느 정도가 되면, 공부를 못하고 되돌아가야 된대요. 안 그러면 불법체류가 된대요. 그런 애들한테는 충분히 설명을 해요. 그래도 다니려면 서명을 해야 돼요. 중간에 갑자기 학교에다가 재학증명서 떼서 한국에 계속 남게 해달라고 하는 게 우리 학교는 안 돼요. 얘네가 (학제에) 딱 맞게 중학교 졸업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한 1-2년 방치되어 있다가 오기 때문에 나이가 이미 여기 학생보다 더 많은 상태니까. 이제 3학년이 되면, 나이가 초과되니까 불법체류가 되잖아요. 그럴 땐 좀 안타깝죠. – 전문가03

학교에 다니는 학생인 경우 체류기간이 도과하더라도 그 학습과정이 끝나기 전까지 기간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보여준다.

비자문제를 고려해줬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 비자가 H-2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얘도 할 수 없이 돌아가야 돼요. 부모님의 체류자격이 2년이 되어야 우리 학교 학생이라는 증명을 갖고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중간에 돌아가면, 얘네도 돌아가야 돼요. 아니면 얘가 혼자서 F-4 자격증을 따야만 해요.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 전문가04

특히 부모의 체류자격에 동반하여 자녀의 체류자격도 변하거나 체류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미성년의 중도입국 청소년으로서는 역시 자신이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F-4 체류자격을 따야 한다.

이는 또한 외국인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지금도 좀 안타까운 게, 우리 몽골학교 지금 2학기 중간이잖아요. 두 달 있으면 졸업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학생 부모들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유학생 부모가 3월까지 비자가 끝나는 분이 많은 거예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 지금 3월 31일까지 비자인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번 달에도 몇 명이나 본국에 돌아가요. (부모의 비자가) 연장이 안 돼서요. 한두 달만 버티면 여기서 마치고 갈 수 있는데. 본국에서도 고3이 되면 (학적 관련 업무를) 멈춰요. 졸업 전 몇 개월 전에 막고, 이 안에 변동이 안 된다는 규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3월 말까지 있다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제 가면 (본국에 있는) 학교도 받아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 전문가05

외국인학교 교사인 전문가05는 불과 두 달여의 체류허가기간이 모자라 한국에 머무를 수도, 본국에 돌아가 학교를 다닐 수도 없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사정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01은 법무부와의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중도입국 청소년이 90일만 체류할 자격이 있는 경우) 외국인하고 하나도 다른 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체류자격이 어떻게든지 개선이 되어야 하고, 만약에 이제 중도입국 청소년 문제를 다문화 청소년처럼 끌고 가야 한다면 그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핵심 현안이 아닌가... ...다만 법무부가 조금, 예전에도 법무부가 굉장히 완강하다고 하더라고요.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를 테니까. 법무부에서는 그 외국인을 관리하고 체류신분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의 문제가 있으니까, 법무부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는지는 진행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현안은 그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 ...18세 넘어서 들어오는 애들은 어떻게 못하는 것 같고, 18세 미만의 애들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C-3로 들어와도 어느 정도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비자가 변경되지 않는 고등학교 과정이나 직업훈련 받는 애들, 그런 청소년에 한해서 그 과정이 끝날 때까지는 일단은 90일 만에 나가지 않아도 되게 해달라는 건 협의가 되지 않을까. 내부적으로는 그 정도 선에서. – 공무원01

이는 중앙정부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대표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서울시 차원에서는 체류유예의 가능성은 공교육에 진입한 중도입국 청소년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서울온드림교육센터나 레인보우스쿨과 같이 교육 중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한 학기가 끝날 때까지 체류유예를 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및 법무부와의 협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방안이 필요하다.

3) 학교밖 중도입국 청소년의 일과 관리 어려움

중도입국 청소년이 다양한 이유로 학교밖 청소년으로 생활하는 경우 청소년에게는 일과 관리의 어려움이 생기기도 한다. 이는 심리적 위축감과 맞물려 중도입국 청소년의 니트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전문가01은 학교밖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자꾸만 할 일을 만들어주기도 하였다.

오전에는 그저 10시쯤 일어나요. 12시 넘어서 자요. (일어난 다음엔) 정리하고, 오후 1시에 센터에서 수업 받고. – 중도입국 청소년01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요. 10시쯤. 화요일하고 금요일은 조금 일찍 수업 시작해요. 세 시부터 여섯 시까지 세 시간. 월수목은 두 시부터 네 시까지 두 시간. – 중도입국 청소년08

통상 학교밖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기상시간은 오전 늦게이다. 전문가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이런 상태로 오래 지내게 되면서 공교육에 진입했을 때도 버릇대로 계속 지각을 하여 걱정을 사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하였다.

학교밖 아이들은 주로 오전부터 세 시 전까지. 공간이 부족하니까. 학교밖 아이들은 생활이 느슨해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전으로 수업을 잡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전으로 수업을 잡아요. 이 중에서 한국어가 되고, 한국에서 계속 살아갈 의지나 공부할 의지가 있는 친구들은 검정고시반으로 네 시부터 여섯 시까지. 이 친구들이 한 시부터 세 시까지 한국어를

하고, 네 시부터 여섯 시까지는 검정고시 수업을 하고, 학교밖 아이들은 학교안 아이들처럼 뭔가 다양한 것을 경험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따로 진로체험이라는 걸 통해서, 외부 연결을 통하기도 하고, 4월에 계획 중인 게 구로청소년수련관인데, 네 개 정도의 진로체험이 가능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것도 경험해보고, 저것도 경험해보고. – 전문가01

경우에 따라 학교밖 청소년은 검정고시를 일부러 택하기도 하지만, 학교에 진학하기까지 한국어 교육을 받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대개 1년~1년 반 정도이다. 중도입국 청소년이 이 기간 동안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잊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진학 또는 취업의 목표를 잊지 않도록 일과 관리에 대해 가르칠 필요가 있다.

4) 가족해체경험과 지지기반의 부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대부분 가족해체를 오랫동안 경험했다. 입국 전 부모가 먼저 한국에 와 일을 하는 기간 동안 조부모 또는 친척의 집에서 살다가 부모와 함께 지낼 수 있다는 희망으로 입국하였으나, 맞벌이로 바쁜 부모에게서 방치되는 경우처럼 가족해체경험과 지속의 사례가 종종 나타난다. 이는 지지기반이 부실하다는 문제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일을 고민하고 결정할 때 가족에게 말하지 않거나 지지받지 못하는 현상이 면접조사 결과 발견되었다.

▌표 V-3▐ 심층면접조사 대상 가족해체 경험 및 기간

사례 순번	이름	국적	체류기간	가족해체 경험 및 기간
1	중도입국 청소년01	한국계 중국	7개월	아버지와 수년 간 떨어져 지냄. 현재는 어머니와 떨어져 지냄.
2	중도입국 청소년02	우즈베키스탄	3년 4개월	부모님이 한국에서 사업을 해 조부모와 지냈음.
3	중도입국 청소년03	한국(귀화)	1년 8개월	11년 전 어머니의 재혼으로 떨어져 지냄. 친부와 5년 동안 함께 살다가 외조부모와 지냄.
4	중도입국 청소년04	베트남	2년 1개월	어머니의 재혼으로 떨어져 지냄. 어머니의 초청으로 입국.
5	중도입국 청소년05	필리핀	1년 11개월	-

사례 순번	이름	국적	체류기간	가족해체 경험 및 기간
6	중도입국 청소년06	한국계 중국	7개월	아버지가 일을 하기 위해 먼저 입국하였고, 후에 모든 가족이 이사 옴.
7	중도입국 청소년07	한국계 중국	7개월	아버지가 일을 하기 위해 입국하였고, 후에 엄마와 자신이 이사 옴.
8	중도입국 청소년08	한국(귀화)	2년 11개월	아버지만 사업상 먼저 입국해 재혼함. 친모는 어릴 대 돌아가셔서 심리적으로 힘들었음.
9	중도입국 청소년09	한국계 중국	약 2년 3개월	아버지, 어머니가 순차적으로 입국. 11살에 헤어졌다가 2년 3개월 전 한국에 입국하여 같이 살게 됨.
10	중도입국 청소년10	한국계 중국	약 5년 3개월	부모가 한국에서 일하여 외조모가 키워줌.
11	중도입국 청소년11	한국계 중국	약 5년 3개월	부모가 한국에서 일하여 13살에 헤어짐. 조모와 함께 지냄.
12	중도입국 청소년12	몽골	2년 9개월	어머니가 먼저 입국. 5-6살 때였음. 외조부모와 함께 살다가 자신도 학업 차 한국에 따라옴.
13	중도입국 청소년13	한국계 중국	약 2년 4개월	아버지가 한국에서 일함. 어머니도 자신이 중학교 때 일하러 한국에 감. 외조부모와 3년을 지냄.
14	중도입국 청소년14	중국	약 9개월	6-7살에 어머니가 한국에 일하러 감.
15	중도입국 청소년15	한국계 중국	9개월	어머니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사업함.
16	중도입국 청소년16	중국	4년 1개월	어머니가 재혼으로 한국에 입국함. 외조부모와 생활하다가 돌아가신 후에 이모와 생활함.
17	중도입국 청소년17	러시아	3년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한국에서 일함. 4학년 때 데리러 옴.

가족이 해체되어 있는 동안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외조부모, 또는 다른 친척과 함께 지내다가 한국에서 부모를 다시 만난다. 다시 만난 뒤에도 가족해체의 기억은 오랫동안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

질문자 – 여기는 가족이 같이 오게 됐어요?
중도입국 청소년01 – 아빠만 오고, 어머니는 중국에 있어요. 아빠는 온 지 몇 년 됐어요.
질문자 – 일하러 오셨어요?
중도입국 청소년01 – 네. (비자는) H-2.
질문자 – 아빠 혼자 오셨어요?
중도입국 청소년01 - 네.
질문자 –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중도입국 청소년01 – 아빠가 없는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도입국 청소년01의 경우는 아버지가 한국으로 일하러 간 동안에 깊은 상실감을 느껴 마치 '아빠가 없는 아이' 처럼 느껴졌다고 표현하였다.

엄마하고만 친하고, 아빠와의 관계가 좀 안 좋아요. (아빠가) 엄격한 게 아니고요, 너무나 오랫동안 못 봐서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랑은 같이 살았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방학마다 집에 와서 같이 있었고. 그때 아버지는 한국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집에 있었어요. – 중도입국 청소년09

중도입국 청소년09는 어릴 때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기억으로 인해 18세인 현재도 서먹한 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몇 년 떨어져 지내면 이혼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그래서 엄마랑만 사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면, 엄마, 아빠, 둘 다 여기에 왔어요. 돈 벌기 위해서. 몇 년 있다가 아이를 데려온 거예요. 애들은 친척집에 있다가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서로 떨어져있었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서로 잘 모르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살다가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거나 하면, 아이들도 마음적으로 힘든 문제들도 있고. – 전문가05

부모와 수년간 떨어져 지낸 경험은 중도입국 청소년이 신체적·정서적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친부모라 하더라도 중도입국 청소년은 부모와의 연대감을 덜 느끼게 되고, 오히려 연대감이 높았던 다른 가족, 예를 들어 함께 살았던 조부모가 돌아가시면 그로 인한 상실감을 깊게 느끼게 된다.

- 질문자 : 부모에 대한 생각이나, 이모에 대한 생각은 어땠어요?
- 중도입국 청소년16 : 처음에 외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 ...이모집에 있을 땐 자기(우리) 집이 아니니까...

중도입국 청소년16은 11세경에 어머니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면서 한국에 입국한 후 외조부모와 함께 살다가 이후 이모의 가족과 함께 지냈다. 어머니가 생활비를 보내고, 수시로 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입국 청소년16은 자신의 가족과 집이 아니라는 사실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음을 짧은 답변에서 얻어낼 수 있었다.

질문자 – 지금 혹시 고민하는 것이 있어요?
중도입국 청소년01 – 검정고시 시험이요.
질문자 – 일 년에 몇 번 봐요?
중도입국 청소년01 – 두 번이요. 12월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3개월 됐어요. 국어는 괜찮아요.
질문자 – 그리고 나서 토픽 시험 보려고?
중도입국 청소년01 – 아니요. 지금은 한국어 조금 더 배워야 돼요.
질문자 – 이런 결정할 때 본인이 알아서 많이 해요? 아니면 아빠랑 고모랑 많이 논의해요?
중도입국 청소년01 – 혼자서 많이 생각해요.

엄마는 몰라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친구로 알려져 있지만, 엄마한테는 보여준 적이 없어서. 이상해요. 엄마 앞에서 말이 안 나와요. 친구들한테는 말할 수 있는데, 엄마, 아빠한테는 되게 깊게 말할 수 없더라고. 깊게 말하면 걱정하고 그러니까. – 중도입국 청소년13

그냥 생각을 안 해요. – 중도입국 청소년12

가족과의 서먹한 관계는 진로에 관한 고민이 생겼을 때도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생각하는 경향을 읽을 수 있다. 또, 부모보다 또래친구와의 대화가 수월하며, 부모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는 심리도 표현하였다.

- 질문자 : 한국에 와서 누구누구랑 살아요?
- 중도입국 청소년15 :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랑.
- 질문자 : 엄마, 아빠는 어디에 있어요?
- 중도입국 청소년15 : 엄마는 (사업상 중국, 한국을) 왔다갔다. 아빠는 전공(電工)이예요.
- 질문자 : 할머니는 무슨 일 하세요?
- 중도입국 청소년15 : 베이비시터. 왔다갔다.

중도입국 청소년15의 경우 현재 외조부모와 부모가 함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가족구성원이 모두 일로 인해 단기간만 집에 머무르고 있었다. 중도입국 청소년15는 형식상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외조부모와 부모가 정확히 어떤 사업 또는 일을 하는지 알지 못했고,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한 상태로 잘 만나지 않으며, 형제자매가 없는 외동이었다. 본국에 있을 때는 현재보다 가족을 더 만나기가 어렵고, 학교에 다니면서 늦은 밤까지 과외 선생님과 공부하는 일정을 보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적음에도 현재가 더 낫다고 생각했다.

> 한국계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이 있긴 있는데, 같이 살진 않아요.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빠는 지방에서 돈을 벌고, 본인은 혼자 아파트에. – 전문가01

> 엄마가 재혼하면서 거의 애를 데려온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엔 한국인 아빠가 애를 입양하더라고요. 사이가 안 좋아지면 “파양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애들이 걱정인 거죠. 특히 한족 아이들은 파양을 하면 돌아가야 되니까 빨리 국적을 따야 해서 귀화시험을 봐요. 작년 학생은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 엄마가 재혼한 남편과 다투기도 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본인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얘가 빨리 귀화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한족이다보니까 정말 한국어가 빨리 늘지 않아요. 면접시험에 가면 대답을 못하죠. 그래서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몇 급 정도 한국어를 따면 그게 된대요. 얘는 여기 예비반에서도 배우지만, 또 주말에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 전문가03

전문가03의 말처럼 재혼가정의 계부가 입양하였으나 파양시킬까봐 걱정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파양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중도입국 청소년은 하루빨리 귀화시험을 치러 독립적으로 체류의 안정성을 갖고자 하는 바람이 있다. 또, 어머니의 재혼 상태가 평탄하지 못한 경우 중도입국 청소년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 부모님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나오는 불안감이 있고요, 이 불안감은 아이들이나 후기 청소년이나 동일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부모님들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한국어도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해요. 심리적 지원이 같이 따라오지 않으면 성과가 안 나올 거예요. – 전문가08

전문가08은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낸 경험이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불안감을 형성하고, 부모의 방임 아래 치유되지 못해, 심리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심리를 치유·회복시키고 지지기반을 새로이 형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도출된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열악한 경제적 환경과 한국어 미숙으로 인해 화성, 평택 같이 근무지가 먼 한부모는 어쩔 수 없이 그룹홈이나 지역아동센터에 자녀를 맡기기도 한다. 이 자녀들에게 가족해체는 한국에서조차 현재진행이 된다.

> 가정이 굉장히 열악해요. 저희도(위탁형 대안학교) 3학년 11명인데, 편모, 편부가 거의 반이에요. 결손가정이 많아요. 엄마랑 살던지, 아빠랑 살던지, 이혼가정도 많고. ... ... 부모님 퇴근하기 전에 그런 아이들은 계속 혼자 있죠. 교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하니까 직업이 서비스도 있고, 서울 인근에 많아요. 한국어가 안 되는 한족이라든지 다른 외국분들은 한국어가 안 되면 서울 시내에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서비스업 하기가 어려우니까 제조로 많이 가요. 제조로 가면 서울에는 또 제조업이 없잖아요. 그런 경기도 화성, 평택, 그런 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다니고, 늦게 오거나 그런 분들도 많고. 저희가 재단에 그룹홈이 있어요. ○동에 있는데, 무료로 운영을 해요. 그룹홈에는 부모님들과 살 수 없는 아이들. 아예 두 분 다 지방에 가셔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면 부모가 없는 가정, 그런 아이들. 그룹홈에서 아이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 여기 보내주고 그러죠. – 전문가07

전문가07은 부모의 한국어 실력과 직장 선택이 자녀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대부분의 제조업은 서울을 벗어난 위성도시에 위치해 있어, 출근이 이르고, 퇴근이 늦는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고, 자녀를 돌볼 수 없는 환경에 처한다.

> 거기(지역아동센터) 가기 전에는 늘 그랬어요. 늘 이 근처에서 배외하고 라면. 편의점에서. 늘 라면 먹고, 아침도 못 먹고. 아침에 눈 뜨면 엄마가 없고, 엄마가 알람해서 깨우면 지각하고 그래요. 저녁 되도, 집에 가도 아무도 없으면, 10시, 11시까지 혼자 핸드폰하고. 근데 아직 어리니까 그렇지, 얘네들이 5, 6학년 되면, 중학생 되면, 정말 문제잖아요. 센터에 그래서 보내는 거죠. 학교 끝나면 바로 센터 가서 할 거 하고, 저녁까지 먹고, 집에 오면 한 7시 정도. 두세 시간 있으면 엄마가 오고. 지금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 전문가07

전문가07은 계속해서 부모가 제대로 돌볼 수 없는 환경에서 자녀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아동의 사례를 들고 있으나, 이는 중학생,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중도입국 청소년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에게 지원기관은 가족해체의 상황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개념화된다.

또 한편, 부모의 입장에서는 서로 떨어져 지내면서 자녀가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녀를 좀 더 일찍 데려올 수 없었는지 의문이 든다.

> 딸이 중국에서 한창 공부하고 있었으니까요. 고등학교 졸업 후 데려오려고요. 어려서부터 제가 좀 엄격하게 키웠어요. (내가) 일본에 간 후 어려서 엄격하게 교육했던 것이 습관이 된 건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 ...(중학교 졸업하고 데려올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오면, 중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국에 오면, 여기 와서 대학교도 다닐 수 있고, 중학교 졸업하고 오면, 한국어도 모르고 여기 와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입시시험을 보게 했는데, 안산 사범대학에 붙었는데, 못 가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범대학을 다니면 가치가 없어요. 어차피 한국에 올 건데. 딸도 한국에 오고 싶어 했고, 저도 어차피 딸을 책임져야 하니까. – 학부모02

학부모02는 자녀의 진학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등학교 졸업 후 한국인 재혼 배우자의 초청을 통해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오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자녀가 한국의 대학에 안정적으로 다니게 되기 전까지 1년 정도의 공백이 발생했는데, 이 기간 동안 단기비자로 들어온 자녀는 다문화지원센터 등을 통해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거의 없었다.

(1년 공백 기간 동안 중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했죠. 3개월 있다 가고, 있는 동안에 저를 도와 어린 여동생을 돌봐주고 그랬죠. 시간이 있으면, 공장일도 도와주고 그랬어요. (1년 동안은 한국어를 배우러 다니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두 번 갔는데. 외국인등록증이 없으면 교육을 받을 수 없대요. 그래서 못 갔어요. – 학부모02

자녀는 심리적으로 불만과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으나, 달리 해소시킬 방법을 찾은 것 같지는 않다. 다행히 한국의 대학교 어학당을 들어가게 되면서 심리적 안정을 되찾았으나,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본래의 꿈을 포기하게 될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공장에 와서 2개월 정도 일했나... 처음에 왔을 땐 괜찮았는데, 일 도와주고, 돈 벌고 하니 달리 생각을 안 했는데, 2개월이 된 후에 엄마, 나 그럼 이렇게 일만 해야 되냐고. 이런 일은 자기한테 맞지 않다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엄마도 네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한다. 임시적으로 하는 거지, 대학교 들어갈 방법을 아직 못 찾았으니까. 계속 찾아보면서 일하는 거지. 그래서 처음엔 큰 딸애도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 ...한동안 우울했었어요. 지금은 그 시기가 지났지만. 드디어 학교에 가니까 마음이 안정됐어요. – 학부모02

학부모01의 경우는 자녀의 의사도 나중에는 '한국에서 살겠다'로 바뀌어 큰 갈등이 없었다. 그러나 자녀의 의사가 다름에도 미성년일 때 간이귀화를 밀어붙인 학부모01의 경우는 아직도 '아이한테 의사를 물어봤는지?'의 질문을 제일 싫어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제일 싫은 질문이에요. 당시에 엄마가 (한국에) 왔는데, 왜 나까지 끌고 오는가 하고. 그냥, 얘도 잘 모르니까, 안 물어봤어요. 자기도 아직 미성년이고, 엄마가 지켜줘야 되고, 그냥 엄

마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지.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정착이 힘들어요. 사실 애가 두 번 마음에 상처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처음에 부모가 이혼하는 거 자체가 애한테 상처인데, 엄마가 타국에 왔어. 와서 바로 애를 데리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좀 정착해야 애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애한테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와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주변에 아는 친구도 없고, 외로운 데다가 또 엄마가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돼. 지금 생각하니 사실 애한테 너무 미안한 거죠. – 학부모01

한국에 온 이후 답답해서 자살 같은 것도 생각나고. 마음이 괴롭고. 엄마, 아빠가 나를 욕할 때, 귀에 거슬리는 말로 욕할 때, 마음이 답답하고, 공부 끝나고 핸드폰 조금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본다고 욕하고. 핸드폰을 땅에 내리친 적도 있어요. 속수무책이죠. – 중도입국 청소년07

학부모01은 미성년의 중도입국 청소년이 부모의 뜻에 따라 정착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부담에 대해 미안함과 우려를 표하였다. 중도입국 청소년07은 타의에 의하여 한국에 입국한 사례인데, 부모에 대한 원망의 감정이 무척 강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대화가 필요하지만, 맞벌이 등으로 바쁜 부모는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없고, 자녀는 부모를 지지기반으로 느끼지 못하여 자신의 문제와 감정을 얘기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중도입국 청소년은 가족해체경험 및 지속, 부모가 지지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 자의에 의해 입국한 것이 아닌 상황에 대한 불만과 부모의 통제 등에 대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여기서 심리상담 등을 통한 지원의 필요성이 또한 나타나게 된다.

5) 경제적 어려움

중도입국 청소년은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심리적 불안정을 일으키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심층면접조사 대상인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본국에서보다 국가에 따른 경제규모의 차이에 의해 소비 규모가 커지거나 소비 성향이 세졌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용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교육비 부담으로 일찌감치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후기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는 대학 학비는 자신이 책임질 수 있다

며, 부모 도움을 거절하였다고 말한 경우도 있었으나, 대화 중 본인의 거절로 해석하기보다는 어머니와 결혼한 계부가 교육비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통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 중도입국 청소년 중에는 교육비가 무료가 아니었다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취업 또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용돈을) 주기는 줘요. 제 손에 돈이 있어서 잘 안 줘요. 친척들 오면 돈 주고... 한 달에 10만 원 아니면 15만 원. 쇼핑하고, 친구들하고 놀러가고, 먹을 것 사고... 이건 용돈이고, 교통비는 다 아빠가 줘요. – 중도입국 청소년01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교육과정이 외국인한테 좀 무료였으면 좋겠어요. 등록금 3개월은 50만 원 정도. 그런데 저는 외국 사람이고, 동생이 세 명이나 있으니까 점점 (교육비가) 늘어가는 거예요. – 중도입국 청소년02

학교 다니면서 부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엄마가) 보내주고 싶지 않았는데, 학교가 무료라는 걸 알고 보내줬어요. – 중도입국 청소년02

중도입국 청소년의 부모님은 학교가 무료라는 사실을 알고 보내주기도 하였다. 만약 무료가 아니라 등록금을 내는 곳이었다면, 공교육에 진입하는 대신 검정고시를 보거나, 그도 아니면 일찌감치 취업하여 생계에 보탬이 되는 길을 택할 가능성도 있었음을 나타낸다.

(대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일을 한 이유는) 처음에 이 집을 새로 샀는데,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처음엔 대학교 공부도 많이 하고 싶었는데, 가정형편이 안 좋아서. – 중도입국 청소년03

중도입국 청소년03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해 베트남에서 주재원으로 지낸 경력이 있었다. 10개월 간 주재원 여섯 명 중 유일하게 베트남 말을 하고, 또한 유일하게 여성이었던지라 불편한 점이 많았고, 체력적으로 힘에 부쳤던 직업이었다. 중도입국 청소년03의 꿈은 회사 사무직으로, 대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했는데, 등록금을 스스로 벌기 위해 1년 정도 일하고 싶다고 하였다.

저희 아빠는 제가 대학교 가는 데 안 도와주겠다고. 벌써 말했어요. 내 생각에는 지금 성인이 됐으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다. 아빠 도움 없어도 괜찮다. – 중도입국 청소년03

특히 이 사례의 경우 계부는 대학교 등록금을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 하였는데, 중도입국 청소년이 이를 수긍하고 성인이 된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한다. 실제 학자금 대출 등의 방법이 있으나, 대학교 등록금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 현실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이 혼자 이를 감당하기란 보통 일이 아니리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5. 진로설계의 어려움

1) 교육전문가 부재

학교밖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학과 관련하여 관련 지원기관에 교육전문가가 거의 없다. 대학입시의 외국인전형 등 중도입국 청소년에 특화된 정보뿐 아니라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교육전문가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다. 정보 전달 경로가 한정적이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받을 우려마저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특성화고에 진학할 것인지, 다솜고등학교나 서울관광고에 진학할 것인지, 외국어 고등학교 가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지망하면 될 것인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등을 알기 어렵다.

이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진로계획을 세우고, 향후 성취하고자 하는 꿈 또는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이다. 특히 대입을 바라보고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요령이나 다솜고등학교 같은 경우 학생 모집이 어려워 모집 요건을 완화하였다는 사실 등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학문제를 잘 알고 있는 교육전문가를 양성하거나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보통 일반 고등학교보다 특성화고등학교를 많이 가요. 중학교는 일반을 그냥 가는데, 고등학교는 특성화고에 진입을 시키는 편이에요.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도 좋고, 대학 가지도 좋

고. 일반 고등학교는 수능을 보고 대학 가야 되잖아요. 특성화고는 최소한 자격증을 따기도 하니까. 한국 아이들도 특성화고 가기 어렵거든요. 옛날하고 다르게 인문고보다는 컴퓨터, 예체능, 상고 같은 데가 경쟁률이 더 세기 때문에, 수시 모집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넣거나 특성화고를 가요. 한국국적이라도 상관없어요. 그건 조사해보면 되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거 알아봐줘야 되는데 못 해요. 그래서 저희가 증명을 해줘요. 사실상 고입, 대입을 준비하는 거죠. – 전문가01

다솜고등학교나 서울관광고등학교는 저희한테 무척 우호적이시기도 하고, 아이들 보내줘서 고맙다고 하세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다솜고등학교를 가려는 아이들도 있지만, 가지 말라는 아이들도 있어요. 한국말을 잘 하기 때문에 굳이 다솜고등학교로 갈 필요가 없다. 우기고 간 아이들은 분명히 일 년 안에 후회를 해요. 다솜은 갑종 학교로 분류되서 일반학교로 전학이 안 돼요. 전학하려면 아예 자퇴를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가면 1, 2년 꿀리게 되기 때문에... – 전문가02

중도입국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진로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주는 일을 현재는 지원기관 종사자들이 도맡아 하고 있는데, 특성화고, 다솜고등학교와 같은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유리한 학교를 소개해주고 있다.

처음에는 구로고등학교를 다니려고 했는데, 여기 선생님이 알려주셔서 특성화학교를 다니기로 했어요. 자격증도 따고, 취업도 할 수 있고. (지금 전공은) 좋아요. – 중도입국 청소년15

중도입국 청소년15는 특성화고에 다니게 된 자체에 대하여 대단히 만족하는 편이었다. 본국에 있을 때는 한국에 와서 고등학교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줄 몰랐으나, 지원기관을 통해 각종 정보를 듣고, 지원기관의 종사자들로부터 진로지도를 받아 선택하였다. 본인의 의사와 합치하는 방향으로 진학을 하여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은 사례로 평가되나, 일반 고등학교로의 안내가 기피될 우려는 존재한다.

중도입국 청소년15와 달리 중도입국 청소년14는 다솜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컴퓨터를 전공하고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전공이 아니고, 학교 내의 다른 전공도 원하지 않아 고등학교에 다니는 이유는 졸업장을 따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하며 불만족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11월인가 12월인가 (다솜고등학교) 모집공고가 있었어요. 저희 엄마랑 여기 센터(지원기관)에서 도와주셔서 신청했어요. ... ...면접시험이 주요해요. 그 전에 학교 몇 번 찾아갔었고.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 통과되고, 입학하고, 학교에서 한국어 시험 한 번 보고, 교복 맞추고 그랬죠.
엄마는 본인이 화장품 팔잖아요. 나보고 여행사 하나 꾸리래요. 화장품 판매랑 같이 세팅해서요. 어쨌든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전공은) 컴퓨터요. 컴퓨터 배우기 싫지만 할 수 없어요. 엄마가 가라니까 가는 거죠. 졸업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엄마 뜻은 공부 좀 더 하고, 그리고 이 학교에서도 전공 하나는 배우니까, 다 배우고 나서 쓸모없어도, 배우면 자기 것이 되니까 이걸로 쓸지 안 쓸지는 내 몫인 거죠. ... ... 제 생각엔 대학교 가면 학교에서 다닐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배우고 싶은 거 배울 거예요. ... ...저보고 아이들이나 노인들을 데리고 여행 다니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예요. 경제인이 되고 싶어요. 혹은 한국의 PD가 되고 싶고. – 중도입국 청소년14

중도입국 청소년14는 경제 분야에서 일하거나 방송PD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이러한 희망을 고려하여 필요한 학교를 가지 못했다. 어머니의 희망에 따라 다솜고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어머니는 여행가이드와 같은 직업을 중도입국 청소년14가 하길 바라고 있었다. 희망진로에 대해 어머니와 중도입국 청소년14 간에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중도입국 청소년13도 마찬가지였다. 외국어고등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한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입학이 되지 않고, 그 때문에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다고 말한다.

처음엔 외국어고등학교 생각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한국 학교는 자신이 없어서 생각도 안했어요. 근데 후에 서류 때문에. F-1이잖아요. 외국어고등학교에 못 들어가요. 국적 없으면. ... ...그만두고 중국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받아줘요. 친구들 따라가고 싶은데. 한국에서도 학교 안 되고, 중국에 가서도 학교 안 되고. 그땐 진짜 너무 속상했어요. 이 학교 못 다니는 건 아닌지. 힘들었어요. 여기 센터(지원기관)에서 지금 학교 추천해줬어요. – 중도입국 청소년13

특히 중도입국 청소년13의 경우는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학교를 알아본 뒤 본인의 결정을 존중해주었고, 지지하고 설득해 줄 친구가 곁에 있었다는 점이 학교 선택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처음엔 진짜 가기 싫었어요. 근데 학교 가기 전에 중국 갔다 왔어요. 중국에 갔는데, 그냥 포기하고 학교 가기 싫다, 검정고시 하고 싶다고 했더니, 친구가 나한테 카페에 가서 다섯 시간 말했어요. 일단 학교 가보라고, 학교에 다니는 것이 배우는 게 더 많다고. 잘 생각해서 지금 좋은 거 하지 말고, 이 후를 생각하라고. ... ... 그냥 나한테 학교 꼭 가라, 안 가면 안 본다. 그러면서 심하게 말했어요. 좋게 말하면 안 된다고. 나보고 꼭 가라고. 그래서 그러면 가볼까 했는데 진짜 좋아졌어요. – 중도입국 청소년13

결과적으로 중도입국 청소년 본인들이 만족하게 되었으나, 지원기관에 진로상담을 해줄 교육전문가가 있어 학교별로 요구하는 복잡다단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진로희망을 존중받으며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추천받았다면,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조속한 시일 내에 되도록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중도입국 청소년13은 진로상담과 심리치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학교 진로 상담. 학교 어디 갈지 정말 걱정 많았어요. 아빠, 엄마도 걱정 많이 하고, (나는) 말할 수도 없고. 심리적 치료(도 필요해요). 근데 한국어가 잘 안 돼서 말 못하고, 그냥 답답해서. 중국어(모국어)로 심리치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중도입국 청소년13

대입의 경우는 진로상담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에 중도입국 청소년의 체류자격이 외국인특별전형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지원하는 대학별·전공별 요구하는 요건과 인재상은 어떠한지, 수학능력시험과 토픽 준비는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 등에 관한 사항을 잘 알고, 변화하는 입시환경에 관한 정보력을 갖춘 종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예산 측면에서 충분한 정보력을 갖춘 진로상담 전문가를 개별 지원기관에서 고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여기(외국인학교) 졸업하면 다시 본국에 돌아가 수능시험 보는 애들도 생겼어요. 그 아이들 수능시험도 준비시켜야 하고, 예를 들어, 고려대학교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고려대학교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받으면 들어가기 쉬운 거예요.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서울대학교에 맞는 교육을 받는데, 여기는 저한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 전문가05

사정은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서울시 소재 외국인학교 교사인 전문가05는 학생들의 입시와 진로가 자신의 역량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2) 한국어 심화 학습 부재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생활에 언제나 중요하다. 한국어 실력이 좋지 않다는 사실 자체가 공교육에 진입하기 어려운 장벽으로 작용하고, 공교육에 진입하더라도 이탈하기 쉬운 원인이 된다.

(한국 학교에 안 다니는 이유는) 어렵잖아요, 한국말을 잘 못해서. 얘기하는 건 잘 하죠. 그런데 수업할 때는 잘 못해요. – 중도입국 청소년05

(한국어 한 마디도 모르는데 학교에 들어가 반에 앉아 있자니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수업 시간 끝나면 걔네(급우)들은 놀고, 나는 거기에 앉아만 있고. – 중도입국 청소년06

언어가 따라가지 못해요. – 중도입국 청소년07

심층면접조사 대상이었던 중도입국 청소년의 대부분은 한국어를 잘 구사하는 편이었다. 서울온드림교육센터 등의 지원기관 종사자에 따르면, 6개월 정도의 학습으로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어가 부족하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할 필요가 있다.

심층면접조사 대상인 학교 재학생 중도입국 청소년 두 명은 학교에 다니면서도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의 한국어 수업 또는 멘토링을 지속하고 있었다. 단기간에 수료할 수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의 한국어 수업은 기초적인 대화 정도를 할 수 있을 정도에 그쳐 명백히 내용이 한 차원 높은 학습용 또는 취업용으로 심화된 한국어 수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온드림교육센터의 경우 중도입국 청소년의 필요에 따라 심화과정을 설치하였으나, 그러한 심화과정을 거치는 사례는 매우 적었다. 특유한 발음 또한 한국인 또래들에게 따돌림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이다.

다솜관광고에 다니면서 ○○한국어센터에서 한국어공부를 병행하고 있어요. – 중도입국 청소년03

어떤 날에는 서울온드림교육센터에서 따로 한국어를 배워요. 1대1로 멘토를 붙인 거예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멘토는 대학원생. 오늘 수업은 2대1. 학생 두 명에 선생님 한 명이에요. – 중도입국 청소년02

두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고등학교를 재학하면서 계속해서 지원기관을 통해 한국어 공부를 하였는데, 맞춤식 배움을 통해 학교생활을 큰 어려움 없이 해내고 있었다. 한국어 실력이 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요건으로서도 중요하나, 학교생활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임을 나타낸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예비학교의 교육 내용에서 좀 더 확인될 수 있다.

한국어라면 생활한국어와 교과 한국어 단계가 있는데, (서울시 지원기관의 경우) 교과 한국어까지는 가지 않죠. ... ... 그런데 교육과정을 교육부에서 짤 때는 생활한국어 단계, 예를 들면, '어디에서 왔어요?' '이름이 뭐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게 다가 아니고 교과 한국어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까지가 KSL이거든요. 교과 한국어는 말 그대로 과학용어들을 배우고, 사회용어들을 배우는 건데, 거기서는 그런 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 전문가06

전문가06은 다문화예비학교의 교사로서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과 과정인 KSL(한국어 교과과정; Korean as a Second Language)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교과 한국어에 등장하는 용어를 학습하는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교육학에서 지향하는 '다문화 문식성'의 개념은 문자를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에서 나아가 두 문화 이상의 문화적 다양성을 전제로 2문화 이상의 기호와 세계의 존재에 대한 객관적 이해, 각각의 문화 속에서 소통되는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텍스트를 해석하고 비판하는 능력, 다문화적 상황에서 텍스트 생산과 발표, 유통 등 소통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서혁, 2011).

이러한 다문화 문식성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달리 공부

에 흥미가 없는 중도입국 청소년에 모두에 대하여 어려운 어휘를 가르칠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

> 아무리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어 공부를 한다고 해도 주류에 부합되는 애들은 100명 중 5명? 대학을 갈 수 있는 친구는 그 정도일 거예요. ... ... 한국인들은 한국어가 모국어여도 힘들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이 다 대학입시를 위한 교육이에요. ... ...학교 수업 자체가 애들이 중도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대입준비가 고등학교부터 시작되고, (대입준비가) 생활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학교 가는 게 흥미가 없고, 한국어가 안 되니까 다른 학교 수업도 안 듣게 되고, 학교를 안 가고 밖으로 돌게 되는 거죠. – 전문가08

전문가08은 입시교육에 치중되어 있는 학교 교육 자체가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학교 공부를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비판하였다. 기본적인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더라도 학습에 필요한 한국어수준이 되지 않는 경우 알아들을 수가 없어 학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며, 굳이 진학에 흥미가 없는 중도입국 청소년에게까지 대입준비를 위한 교육을 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 (언어수준의) 지향점이 꼭 같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수련관엔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안 다니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다 있어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몇 명 안 돼요. 그 학생들은 여기에 올 필요성도 없고, 부모님들도 학업에 더 중요성을 둬서 여기에 못 가게 해요. 학교 공부 더 열심히 하라고. 사실 그 친구들은 학교 공부도 따라가지 못해요. – 전문가08

전문가08은 또한 학교에 다니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에도 학교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굳이 모든 중도입국 청소년의 언어구사수준 지향점이 같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의 사용은 언어 능력을 전제로 하는 사고 과정이라는 점에서 학습의 필요가 크고,[23] 학습 부진은 생활용어에는 문제가 없으나 학습에서의 어휘 부족 등의 문제가 원인인 경우가 있으며, 한국어 심화학습에서도 반드시 대입을 위한 어휘를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과정에서 필요한 기초적인 어휘를 가르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므로, 공교육에 진입하거나 검정고

23) Basic 고교생을 위한 국어 용어사전, 신원문화사, 2006.11.

시를 통해 학력을 인증 받고자 하는 경우,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되도록 한국어 심화학습을 통해 어휘를 풍부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취업의 경우도 심화학습은 필요하다. 18세 이상의 중도입국 청소년은 진학할 수 있는 공교육기관은 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때 고등학교에 다시 갈 수 있는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진학이 아니라 기술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그 기반이 된 것은 한국어이기 때문이다.

> 나이가 좀 있는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너 기술교육 가라.' (한다고 되지 않아요.) 한국어를 못하니까 못 따라 가요. 그러니까 한국어 기반의 교육을 받으면서 책무성이 있는 학교라는 곳에서 공부를 하면서, 또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다면 학력 인증될 수 있는 교육을 하면서 기술교육도 겸하는 것, 이게 저는 제일 타당하다고 봐요. – 전문가06

다문화예비학교 교사로서 전문가06은 기술교육을 위한 기반도 한국어 실력으로 보고 있다. 기술교육을 위해서도 해당분야의 전문용어가 사용되고, 중도입국 청소년은 역시 생소한 어휘를 받아들여야 해당 기술교육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발음은 모국어를 배우면서 형성된 습관으로 인해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특히 중국이나 한국계 중국 출신의 경우 한국어를 구사하는 중에도 특유의 발음이 섞여 차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꼬부랑 소리가 심해서. 발음이 좀 이상해요. 사람들이 발음을 잘 못 알아들어요. (중학교) 거기에 다행히 초등학교 때 사귄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 덕분에 많이 버텼는데, 거기도 똑같았어요. 발음문제 때문에. 선생님도 중국에서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 배려도 안 해주니까. 친구들은 막 어쩌고 저쩌고.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싸웠죠. – 중도입국 청소년11

따라서 발음의 교정이 의외로 학교 안에서의 사회통합에 큰 역할을 차지할 수 있다.

한편, 면접조사 과정에서 한국 학교에 재학 중인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학교 수업을 마친 후 장소를 옮기지 않고 학교 내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길 바라는 정책 수요를 수렴할 수 있었다.

학교 내에서 다문화선생님이 옆에서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수학(공부)할 때 어떤 언어는 모르겠어요. – 중도입국 청소년15

3)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의 어려움

직업교육과 취업연계의 어려움은 현 상황에서 국내의 청소년에게도 마찬가지이겠으나 중도입국 청소년에게는 더욱 취약한 문제이다.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취업일 거예요. ... ...중국에서 온 아이들 한국에 와서 취업이 제일 어려워요. 언어가 좋아야 하고, 두 번째는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 학부모02

학부모02의 말처럼 중도입국 청소년이 학업을 마친 후에는 취업을 해야 하지만, 한국어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하고, 취업할 수 있는 직종도 현재로선 범위가 넓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취업쪽으로 전문적으로 학교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다솜고등학교도 직업학교이긴 한데, 관광, 컴퓨터만 있으니까) 사실 전공이 너무 적어요. 내가 관광 전공하기 싫고, 말하기 싫은데, 요리도 하기 싫고. 근데 전라도 거기는 미용만 있는 거예요. 나 미용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좀 단순한 거죠. (전공이) 좀 다양했으면. ... ...(서울온드림교육센터는) 맨 공부하는 거잖아요. 나는 중도입국 자녀들은 진로를 취업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더 공부시키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따라갈 것 같아. – 학부모01

학부모01은 교육청 소속의 다솜고등학교나 서울관광고등학교와 같이 졸업 후 취업을 계획하게 되는 학교는 전공과목이 너무 적어 중도입국 청소년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직업교육과 취업연계의 측면에서 기존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들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 바리스타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직업교육의 내용이 한정적이고, 이미 노동시장에서 포화상태인 직업으로 분류된다. 실용적이고, 당사자인 청소년의 욕구가 반영된 직업교육, 특히 이중언어 등

중도입국 청소년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직업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온드림교육센터와 같은 지원기관은 이러한 직업교육을 할 수 있는 곳에 연계하거나 자격증 취득에 유리한 학교로 진학을 권유, 또는 취업관련 정보의 전달 경로로 기능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직접적인 직업교육 또는 취업연계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적극적인 확대가 바람직한지의 문제가 있다.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에서도 상술한 직업교육 외에 중도입국 청소년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다만, 후기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공교육으로의 진입은 대학교로만이 가능하므로,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후기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하여서는 기술 교육의 연계, 직업과 관련된 한국어심화학습 등의 서비스 제공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취업연계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은 다음과 같다. 이를테면, 노동부를 통해 정식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와 취업연계에서의 형평이 그러한 문제로 논의되는 한 가지이다.

> 노동부쪽 입장은, 노동부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한국어도 실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고, 개인적인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준비된), 그 나라에서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데, 지금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학력을 제대로 취득을 못하고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들어온 애들이 아니라 중도입국 청소년들. 이들은 중간에 들어와서 18세가 넘어서 성인이 됐으면, 체류자격 같은 부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데, 스펙이나 아니면 근로자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게 오히려 더 떨어진다. 그런 측면도 있어서 오히려 문제가 꼬이는 측면도 있어 보이더라고요. – 공무원01

공무원01은 한국어 실력과 학력 등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이 외국인 근로자에 비해 수준이 낮아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해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직업교육과 취업연계를 시행할 경우 업무능력이 더 뛰어난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에 불리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주로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한국에 입국해 성장한 중도입국 청소년과 일자리를 찾아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공무원01이 말하는 노동부쪽 입장이 타당한 근거를 가지려면,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업무역량이 모자란 채 취업연계를 원하는 경우여야 한다. 또, 고용을 원하는 업체의 입장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우리나라의 사정을 경험적으로 보다 잘 알고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 역량이 뛰어나다고 일반화할 수 없어 중도입국 청소년이 취업연계 서비스를 받아 취업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6. 소결

이 장에서는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의 구체적 내용과 주요 원인을 살펴보았다. 특정 자치구에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이 형성되어 있고, 중국국적 외국인주민이 많은 서울시 지역적 특성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이 해당 인구 규모와 지리적 거리의 측면에서 충분한지, 후기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해 동기 부여 정책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그 개선사항은 무엇인지, 정보 제공은 어떤 경로로 할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정의 원인으로서 사전 준비 없는 입국, 체류자격의 불안정, 가족해체의 경험과 지지기반의 부실 등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교육전문가가 없어 진로설계를 하기가 어렵고, 한국어 심화과정이 없으며, 직업교육과 취업 연계가 어려운 점 등의 문제에 대하여도 짚어보았다.

본질적으로 동기부여로부터 직업교육-취업연계 또는 상급학교로의 진학까지 모든 지원을 극소수의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에서 모두 소화할 수 없다는 데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의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으로는 수행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온드림교육센터의 경우 100여 명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현장전문가들이 1:1로 전담하기란 역부족이다. 더구나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공교육에 진입시키거나 취업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탈하는 경우와 같이 사후적 관리가 필요한 사례도 발생한다. 결국 점점 늘어나는

중도입국 청소년 이용자를 성장시키기 위하여서는 외연과 내실의 확장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확장은 소수의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 자체를 확장하는 것으로 해결하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로서는 중도입국 청소년 인구 규모, 거주 지역, 체류 자격 등에 대한 통계를 구할 수 없으므로, 되도록 기존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과 거리가 먼 지역 중 10~24세 등록외국인 인구가 많은 지역에 공부방 형태의 거점을 마련하고, 학교·청소년수련관·서울온드림교육센터 등에서 중복적으로 맡고 있는 동기부여-진로설계-직업교육-취업연계 또는 동기부여-진로설계-진학의 단계를 하나로 엮어주는 허브 기능을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장에서는 여기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기하기로 한다.

VI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개선 방안

1. 서울시에 대한 정책 제안
2.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 제안
3. 소결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Ⅵ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개선 방안

1. 서울시에 대한 정책 제안

1) 서울시 지역적 특성 반영

(1) 지역 내 중도입국 청소년 인구 비례 거점 마련

① 10~24세 중도입국 청소년 밀집지역 내 소규모 거점 마련

기존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은 지리적으로 서울시 서남권과 중심권에 몰려었다. 지리적 거리가 멀어 그곳까지 오지 못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해 지역 내 거점이 필요하고, 이는 공부방 형태부터 청소년수련관, 서울온드림교육센터와 같은 형태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거점은 지역 내 중도입국 청소년 인구에 비례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선행하여 적어도 자치구별 중도입국 청소년 인구의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로선 중도입국 청소년 인구의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등록외국인 체류 현황과 그 중 9~24세 체류자격별 외국인 현황에 의한 통계적 추정과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 프로그램에 참여자 규모를 통한 경험적 추정에 우선 기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시의 경우 10~24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6년 자

치구별 외국인주민 인구 중 특히 중국 국적의 외국인주민이 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관악구>동작구 순으로 나타났다. 또, 10~24세 등록외국인 인구는 동대문구>성북구>서대문구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 지역에는 서울외국인학교 등이 있고, 몽골과 베트남 국적 청소년의 수도 상당하나 여전히 중국 국적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관악구/동작구, 동대문구/성북구/서대문구를 하나의 구역으로 보아 자치구청의 조력을 받아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이 지역에 거주 중인 중도입국 청소년 인구 규모를 추정하고, 인구 비례에 적합한 방식으로 거점을 설치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만약 공부방 형태의 거점이 마련된다면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서비스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서울온드림교육센터의 서브허브 내지 위성 역할로서 교류를 통해 동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 학교밖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통상적인 공부방에서는 낮 시간에 초등학생, 오후 5~6시경 이후 중고생으로 하여 10~30명 규모로 학생을 받는 것과는 형태가 다를 수 있다. 이를테면,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 각 반을 15~20명 규모로 하고, 오전에는 한국어 기초반과 심화반을, 오후에는 교과학습 및 검정고시 대비반을 운영하며, 정기적으로 체육과 문화탐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커리큘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공부방 형태의 거점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는 없고, 각 거점의 형태에 다양한 커리큘럼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관악구/동작구, 동대문구/성북구/서대문구 지역 외에는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시설로서 서울시 청소년 수련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치구 차원에서 예를 들어, 중도입국 청소년 "또래친구만들기" 사업 모형과 유사하게 운영단체의 신청을 받아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중도입국 청소년으로 구성된 동아리를 조직하고, 학습 또는 문화 활동 등 여러 목적의 운영하여 거점 역할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반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자치구 단위에서 거점이 마련되면, 거점끼리의 소통채널을 마련하여 정책 추진 상황 등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독일 JMD(Jugendmigrationsdienste in Deuschtland)의 사례

현재 서울온드림교육센터는 서울시로부터 공간을 제공받고, 현대정몽구재단으로부터 예산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공간의 위치가 서남권글로벌센터의 두 층을 확보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서울온드림교육센터만으로는 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 내의 중도입국 청소년을 담당하기에 규모가 작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므로, 공간의 확보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독일 JMD(Jugentmigrantionsdienste in Deutshcland)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JMD는 독일 내 450개 이상 기관의 연합이며, 12~27세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개인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프로그램이나 전문적 상담을 통해 학습, 직업, 사회적 통합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베를린 한 곳만 하더라도 16곳의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이는 단일한 기관의 사무소가 아니라 기독교공동체(Evangelische Trägergruppe), 자유공동체(Freie Trägergruppe), 가톨릭공동체(Katholische Trägergruppe), 노동자복지협회(Arbeiterwholfahrt) 소속 사무소의 연합이다. 이와 같이 관련 단체의 연합을 통해 교류하고 이주배경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에 따라 연계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이주배경 청소년을 사회통합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림 Ⅵ-1▐ 독일 JMD 사례

※ 출처 : https://www.jugendmigrationsdienste.de/ 2017.12.31. 현재 참조.

(2)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의 허브 역할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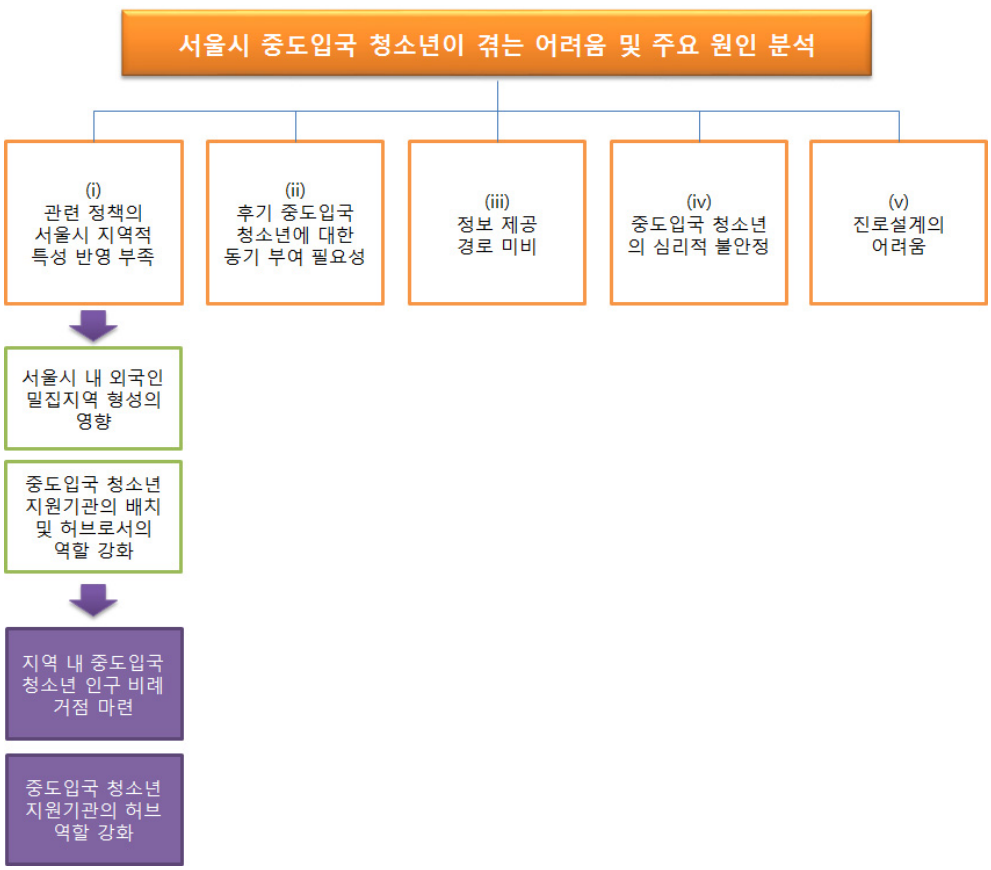
중도입국 청소년이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적합한 모델은 실상 '학교'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학교에서는 입시경쟁과 성적 위주로 학업에만 매진하여 중도입국 청소년의 애로사항을 고려할 수 있는 교사 또는 또래친구들이 많지 않다. 여기서는 적정한 '학교'의 관념을 언급한 것으로서, 학생에게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게 연계해주는 허브 역할의 강화를 뜻하였다.

이를테면, 서울온드림교육센터는 단순히 무료로 한국어 교육과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기관이 아니다. 현재도 동 센터에 처음 온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해 초기상담을 진행하여 진학 및 취업 희망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사를 연계할 수도 있고, 교육 중 체류허가기간을 유예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소에 요청을 할 수도 있는 등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허브로서 언제라도 관련기관에 연계가 가능하도록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중도입국 청소년 담당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온드림교육센터와 같은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 담당자를 지정하여 교육청, 학교, 청소년수련관 등 복지시설, 상담시설 등과의 연계 체계를 구성하고,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또, 이를 준비하기 위해 각 기관의 담당자가 모여 TF를 구성하여 1분기 1회 정도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각 분기별 중점사항, 예를 들어, 편·입학, 고입·대입 진로상담 또는 취업상담, 입시 대비, 심리 상담, 청소년 관련 행사, 졸업 등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이 체계 안에 외국인학교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본래 외국인 학교의 경우 자체적으로 본국의 지원이나 학생들로부터 받는 학비로 운영하여야 하나, 일부 외국인학교, 예를 들어, 재한몽골학교, 화교학교의 경우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다니고 있다. 학교 차원에 대한 지원은 현행 체계상 어렵다 하더라도, 심리상담, 보건의료를 위한 인력의 비상시적 파견 등의 조치는 서울시 차원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Ⅵ-2▐ 허브로서의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

▌그림 Ⅵ-3▐ 관련 정책의 서울시 지역적 특성 반영 부족에 대한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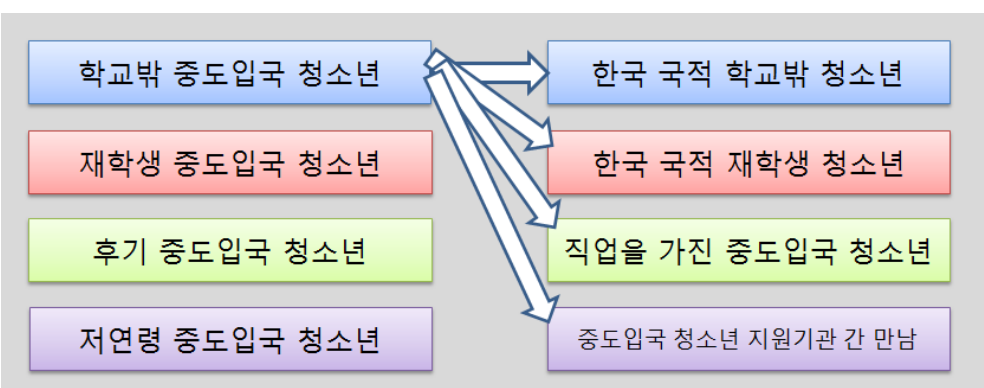


2) 동기부여 프로그램의 개발과 핵심역량 강화

(1) “또래친구만들기” 사업의 개선방안

앞서 동기부여 프로그램으로서 서울시의 “또래친구만들기” 사업에 관하여 논하였다. 이 연구의 조사과정에서 2017년 최초 시행된 서울시의 “또래친구만들기” 사업의 몇 가지 개선점을 발견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첫째, 중도입국 청소년과 만날 한국 청소년은 어떤 청소년이 적절한가의 문제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요컨대, 이 사업에 참여하였던 한국 청소년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주중에는 학교 공부로 시간이 없고, 주말에 시간이 있는 집단이다. 반면, 중도입국 청소년은 주말에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아 만남을 지속하기가 어렵다. 일부 현장전문가는 한국 청소년도 학교밖 청소년으로 할 것을 권하였으나, 또래친구만들기 사업의 취지 중 하나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공교육 진입 유도이고, 한국의 학교밖 청소년 역시 학업을 포기한 것은 아니어서 자신의 시간을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러나 중도입국 청소년이 다양한 집단의 한국 청소년을 만나본다는 점에서 학교밖 청소년인 한국 청소년을 만나보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내지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 청소년들이 체험학습으로서 주중에 시간을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어떤 답을 내려 중도입국 청소년이 어떤 특정 집단의 한국 청소년을 만난다고 하기 보다는, 참여 청소년의 범위를 열어놓고 이질적 특성의 다양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그림 Ⅵ-4▐ 서울시 “또래친구만들기” 대상 청소년 예시



둘째, 동기 부여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도 “또래친구만들기”가 각 시행처에 따라 진로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심리적 안정에 초점을 맞추었는가 등에 따라 다채로운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야구나 농구와 같은 팀 대항이 가능한 스포츠, 댄스 동아리 같이 발산할 수 있는 콘텐츠, 기술교육원, 대학 내 캠프 등의 방문을 통한 진로 탐색 콘텐츠, 가까운 거리의 여행과 회화·사진 등을 통한 심리치료 콘텐츠 등 “또래친구만들기” 사업을 거듭하고 확산하면서 시행처마다 독특한 색채를 띨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만남 횟수의 경우 “또래친구만들기”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은 매칭 당사자가 어떤 집단인가에 따라 중도입국 청소년과의 만남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결정되므로, 매칭 당사자 집단의 선정 시 2017년 운영하였던 바와 같이 최소 2주 1번 정도의 만남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그보다 만남의 횟수가 적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캠프와 같이 장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홍보의 방식으로는 “또래친구만들기”운영주체의 브로셔, 팜플렛 정도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접근성이 매우 낮은 집단이므로,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 편의점, PC방 등에 팜플렛 정도를 배부, 부착하고, 중도입국 청소년이 전년도에 제작하였던 미디어제작물 등을 지역방송에 송출하는 등 홍보의 방식을 다변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홍보는 서울시 담당자가 일괄 담당하는 것이 대규모 홍보를 위하여 유리할 것이다.

(2)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① 동일 국적 멘토링 마련

중도입국 청소년의 동기부여를 위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동일 국적이거나 과거에 동일 국적이었고, 현재는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는 멘토를 붙여 멘토링을 시행하는 것이다.

(멘토링은) 같은 나라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한국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같은 나라 형이고, 누나면, 더 통하지 않을까. 저 애의 경험을 보면, 그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결혼이민자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엄마한테 끌려온 느낌. 엄마의 행복을 위해 왜 나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사실 중도입국 자녀 중 좀 갈등이 생기는 애들이 다 그런 생각이에요. 엄마는 사랑한다고 (한국에) 오지만, 왜 나까지 이렇게 고생시키는가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 ...애가 불쌍하죠. 그렇지만 말을 못하는 거야. 말하면 얘가 집을 나가면 어떻게 할까 걱정도 되고. ... ...(우리 애가 알바하면서 만난 형은) 유학생으로, 박사 공부하는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알바하면서 많이 소통이 된 것 같아요. 그 분도 다행히 한국을 많이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 학부모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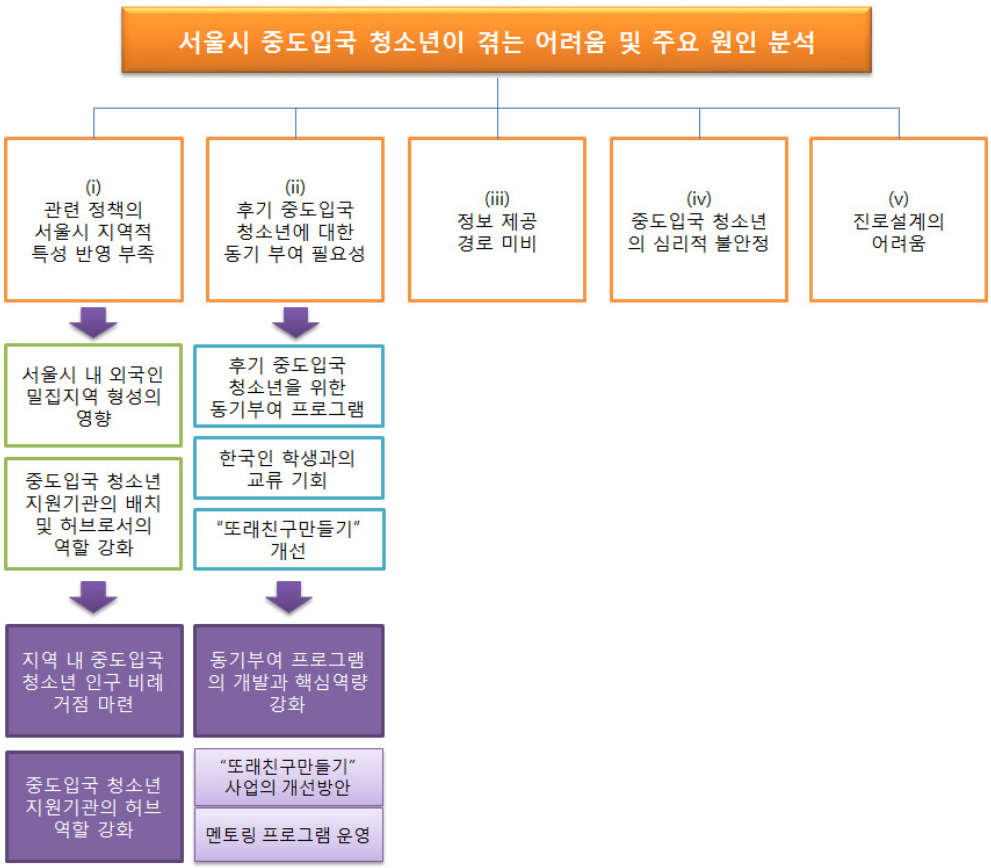
학부모01도 자녀의 경험에 미루어 같은 언어를 쓰는 멘토가 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동일 국적 멘토링의 경우는 한국어가 미숙하거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느끼는 저연령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심리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동일 지원기관을 이용하였던 선배 중도입국 청소년과 현재 지원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 간에 멘토링 매칭도 가능할 것이다.

② 대학생 - 중도입국 청소년 멘토링 마련

대학생 – 중도입국 청소년 간 멘토링 프로그램은 서울온드림교육센터와 같은 곳에서 이미 일부 이용되고 있다. 서울시가 독보적으로 많이 보유한 자원에는 대학이 있으므로, 대학 내 사회봉사센터와 연계하여 대학생 자원봉사와 중도입국 청소년 간 멘토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업으로 진로상담, 정서적 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교육 진입 유도와 한국 사회와 문화 체험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또래친구만들기” 사업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이 낯선 사람 또는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감지된 사실과 같이, 1:1 매칭 보다는 이질적인 언어와 문화로부터 발생하는 충격의 완화와 감정적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생 1명에 중도입국 청소년 2-3명 정도의 구성과 함께 활동비 편성이 적절한 구조라고 판단된다.

▌그림 Ⅵ-5▐ 후기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동기부여 프로그램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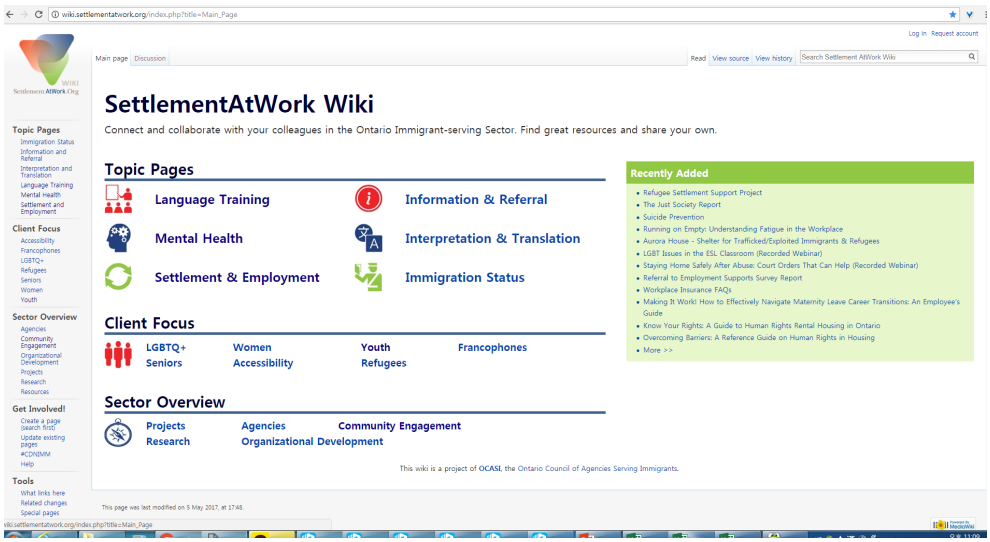
3) 정보 제공 경로 확보 및 상시 접근 체계 마련

(1) 공식적 정보 제공 경로 조성

서울온드림교육센터, 각 자치구의 청소년수련관 등 물리적인 장소에서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정보를 항시 제공할 수 있도록 경로를 확보하고, 다국어 및 쉬운 한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 구축을 통해 정보접근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정보 전달 경로를 공식적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구축방법에 대하여는 해외사례 중 캐나다의 SettlementAtWork Wiki 홈페이지(wiki.settelmentatwork.org)를 참고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 홈페이지는 이주민청의 온타리오 의회(OCAI; the Ontario Council of Agencies Serving Immigrants)의 프로젝트로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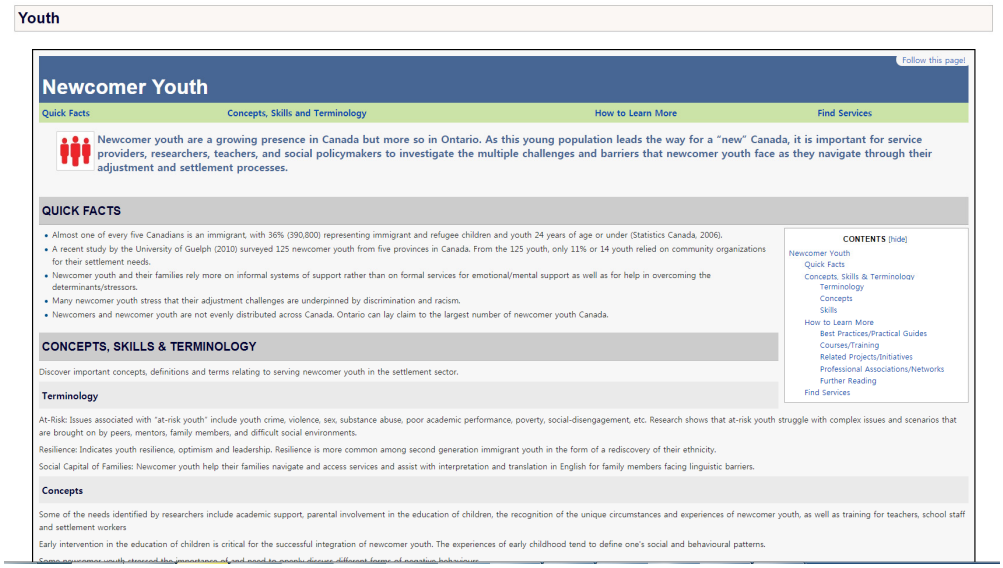
▌그림 Ⅵ-6▐ 캐나다 온타리오 지역의 이주민 분야에 관한 SettlementAtWork Wiki



※ 출처 : http://wiki.settlementatwork.org/index.php?title=Main_Page 2017.12.19. 현재

이 홈페이지에서 Client Foucus의 '청소년(Youth)'를 클릭하면, 청소년 이주민에 관련된 현황 안내와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관해 안내하고 있다(http://wiki.settlementatwork.org/index.php?title=Youth 참조). 이 홈페이지에서는 특히 지원 서비스의 기능(Skills)에 관하여 청소년들의 요구사항과 그 외 고려사항을 적고 있는데, 일종의 매뉴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학교는 이주민 청소년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장소임을 설명하고, 청소년들의 요구사항으로서 ① 개인과 집단 수준의 강력한 교육 지원, ② 교육에 대한 가족과 지역사회 개입을 위한 광범위한 지원, ③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기관과 단체에서 민족-인종적 정체성을 위한 비교 문화적인(cross-cultural) 이해와 존중을 들고 있다.

▌그림 Ⅵ-7▐ 캐나다 온타리오 지역의 이주민 분야에 관한 SettlementAtWork Wiki 중 청소년에 관한 내용



Youth

Follow this page!

Newcomer Youth

Quick Facts | Concepts, Skills and Terminology | How to Learn More | Find Services

Newcomer youth are a growing presence in Canada but more so in Ontario. As this young population leads the way for a "new" Canada, it is important for service providers, researchers, teachers, and social policymakers to investigate the multiple challenges and barriers that newcomer youth face as they navigate through their adjustment and settlement processes.

QUICK FACTS

- Almost one of every five Canadians is an immigrant, with 36% (390,800) representing immigrant and refugee children and youth 24 years of age or under (Statistics Canada, 2006).
- A recent study by the University of Guelph (2010) surveyed 125 newcomer youth from five provinces in Canada. From the 125 youth, only 11% or 14 youth relied on community organizations for their settlement needs.
- Newcomer youth and their families rely more on informal systems of support rather than on formal services for emotional/mental support as well as for help in overcoming the determinants/stressors.
- Many newcomer youth stress that their adjustment challenges are underpinned by discrimination and racism.
- Newcomers and newcomer youth are not evenly distributed across Canada. Ontario can lay claim to the largest number of newcomer youth Canada.

CONTENTS [hide]

Newcomer Youth
Quick Facts
Concepts, Skills & Terminology
Terminology
Concepts
Skills
How to Learn More
Best Practices/Practical Guides
Courses/Training
Related Projects/Initiatives
Professional Associations/Networks
Further Reading
Find Services

CONCEPTS, SKILLS & TERMINOLOGY

Discover important concepts, definitions and terms relating to serving newcomer youth in the settlement sector.

Terminology

At-Risk: Issues associated with "at-risk youth" include youth crime, violence, sex, substance abuse, poor academic performance, poverty, social-disengagement, etc. Research shows that at-risk youth struggle with complex issues and scenarios that are brought on by peers, mentors, family members, and difficult social environments.

Resilience: Indicates youth resilience, optimism and leadership. Resilience is more common among second generation immigrant youth in the form of a rediscovery of their ethnicity.

Social Capital of Families: Newcomer youth help their families navigate and access services and assist with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in English for family members facing linguistic barriers.

Concepts

Some of the needs identified by researchers include academic support, parental involvement in the education of children, the recognition of the unique circumstances and experiences of newcomer youth, as well as training for teachers, school staff and settlement workers

Early intervention in the education of children is critical for the successful integration of newcomer youth. The experiences of early childhood tend to define one's social and behavioural patterns.

※ 출처 : http://wiki.settlementatwork.org/index.php?title=Youth 2017.12.19. 현재

▌표 Ⅵ-1▐ 캐나다 SettlementAtWork Wiki의 내용 중 청소년의 요구사항

[청소년들의 요구사항] ① 개인과 집단 수준의 강력한 교육 지원 ② 교육에 대한 가족과 지역사회 개입을 위한 광범위한 지원 ③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기관과 단체에서 민족-인종적 정체성을 위한 비교 문화적인(cross-cultural) 이해와 존중
※ 출처 : http://wiki.settlementatwork.org/index.php?title=Youth 2017.12.29. 현재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사이트를 개설하여 중도입국 청소년이 경험하는 특수한 상황과 그에 대한 고려사항을 제공함으로써 일반시민의 이해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과 관련하여 강조되어야 할 점은 중도입국 청소년이 장기간 또는 영속적 거주의사를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경우 사전 정보로서 진학에 필요한 서류의 목록, 한국의 학제, 다문화중점학교와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의 정보, 국내 취업상황과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 등 필요한 사항이다. 서

울시는 서울온드림교육센터를 구심점으로 하여 TF를 구성하고 중도입국 청소년 및 학부모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 구축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서울시 관련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적 홍보를 통해 알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인터넷 페이지에는 학대를 받거나 가출한 경우 등 긴급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화번호 등의 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

(2) 다국어 및 쉬운 한국어 정보 제공

공식적인 정보 전달 체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주요 외국어와 쉬운 한국어 서비스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상술하였던 JMD의 경우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터키어, 불가리아어, 아랍어, 스페인어로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등록외국인 인구는 국적별로 중국>베트남>미국>일본>몽골 순이므로, 최소한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몽골어의 제공은 필요하다.

또한, 이 6개의 언어를 모두 자유롭게 구사할 수 없는 경우 쉬운 한국어와 그림, 표시 등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학부모들도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국어 및 쉬운 한국어 정보 제공은 위에서 인터넷 페이지 구축을 위한 TF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마련된 내용은 책자로도 편집되어 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외국인에 대하여도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3) 학부모 대상 한국 학제 설명회 및 자녀 진로 상담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교육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앞서 서술한 바 있다. 교육전문가 양성 자체에 대하여는 후술할 것이나, 그러한 인력을 이용하여 공식적인 정보 제공을 공공에 대하여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테면,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1회 정도의 학제 설명회, 자녀의 진로와 관련한 상담을 통해 중도입국 청소년이 사전에 진학과 관련한 준비를 하고, 진로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행사는 서울온드림교육센터에서 주관하여

외국인밀집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서남권에서 장소를 섭외하여 홍보 후 개최하도록 하고, 연계기관에서 협조 및 합동 행사 형식으로 치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교육 진입 정보 제공을 위하여 서울시교육청의 협조도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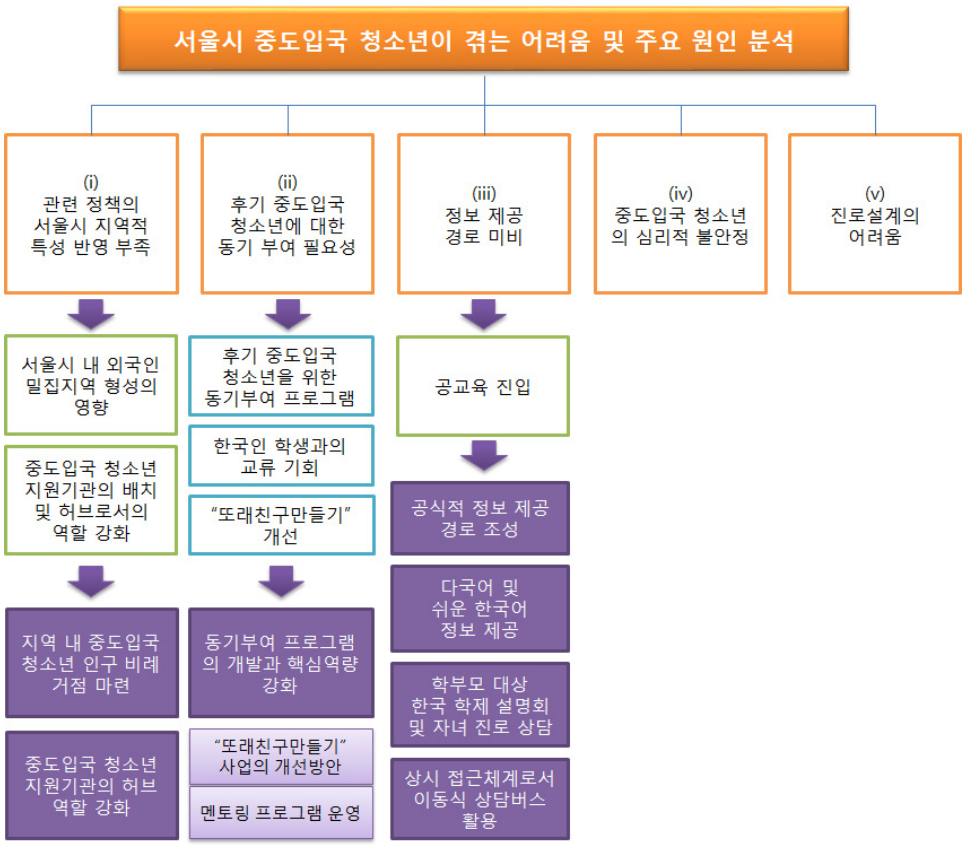
(4) 상시접근체계로서 이동식 상담버스의 활용

중도입국 청소년은 접근성이 매우 낮은 집단이므로, 그 나름의 네트워크를 통해 자주 모이는 곳에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 등의 사례와 같이 이동식 상담버스를 정기적으로 설치하고, 정보지 배포, 아웃리치를 실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Ⅵ-8▐ (사)들꽃청소년세상의 움직이는 청소년센터(EXIT)

※ 출처 : http://www.jeski.org/bbs/board.php?bo_table=nonprofit&wr_id=29 2017.12.19. 현재

▌그림 Ⅵ-9▐ 정보 제공 경로 미비에 대한 개선방안



4) 상담 및 부모교육

(1) 이중언어 가능 상담사 양성 및 활용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원이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뿐 아니라 내재화된 정서적 문제도 상담을 통해 치유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심층면접조사에서 현장전문가들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정과 상담치료의 필요성에 대하여 여러 번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중언어가 가능한 상담사가 없어 부모가 중도입국 청소년과 상담사 중간에서 통역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따라서 중국어, 베트남어 등 주요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상담사의 양성이 필요하다. 이 경우 이중언어가 가능

한 결혼이민여성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견해에 따라선 결혼이민여성보다 중국 유학생 등 젊은 세대의 인력 활용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한다. 전문가08의 의견이 그 예이다.

> 저희는 운이 좋게 아동심리를 공부한 분이 저희 심리 프로그램 통역을 하고 계세요. 중국분이에요. 한족이고요. 그 분이 통역하실 때랑 다른 분이 통역하실 때랑 질이 달라요. 아이들이 느끼는 것도 달라요. 전문가 통역이라 그게 쉽진 않지만, 엄마 통역보다 더 발전된 게 제3자 통역, 그보다 더 발전된 게 심리전공자가 통역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더 지원을 해서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면 좋겠어요. – 전문가08

이러한 견해는 결혼이민여성의 학업에 대한 열의 부족, 상담분야 직종에 대한 낮은 관심사에 대해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한 비판일 수는 있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가족복지·교육심리·상담심리 등을 전공하여 전문상담사가 되는 과정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어 개인이 감당하기에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정 정도의 지원을 통해 개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고, 그러한 방안으로서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재원 투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슷한 예는 찾아볼 수 없지만, 서울시가 2016년 '외국인주민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 사업 중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의 협력으로 사이버대·방통대 재학하는 학생 중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던 건을 상기해볼 수 있다.

이러한 이중언어 상담사가 양성된 이후에는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파견하여 심리 상담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2)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의 부모 대상 아동학대 방지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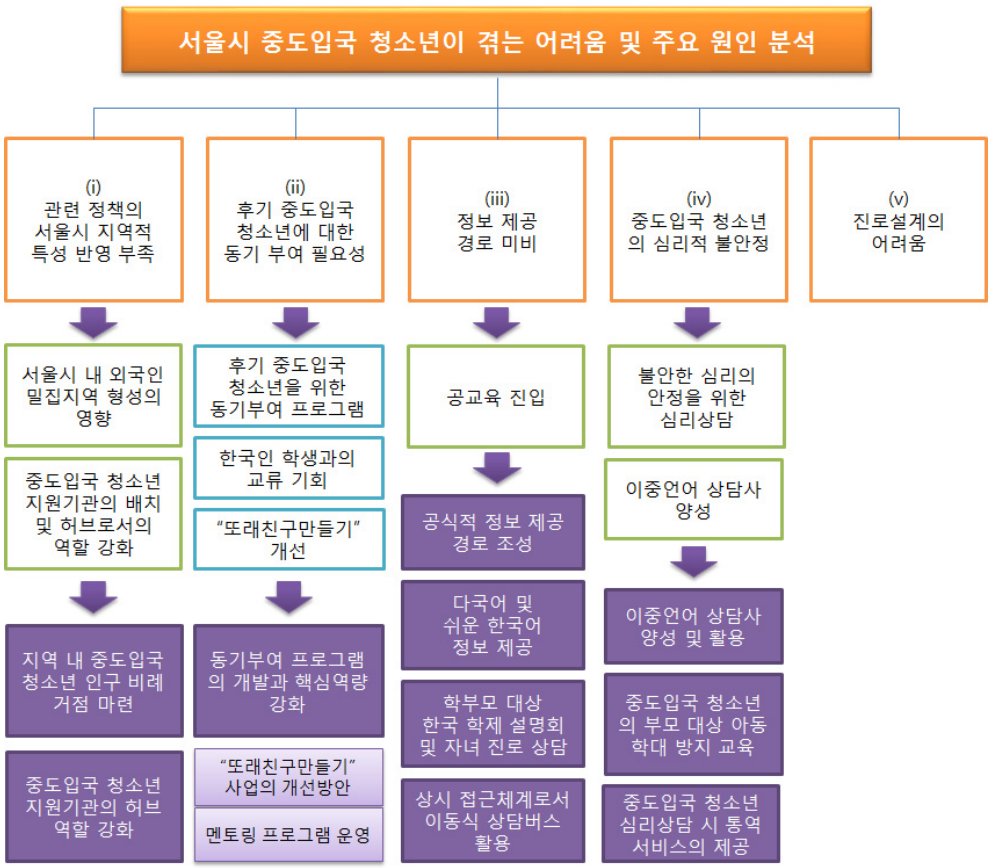
중도입국 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방지 교육도 필요하다. 심층면접조사에서는 맞벌이 부모가 중도입국 청소년을 사전 준비 없이 한국에 오게 한 후 어떻게든 될 거란 믿음으로 방치한다는 현장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의 종사자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어 학대가해자인 부모로부터 아동을 분리시키지도 못하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서울온드림교육센터와 같은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을 이용하여 부모 대상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바이다. 서울시에서는 '찾아가는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찾아가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일반시민에 대하여도 요청이 있는 경우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아동학대 방지 교육은 재혼가정의 경우 혼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그러한 방법 외에도 정례적인 행사로서 서울온드림교육센터가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의 허브 역할로서 장소를 제공하고, 건물이 위치한 서남권 주변에 널리 홍보하여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시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도 동 센터에 다니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통해 주요 외국어로 번역된 학대 예방에 관한 안내서를 배부하여 일상적인 경각심을 가지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3) 중도입국 청소년 심리상담 시 통역서비스의 제공

이중언어가 가능한 심리상담사를 양성하는 방안은 (1)에서 설명하였으나, 현실에서 투입되기 전에는 과도기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 경우 최소한 현재와 같이 중도입국 청소년의 부모가 심리 상담에서 통역 역할을 하는 상황만큼은 막을 수 있도록 통역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원칙적으로는 본래 이루어지고 있어야 할 사항이나, 사실상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 부모 등이 통역의 역할을 위해 심리상담에 참여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제한을 완화하여 부득이한 경우 심리상담사 과정을 밟고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 출신 학생 또는 유학생,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 종사자로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사항은 기존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 상담을 연계하는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 종사자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림 Ⅵ-10▐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정 개선방안



5) 교육전문가 파견과 한국어 심화과정 마련

(1) 교육전문가 파견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에 교육전문가를 파견하는 일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 중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 교육전문가는 한국의 통상적인 입시제도뿐 아니라 다솜학교, 서울국제고등학교 등 이주다문화 특성이 강한 학교, 서울산업정보학교·종로산업정보학교·한양정보학교 등 자격증 취득에 유리한 학교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진로상담 및 진로계획에 훈련을 거친 사람으로서 교사 및 진로진학상담교사 출신의 경력단절여성,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또는 그에 준하는 자

격이 있는 자 등의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전문가 양성 사업은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하여 서울온드림교육센터가 세운 계획 하에 진행하되, 인원은 서울시 산하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의 수에 비례하여 양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현재는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으로 서울온드림교육센터가 유일하지만, 향후 적어도 공부방 형태의 거점이 두 곳 마련되고, 각 자치구 수련관에서 중도입국 청소년 진로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중도입국 청소년이 주로 모이는 곳에 이동형 상담버스를 배치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우선적으로 십여 명 안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한국어 심화과정 마련

현재 공교육에 진입하여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사례의 중도입국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면서도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에서 한국어를 계속 배우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학습 또는 취업에 필요한 한국어 심화학습의 마련을 제안한다. 학교에 다니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하여 학교를 파한 뒤 학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또는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에서 오후 또는 야간에 가능한 한국어 심화학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서는 한국어 교과과정(KSL)을 학습과정의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어 교과과정은 생활 한국어 영역과 학습 한국어 영역을 구별하고 있는데, 학습 한국어 영역의 교수·학습 계획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 ▸ 인지적·학문적 언어능력이 한국어로 체득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학습 목표와 내용에 맞도록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한다.
- ▸ 학습자들이 비판적·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지적·학문적 특성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한다.
- ▸ 인지적·학문적 언어능력을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실 환경을 구축하고, 학습자의 언어와 문화, 지식이 기반이 되는 내용 중심 수업을 설계한다.

– 교육부, 「한국어 교육과정」, 교육부 교시 제2015-74호 [별책 43] 2012.12., 20면 참조

또한, 학습에 필요한 어휘를 교육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언어 재

료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수학 교과에서 영역별 핵심 주제를 뽑고, 그에 해당하는 어휘를 익히도록 한다.

▌그림 Ⅵ-11▐ 한국어 교육과정(KSL) 고등학교 수학 과목 영역별 핵심 주제 예시

고등학교 수학 교과(군) 기본·일반 과목 영역별 핵심 주제(총7과목)

1. 기초수학	2. 수학 I
• <수와 식의 계산> 수의연산 • <수와 식의 계산> 문자의 사용과 식의 계산 • <수와 식의 계산> 다항식의 계산 • <방정식과 함수> 일차방정식과 일차함수 • <방정식과 함수> 이차방정식과 이차함수 • <피타고라스 정리와 삼각비> 피타고라스 정리 • <피타고라스 정리와 삼각비> 삼각비	• <다항식> 다항식의 연산 • <다항식> 나머지정리 • <다항식> 인수분해 • <방정식과 부등식> 복소수와 이차방정식 • <방정식과 부등식> 이차방정식과 이차함수 • <방정식과 부등식> 여러 가지 방정식 • <방정식과 부등식> 여러 가지 부등식 • <도형의 방정식> 평면좌표 • <도형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 <도형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 <도형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 <도형의 방정식> 부등식의 영역

▌그림 Ⅵ-12▐ 한국어 교육과정(KSL) 고등학교 수학 과목 영역별 핵심 어휘 예시

고등학교 수학 교과(군) 기본·일반 과목 주제별 어휘 예시

주 제		어 휘
기초 수학	<수와 식의 계산> 수의 연산	무리수, 근호, 제곱근, 제곱
	<수와 식의 계산> 문자의 사용과 식의 계산	사칙연산, 일차식
	<수와 식의 계산> 다항식의 계산	지수법칙, 단항식, 다항식, 인수, 인수분해
	<방정식과 함수> 일차방정식과 일차함수	일차방정식, 일차함수, 직선, 순서쌍, 일차방정식, 일차부등식, 연립일차방정식, 연립일차부등식
	<방정식과 함수> 이차방정식과 이차함수	미지수, 항등식, 근의 공식, 완전제곱식, 평행이동, 최솟값, 최댓값, 포물선, 꼭짓점, 절편
	<피타고라스 정리와 삼각비>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와 삼각비> 삼각비	삼각비, 사인, 코사인, 탄젠트
수학I	<다항식> 다항식의 연산	다항식, 내림차순, 오름차순, 동류항
	<다항식> 나머지정리	나머지 정리, 항등식,
	<다항식> 인수분해	미정계수법, 인수정리, 조립제법, 계수비교법, 수치대입법
	<방정식과 부등식> 복소수와 이차방정식	허수단위, 복소수, 이차방정식, 판별식, 실근, 허근
	<방정식과 부등식> 이차방정식과 이차함수	이차함수, 이차방정식, 포물선, 꼭짓점, 절편
	<방정식과 부등식> 여러 가지 방정식	삼차방정식, 사차방정식, 연립일차방정식, 연립이차방정식
	<방정식과 부등식> 여러 가지 부등식	부등식, 허수 단위, 실수부분, 허수부분, 실근, 허근
	<도형의 방정식> 평면좌표	내분점, 외분점, 수직선, 평면좌표
	<도형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선분, 평행 조건, 수직 조건, 거리
	<도형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원, 원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평행이동, 원점이동, 대칭이동
	<도형의 방정식> 부등식의 영역	부등식의 영역, 최댓값, 최솟값

취업에 특화된 한국어 심화학습에 관하여는 캐나다 온타리오지역의 Enhanced Language Training(ELT)와 Occupation-specific Language Training(OSLT)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OSLT를 예로 들 경우 비즈니스, 건강과학, 인적 서비스, 건축, 기술, 자동차 관련 사업의 코스를 두어 직업에 특화된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과정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취업에 특화된 심화학습에서 중요한 부분은 전문적으로 쓰이는 용어 및 어휘에 있으므로, 해외사례를 참조하여, 상술한 지역교육전문가를 통해 중도입국 청소년을 교육할 수 있는 정도의 어휘교재를 개발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그림 Ⅵ-13▐ 캐나다의 ELT 과정

▌그림 Ⅵ-14▐ 캐나다의 OSLT 과정

6)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상술한 바와 같이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취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실력이 좋아야 하고, 취업할 수 있는 직종과 전공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서덕희 외(2015)의 연구에 의하면, 중도입국 청소년이 주로 취업하는 직업은 음식점, 면세점 등의 서비스업이고, 취업 후에도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업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 직업 관련 한국어 심화과정이 필요하나, 이에 대하여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휘교육에 관한 교재 개발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참여를 위해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일부 강좌의 모집자격을 열어놓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서울시 기술교육원은 대부분의 교육대상의 응시자격을 '만 15세 이상인 자로 서울특별시 주민등록된 자,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된 자(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배우자가 내국인인 자 및 그 자녀)'로 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 의하면, 중도입국 청소년 중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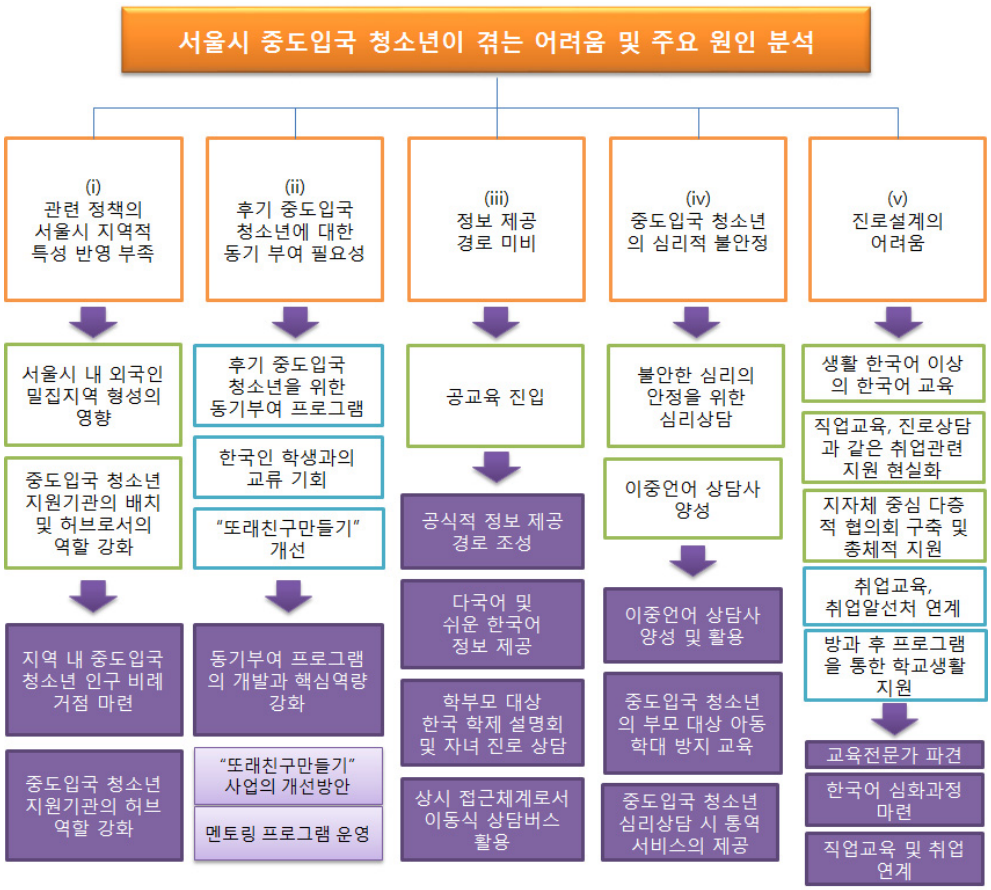
주권 또는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일부만이 응시자격에 해당한다. 앞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대부분이 장기 또는 영속적 거주의사를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였고, 대부분 부모의 체류자격에 의하여 중도입국 청소년의 체류자격도 결정된다고 서술하였던 점을 상기하면, 국내에서 일정 분야에 대해 배우고 취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명백한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 가지 참고할만한 사항으로 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인 글로벌산업기술교육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과 H-2 비자를 가진 재중동포에 대하여 교육 응시자격을 열어놓고 있다.

서울시 기술교육원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응시자격을 중도입국 청소년에까지 열어놓는 것에 대해 관계부서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편, 취업연계에 대하여도 현재까지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대부분 가족, 지인 또는 이주민커뮤니티가 압도적이었다. 그런데 서덕희 외(2015)의 연구는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는 방식을 지자체중심 모형, 기관중심 모형, 실무자중심 모형으로 구분하고, 안산과 같이 인구학적으로 이주민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이주민 관리 차원에서 사례관리 중심의 다층적 협의회가 구축된 시스템에 근거하여 총체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서울시도 외국인 밀집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특징이 있으므로, 안산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테면, 서울시 차원에서 중도입국 청소년, 이주민 커뮤니티 구성원,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 및 지원단체 종사자, 고용노동부, 기술교육원, 청년취업관련 서울시 공무원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사례관리 중심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취업연계, 인턴 도입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실제 사례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므로, 당장에 실행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긴 어렵고, 장기적 관점에서 안산시 사례를 관찰하고, 이를 서울시 실정에 맞게 수정 제안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Ⅵ-15▐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설계의 어려움 개선방안



2.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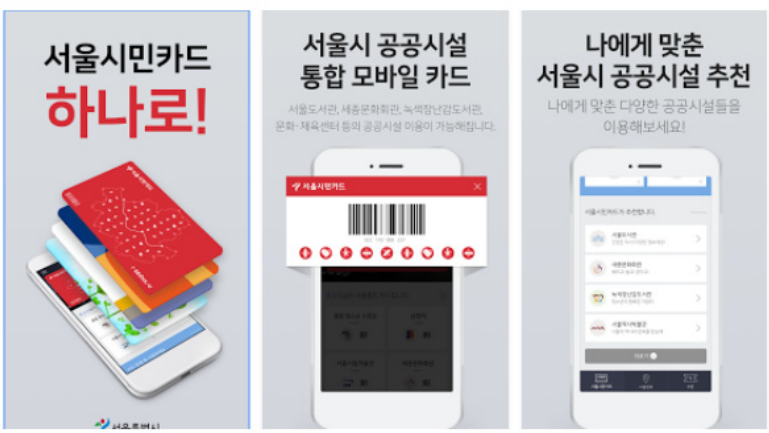
1)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통계 마련

앞서 정책 마련에 선행되어야 할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통계가 전무하여 관련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은 언급하였다. 서울시 차원에서 관련 통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계의 성격상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발견하고 그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통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체류자격이 매우 다양하고, 부모의 체류자격에 동반하여 쉽사리 바뀌는 성질로 인해 중도입국 청소년 인구를 직접적으로 조사할 수 없다면, 그

차선책으로 앞서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서울온드림교육센터, 레인보우스쿨, 서울시교육청, 이주다문화 청소년 관련 단체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정책구상과 그에 관련한 의견을 듣는 기회에 소속 중도입국 청소년 인구를 조사하여 그 합산을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의 최소한의 인구로 설정하는 것이다. 둘째는 외국인등록을 마친 청소년에게 서울시 차원에서 외국인청소년증을 발급해주는 방법이다. 또는 "모바일 서울시민카드 앱"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청소년에게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로그인 데이터를 동의하에 수집하여 상시 인구 규모를 관리하는 방안도 제시한 바 있다.

▌그림 Ⅵ-16▐ 서울시민카드 하나로 안드로이드용 앱



※ 출처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seoul.scc 2017.12.31. 현재

2) 체류허가기간의 유예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로서 체류허가기간의 유예를 들 수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정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는 체류허가기간이 짧고, 임시적이라는 것이었다. 이를 테면, 중도입국 청소년이 단기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 지원기관의 한국어교육의 한 학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본국으로 가야하는 상황이 닥친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무교육 과정에서 학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D-4-3 비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강제퇴거조치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특

히 후기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는 공교육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18세 이상인 경우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연령이 되기도 한다. 이 경우에 생활에 필수적인 한국어 및 교과목의 학업을 위해 서울시 공인 등의 절차를 거쳐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에도 D-4-3 비자의 효과와 유사한 체류허가기간의 유예를 추진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온드림교육센터 또는 레인보우스쿨 등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명백한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하여는 학기가 진행하는 동안에는 체류허가기간을 유예하여 체류 불안정으로 벗어나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서울시는 이 부분을 법무부와 논의하고, 이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Ⅵ-17▐ 중도입국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 및 주요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

3. 소결

이 장에서는 앞서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 및 그 주요 원인을 분석한 내용에 대응하여 지원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시작 시기에 기존 정책의 서울시 지역적 특성 반영 부족, 동기 부여 필요성, 정보 제공 경로 미비,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정, 진로설계의 어려움 등이 열거되었다. 선행연구와 관련 정책을 검토한 후 도출한 시사점도 대부분 이 다섯 가지 범주로 구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범위를 외국인근로자의 자녀와 외국국적동포의 자녀로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발견되는가 하면, 여성가족부나 서울시의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 내용이 매우 빈약하여 정책적 보완이 크게 있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이 장에서 열거한 정책제안은 따라서 가장 필요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하다. 또한 이 내용의 대부분이 기존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인 서울온드림교육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서울온드림교육센터의 규모를 확대하여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정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중도입국 청소년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공부방 등의 형태로 거점을 삼아 지리적으로 먼 곳의 중도입국 청소년이 관련 정책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독일 JMD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거점으로서의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의 내용에 대해 이 장에서 첫 번째로 언급한 '지역 내 중도입국 청소년 인구 비례 거점 마련'은 원칙적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인구 규모가 파악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등록외국인 인구를 기준으로 선험적으로 접근한다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당해 지역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중도입국 청소년이 있는가에 대해 자치구의 협력도 필수적이며, 공부방 형태의 거점을 마련하기 전에 예를 들어, 이동식 상담버스와 아웃리치 등으로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로 든 동기부여 프로그램의 개발과 핵심역량 강화에서는 2017년 최초 시행된 "또래친구만들기" 사업의 개선방안으로서 (ⅰ) 중도입국 청소년과 만날 대상 청소

년의 지정, (ii) 동기 부여 프로그램의 콘텐츠 개발, (iii) 만남 횟수, (iv) 홍보의 방식에 관하여 논하였다. 더불어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도 구상하였다. 중도입국 청소년 중 심리적 불안정을 느끼는 사례의 다수가 한국어 미숙 또는 마음상태를 얘기할 친구가 없는 경우였다. 따라서 "또래친구만들기"와 같이 학교밖 중도입국 청소년과 재학생 한국 청소년을 매칭하는 방식도 유용하겠지만, 중도입국 청소년과 동일 국적인 선배 중도입국 청소년 중 현재 한국에서 잘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는 멘토를 매칭하여 멘토링을 시행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생-중도입국 청소년 멘토링을 통해 공교육 진입 유도와 한국 사회 및 문화의 체험을 근거리에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셋째는 정보 제공 경로 확보와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상시 접근 체계의 마련이다. 공식적 정보 제공 경로의 조성을 위해 서울온드림교육센터와 각 자치구 청소년 수련관 등 물리적 장소에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정보를 항시 제공할 수 있도록 경로를 확보하고, 다국어 및 쉬운 한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사이트 구축을 통해 정보접근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 구축의 방식으로는 캐나다 온타리오 지역의 SettlementAtWokr Wiki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의 현장종사자 등의 협업으로 블로그나 SNS에 관련 정보를 질서있게 적고, 서울시 여성정책실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두는 형식으로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도입국 청소년이 정보를 얻는 경로가 대부분 부모와 지인이었으므로, 학부모에게 한 한국 학제 설명회 및 자녀 진로 상담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러한 행사를 서울온드림교육센터가 주관하여 서남권의 모처를 섭외, 홍보한 후 개최하도록 하고, 이때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기관의 협조 또는 합동 행사 형식으로 치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상시접근체계로서 이동식 상담버스의 활용도 고려해볼 수 있다.

넷째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상담 및 부모교육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중언어가 가능한 상담사의 양성이 시급한 문제였고, 이를 위해 전문상담사 과정을 밟는 중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원 투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중도입국 청소년이 방치되거나 학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방지 교육도 필요하다. 서울시에서는 '찾아

가는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찾아가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일반시민에 대하여요 요청이 있는 경우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례적 행사를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중언어가 가능한 상담사의 양성에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과도기적으로 중도입국 청소년 심리상담 시 통역서비스의 제공을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본래 이루어지고 있어야 할 내용이나, 사실상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 부모 등이 통역의 역할을 위해 심리상담에 참여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제한을 완화하여 부득이한 경우 심리상담사 과정을 밟고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 출신 학생 또는 유학생,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 종사자로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섯째로 교육전문가 파견이 필요하다. 교육전문가는 한국의 통상적인 입시제도뿐 아니라 중도입국 청소년이 갈 수 있는 학교 전반을 파악하고, 진로상담 및 진로계획 훈련을 거친 사람으로서 교사 및 진로진학상담교사 출신의 경력단절여성,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 등의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 심화과정의 마련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요청되어 왔던 것으로 파악된다. 생활 한국어 수준과 달리 교과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학습 한국어의 어휘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한국어 교과과정(KSL)을 도입하여 학교를 파한 후 학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또는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에서 오후 또는 야간에 심화학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에 특화된 심화학습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보고서에 의하여 양성의 필요성이 주장된 지역교육전문가를 여기서도 활용하여 중도입국 청소년을 교육할 수 있는 정도로 직업상 필요한 어휘를 수집하여 교재를 개발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여섯째,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이다. 이 부분에서는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일부 강좌의 모집자격을 중도입국 청소년에 열어놓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취업연계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사례관리로서 다층적 협의회가 구축된 시스템에 근거하여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안산시 방식 관찰하고, 서울시 실정에 맞게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통계 마련 문제와 학기 중 체류허가기간 유예의 문제는 서울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국가차

원의 통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현재로서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하였다. 또한 체류허가기간의 유예도 법무부와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에도 체류허가기간의 유예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나, 서울온드림교육센터 등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명백한 경우도 학기가 진행하는 동안에는 체류허가기간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논의를 거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위와 같이 제안된 정책을 통해 중도입국 청소년이 당면한 한국 사회의 적응 문제를 일면 해결하고, 글로벌 인재로서의 성장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6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유·초·중등 교육통계편, 2016.12.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5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유·초·중등 교육통계편, 2015.12.

경기도교육청, 2016 경기도 다문화예비학교 운영 매뉴얼, 2016.4.1.

서울시, 2017년 중도입국 청소년 또래친구만들기 사업 추진계획, 2017.2.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 기본 계획(안), 2017.1.

여성가족부, 중도입국청소년 지원정책개발 연구, 2011.

여성가족부,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2012.12.

여성가족부,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2016년도 시행계획_중앙행정기관, 2016.

여성가족부,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2016년도 시행계획(I)_지방자치단체, 2016.

여성가족부, 이주배경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2016 이주배경청소년정책 토론회, 2016.11.25.

여성가족부, 2016 청소년백서, 2016.12.

강희영, 서울시 다문화가족 생활실태분석을 통한 정착 및 사회통합지원방안 연구, 2013.12.

고남정/오성배, 학교 재학과 학교 밖 기관 이용 여부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제22권 제4호, 2016.8.

배상률,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서덕희 외,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직업군 개발 및 취업지원 방안 연구, 2015.10.

서혁, 다문화 시대의 국어교육과 다문화 문식성 교육, 국어교육연구 제48권, 국어교육학회, 2011.2.

신현옥, 중도입국청소년 실태조사, 2013.12.

오성배, 중도입국 청소년 지역별 지원 실태에 대한 분석, 이민정책연구원, 2013.

이규용,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14.12.

장명선 외, 서울시 중도입국청소년 현황과 지원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1.12.

정수정/류방란, 독일의 이주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 정책, 비교교육연구 제22권 제2호, 2012.

정해숙 외,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성가족부, 2016.1.

전기택 외,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성가족부, 2013.1.

한은진,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문화적응과정과 유형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17권 제2호, 2013.5.

Abstract

A Study on the Status of Migrant Youths in Seoul and Supporting Plans

Lee, Sung-mi
Research Fellow,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grasp the status of migrant youths in Seoul and to inspect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policies to support them. Also the policy demands were collected through the in-depth interviews with the migrant youths in Seoul, parents, experts and a public officer. With the analysis of the results the author suggests an direction and detailed policies.

Fist of all,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migrant youths in Seoul” means the children of the marriage immigrants or the acquisitor of korean nationality by the acknowledgement or the naturalization who between 9-24 years old, live in Seoul. However, during the research process the necessity to extend the meaning “migrant youths in Seoul” came to the front, that is to the children who lived mostly in foreign country and live in Seoul now; entered into Korea at a relative later age after 13-15 years old; with the intent of long-term or permanent residency; faced the biggest problem of “the adaptation to the korean society.” The children of foreign workers and compatriots are included in this extended meaning.

This study is divided three parts. In the first part the precedent studies, the related regulations and the poli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Seoul as a local government are analyzed.

In the second part the difficulties and its causes are described. The important causes are (i) the lack of Seoul's regional characteristics in the related polices, (ii) the lack of motivation for migrant youths over 17 years old, (iii) the lack of information channels, (iv) a mental instability of migrant youths and (v) difficulties for the career planning.

In the last part, on the base of the above stated analysis the suggestions for an direction and detailed advanced polices are described. For the Seoul's local government, getting a strategic position in proportion to the population of migrant youths, making a official information delivery channel like internet homepage built up through the cooperation of related organizations, strengthening of the role as hub of the migrant youths support organization and counseling & parent educations are contents of detailed policies. And for the central government, preparing statistics about migrant youths and the postponement of the end of residency permission.

key word : migrant youths in Seoul, regional characteristic, motivation, information delivery channel, mental instability, career planning

2017 정책연구 - 23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

발행인 강경희
연구자 이승미, 이해응, 이화용
발행일 2017년 11월
인쇄처 행복한 나무
발행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전 화 02-810-5101(代)
ISBN 979-11-87956-68-6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함께해요 청렴실천, 신뢰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www.seoulwomen.or.kr